철세위인들과 조선의 농업근로자들



2025년

차 례

머 리 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근로자동맹과 농업근로자들은 혁명의 년대마다 당과 수령의 령도를 받들어 농촌계급진지를 굳건히 다지고 농업전선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습니다.》

조선의 농업근로자들은 절세위인들의 각별한 사랑과 믿음을 받아온 행복한 농업근로자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마련하신 주체적농민조직건설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전통에 기초하여 해방후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농민동맹을 조직하시고 토지개혁을 실시하여 농민들을 땅의 주인으로 되게 하시였고 전후에는 농업협동화를 하여 농촌에서 봉건적토지소유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고 농민들을 사회주의적근로자로 되게 하시였으며 사회주의농촌테제를 제시하시여 농민문제, 농업문제해결에서 전환을 이룩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농업근로자들을 농업생산의 담당자, 주인으로 내세우시였으며 주체적이며 과학적인 농사방법을 주체농법으로 명명하시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으며 선군시대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제시하시여 농업문제해결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놓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농업근로자들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기본력량으로, 쌀로써 당과 혁명을 보위하는 애국적인 근로자들로 내세워주시였으며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을 제시하시고 조선로동당의 사

회주의농촌건설목표를 성과적으로 달성하고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고계신다.

혁명과 건설에서 농업근로자들을 굳게 믿으시고 농업근로자들에게 의거하여 혁명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나가신 절세위인들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 현명한 령도는 그들을 사회주의농촌의 참다운 주인으로 튼튼히 준비시키고 혁명의 년대마다 당과 수령의 령도를 받들어 농촌계급진지를 굳건히 다지며 농업전선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게 한 원동력이였다.

절세위인들의 어버이품을 떠나서 조선의 농업근로자들의 오늘의 행복과 찬란한 래일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절세위인들께서 안겨주신 그 믿음과 사랑이 하도 은혜롭고 숭고한것이여서 전설같은 일화들이 날을 따라 늘어나고있다.

도서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인민의 행복을 위한 끊임없는 령도의 나날에 조선의 농업근로자들에게 안겨주신 믿음과 사랑에 관한 하많은 일화들가운데 그 일부를 전하고있다.

편집부는 세계인민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인상을 깊이 체득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이 도서를 내놓는다.

농업생산을 위한 길에 한평생의 로고를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광복직후 토지개혁을 실시하여 우리 농민들을 땅의 주인으로 되게 하시였으며 전후에는 농업협동화를 하여 농촌에서 봉건적토지소유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고 농민들을 사회주의적 근로자로 되게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강력한 혁명의 주체를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제땅에서 마음껏 농사를 짓고싶어하는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을 헤아리시여 농민들을 나라의 주인, 땅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시였으며 농민들이 주인으로서의 구실을 잘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농촌문제해결의 대강인 농촌테제를 내놓으시였으며 가장 우월한 농촌경리제도와 농업지도체계, 주체농법도 마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사는 천하지대본이라고 하시며 언제나 농민들속에 들어가시여 허물없이 농사일도 의논해주시고 현명한 령도로 농업생산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놓으시였다.

진정 위대한 수령님은 조선인민에게 행복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한평생 농장길, 포전길을 걸으시며 언제나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계시였다.

나라의 주인, 땅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시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날 우리 인민들은 일제식민지통치밑에서 장구한 기간 온갖 착취와 압박을 받으며 비참하게 살아왔습니다. 1945년에 나라가 해방되여서야 우리 인민들은 처음으로 사람다운 생활을 하게 되였습니다. 농민들은 땅의 주인이 되여 제땅에서 농사를 짓게 되였고 로동자들은 공장의 주인이 되여 마음껏 일하게 되였습니다.》

예로부터 농사는 천하지대본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일생토록 땅과 인연을 맺고 살아온 조선의 농민들은 너무도 오랜 세월 땅의 노예가 되여 마소와 같은 운명을 강요당해야 했다.

나라없던 그 세월에 이중삼중의 착취와 압박을 받아오던 사람들이 바로 조선의 농민들이였다.

두손이 다 모지라지도록 땅을 걸구고 뼈빠지게 일을 하였지만 제땅이 없었던탓에 차례진것은 천대와 멸시뿐이였다.

바로 그러하던 사람들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뀐 극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을 찾아주시여 조선의 농민들은 비로소 땅의 주인, 나라의 주인이 되고 쌀로써 나라를 떠받드는 참다운 농촌혁명가, 애국농민들로 자라날수 있었다.

땅의 주인은 농민이라고

1945년 10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동군인민

들이 마련한 환영모임에 참석하시고 돌아오시던 길에 한 국수집에 들리게 되시였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른 고장에서 지주집머슴을 살다가 생활이 좀 펴일가 해서 이곳에 이사와 농사를 하면서 국수장사를 하고있던 주인집아주머니와 허물없이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그는 한탄섞인 어조로 제땅에서 마음껏 농사를 지어보는것이 평생소원인데 제땅이 없으니 그 소원을 이루어볼수 없다고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그대로 말씀올리였다.

그러면서 그는 땅을 소작내여 농사를 지었으니 땅임자에게 소작료를 바칠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땅임자라 하고 여러번 외우시였다. 그러시고는 단호하신 어조로 《땅은 밭갈이하는 농민의것이다!》, 《소작료는 안물어도 된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법을 만들면 된다고, 땅임자는 지주가 아니라 아주머니와 같이 땅을 다루는 농민이라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녀인에게 땅의 주인은 농민이라고 하시였다.

못사는 농민들에게 땅을 먼저 주려고 한다고

1946년 2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신미리부락앞을 지나시다가 길가의 한 집앞에서 차를 멈춰세우시고 주인을 찾으시였다.

자기앞에 서계시는분이 바로 일제침략자들을 쥐락펴락하시던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이심을 미처 알아뵙지 못한 주인은 위대한 수령님을 흔연히 맞이하였다.

집주인과 집안형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행한 일군에게 부근에서 오래동안 농사를 해오는 몇사람을 더 데려오라고 이르시였다.

주인의 청대로 좁은 방에 스스럼없이 들어서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안색은 흐려지시였다. 가난에 쪼들린 조선농민들의 정상이 아프게 안겨들었기때문이였다.

잠시후 여러 농민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땅이 있는가, 집에 식구는 몇인가를 물으시였다.

땅이 한평도 없다고, 식구는 다섯이나 된다는 한 농민의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누구에게라없이 지주의 땅을 몰수하여 땅이 없는 농민들에게 나누어준다는 말을 들었는가고 또다시 물으시였다.

농민들은 그런 말이 돌기는 도는데 그 말이 진짜인지 모르겠다고 서로 마주보며 머리를 기웃거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에서 지주놈들의 땅을 빼앗아 땅이 없는 농민들에게 주면 가지겠는가고 미소를 지으시며 물으시였다.

그러자 농민들은 가지겠다고, 오래동안 꾸어온 꿈인데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그런데 그 일이 쉽게 되겠는가고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소원은 하면서도 반신반의하는 그들의 말에 그것이 농민들의 요구라면 지주의 땅을 몰수하여 발갈이하는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주겠다고 하시며 원래 땅은 발갈이하는

농민들의것이라고, 이제는 나라가 해방되였으니 거꾸로 된 세상을 바로잡고 농민들이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 잘살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믿을래야 믿어지지 않는 사실앞에서 마을에서 제일 못산다는 농민은 위대한 수령님께 이제 나라에서 땅을 준다는데 자기와 같이 땅이 한평도 없는 사람에게도 주는가고 말씀드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손을 꼭 잡아주시며 나직이 나라에서는 동무와 같이 땅이 한평도 없는 못사는 농민들에게 땅을 먼저 주려고 한다고 하시였다.

농민들을 땅의 영원한 주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토지문제를 해결하는것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서 선차적인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토지개혁을 실시하는데 큰 힘을 넣으시였다.

토지개혁을 실시하는것은 농민이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식민지농업국가였던 조선에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해방직후 조선에서는 전체 농호의 4%밖에 안되는 지주가 총경지면적의 58.2%를 차지하고있었으며 농가호수의 56.7%에 달하는 빈농민들은 경지면적의 겨우 5.45%를 차지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46년 3월 4일 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제5차확대집행위원회에서 토지개혁의 실시와 관련한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히시고 3월 5일에는 림시인민위원회 제3차회의에서 토지개혁에 대

한 법령을 발포하시였다.

토지개혁법령의 발포, 이것은 조선에서 농민들을 땅의 영원한 주인으로 만들고 지주계급을 완전히 청산하며 착취와 압박의 근원으로 되여있던 봉건적인 토지소유관계를 뿌리채 뽑아버린 력사적인 사변이였다.

표말을 박아준 이 밭을 영원히 부쳐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토지개혁법령발포후 수많은 농촌들을 찾으시고 그 실행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1946년 3월 어느날 평양시 삼석구역의 한 농촌마을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민들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토지개혁실행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으며 친히 밭머리에 나가시여 지주집에서 머슴살던 한 농민의 이름과 분여된 평수가 적힌 표말을 손수 땅에 박아주시였다.

그러시고는 그 농민에게 동무는 우리가 표말을 박아준 이 밭을 영원히 부쳐야 한다고 하시였다.

로동자, 농민을 앞세워야 한다

해방된 이듬해 전세계근로자들의 명절인 5.1절을 며칠 앞둔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함경북도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에서 일군들이 작성한 5.1절기념행사계획을 보아주시였다. 계획서에는

5.1절을 맞으며 군중시위를 진행하는 문제가 반영되여있었는데 거기에는 시위대렬의 선두에 함경북도와 청진시의 일군들이 말을 타고 나가게 되여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날 저녁 한 일군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해방된 오늘에 와서는 로동자, 농민들이 제일 귀중한 사람들이며 나라의 기둥이라고, 그렇기때문에 5.1절기념시위대렬은 반드시 로동자, 농민들을 앞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인민대중에 대한 우리 당의 확고한 립장이며 관점이라고 하시였다.

인민대중을 모든것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로동자, 농민들은 해방후의 첫 5.1절을 뜨거운 환희와 격정속에 맞이하게 되였다.

농촌문제해결의 길을 밝혀주시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나라 농촌에서 일어난 력사적전변은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사회주의농촌테제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실증으로 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농촌문제해결의 불멸의 대강이 있기에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빛나는 모범을 창조할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투쟁에서 농촌문제가 가지는 중요성으로부터 출발하여 농촌문제해결에 깊은 관심을 돌려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발전의 매 시기 농촌문제해결을 위한 옳바른 로선과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시였다.

언제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는 농사를 직접 틀어쥐고 지도하면서 농사를 추켜세우기 위한 방도를 찾기 위하여 농민들속에 들어가 늙은이들도 만나고 젊은 사람들도 만나 어떤 날에는 반나절, 어떤 날에는 하루종일 담화를 하였으며 그 과정에 귀중한 농사경험을 많이 얻게 되였다고, 자신께서는 농민들로부터 농사경험을 듣는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시험해보면서 과학리론적으로, 실천적으로 확증하였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회주의농촌문제해결의 가장 옳바른 길을 밝혀주시였기에 조선의 농업근로자들은 농업생산, 농촌건설에서 자기들의 사명과 본분을 다할수 있었다.

농업협동화방침의 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53년 8월 당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농촌경리를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하여 개인농민경리를 점차 협동화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농업협동화방침은 조선의 실정에 맞게 농촌경리의 기술적개조에 앞서 경리형태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기존공식이나 남의 경험에 구애되지 않으시고 주체사상의 근본원리에 기초하여 농업협동화를 실현하는데서 결정적조건은 농촌경리가 현대적기술로 장비되였는가 하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농업협동화가 농민들자신의 생활적요구로 나서고있는가, 그것을 맡아할 주체적력량이 마련되여있는가 하는데 있다는것을 새롭게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업협동화운동에서 자원성의 원칙을 엄격히 지키면서 실물교육을 통하여 농민들을 교양하고 당과 국가의 지도와 방조를 강화하도록 하시였으며 빈농에 튼튼히 의거하면서 중농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부농을 제한하며 점차적으로 개조하는 계급정책을 실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후 초시기 농업협동화운동의 경험적단계를 설정하시고 매개 군에서 몇개씩 농업협동조합을 시범적으로 조직하게 하시였으며 협동조합의 형태와 규모, 생산수단의 통합방식을 농민들의 사상의식수준과 경제형편에 맞게 규정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농업협동화운동은 경험적단계에서 이룩된 성과에 토대하여 1955년부터 대중적단계에 들어서게 되였으며 1957년부터는 완성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그리하여 조선에서 농업협동화는 1958년 8월 전국적으로 빛나게 완성되게 되였다.

기계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1962년 1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신천군일대의 농촌경리사업과 관련한 협의회를 지도하여주시였다.

협의회에서 이곳 농사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는 과정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다그치는 사업이 잘 진척되지 않고있는데 대하여 알게 되시였다.

일부 농촌경리부문 지도일군들속에서 새로운 련결농기계들을 적극 도입하여 뜨락또르로 여러가지 농사일을 하려는 혁신안들을 적극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기때문이였다. 새 농기계들을 도입하였다가 농사를 망치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경향이 그들의 머리속에 지배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뜨락또르의 리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논발갈이도 하고 토지정리도 하며 이랑도 짓고 씨붙임, 김매기, 낟알을 거두어들이는 일과 같은 모든 일을 다 뜨락또르로 하여야 한다고,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기계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그래야 봉건적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우리 농민들을 고된 로동에서 완전히 해방할수 있으며 알곡수확도 많이 낼수 있다고, 이것은 우리 당이 이미 내놓은 농촌경리의 기계화방침이라고 하시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협의회를 마치시면서 회의참가자들에게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가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새겨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기계화하는것을 로력부족을 해결하는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기계화는 인민들을 고된 로동으로부터 종국적으로 해방하기 위한 성스러운 과업이라는것을 알아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한 강령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새 조국건설의 첫 시기부터 농민문제, 농업문제해결에 큰 힘을 넣으시였으며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후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는것을 사회주의건설의 중요한 전략적과업으로 내세우시고 농촌문제해결을 위해 끝없는 심혈과 로고를 바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여러 회의를 계기로 사회주의농촌문제해결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과 그 해결방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64년 2월 25일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8차전원회의에서 오랜 기간의 사색과 탐구를 거쳐 무르익히시고 몸소 집필완성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시였다.

농촌테제에는 농촌에서 협동화가 완성된 다음에도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혁명의 원칙, 사회주의원칙을 확고히 고수하고 혁명을 계속 전진시켜 사회주의집단경리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며 농촌의 주인

인 농업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전면적으로 보장하여줄데 대한 사상이 관통되여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표하신 농촌테제는 사회주의사회에서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는 길을 력사상 처음으로 밝힌 불후의 고전적문헌이며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위대한 강령이다.

분조관리제의 탄생

농촌테제가 발표된지 한해후인 1965년 봄 어느날이였다.

강원도를 현지지도하시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멀리 철령너머에 있는 산간마을인 회양군 포천리를 찾으시였다.

그날 농민들과 허물없이 마주앉으시여 농사와 농민들의 생활형편, 작업반, 분조들의 구성과 그 관리운영정형 등 농장의 전반적인 실태를 료해하시는 과정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규모집단경리와 지도일군들의 관리운영수준 및 농민들의 사상의식수준사이에 일정한 불일치가 있다는것을 발견하게 되시였다.

분조를 알맞춤하게 조직하여 생산의 기층단위로, 집단생활의 세포로 정함으로써 농장원들로 하여금 공동경리발전에 자각적으로 참가하게 하는것이 필요하다는것을 포착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분조관리제를 실시할데 대한 새로운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분조관리제를 강원도를 비롯한 일부 지방의 협동농장(당시)들에서 먼저 받아들여 경험을 쌓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해 11월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2차전원회의에서 그 경험을 분석총화하시고 전국의 모든 협동농장들에 일반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분조관리제는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높은 생산의욕을 가지고 땅의 주인,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갈수 있게 한 현명한 조치였다.

대번에 밝혀주신 하천치수의 묘안

1967년 9월초 어느날 강물이 자주 범람하여 피해를 입는 어느한 고장의 수리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현지에 나가 조사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수리공학부문의 몇몇 일군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부르심을 받게 되였다.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집무실에 들어서자 수령님께서는 동무들이 왔구만, 기다렸소라고 하시며 반갑게 맞아주시였다.

그러시고는 하천의 수리대책안때문에 불렀다고, 그 하천을 어떻게 다스릴 작정인가고 물으시였다.

한 일군의 대답을 주의깊게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물주머니들을 어디어디에 설치하려 하는가, 물주머니를 건설하는 경우 건설비는 얼마나 들겠는지 타산해보았는가고 물으시였다.

일군은 선뜻 대답을 드릴수가 없었다. 하천치수를 이미 해오던 방법대로 하면 된다고만 생각하였지 거기에 들 자재와 비용에 대해서는 관심하지 못하였기때문이였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 망설이는 그를 바라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 일군에게 자와 연필을 가져오라고 이르시였다.

이윽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탁상에 펼쳐놓은 지도를 유심히 들여다보시다가 강줄기에 평행이 되게 실금을 그으시였다.

일군들이 영문을 몰라하며 지도를 들여다보고있는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실금방향에 물길을 내서 물을 분산시켜 다스리면 어떻겠는가고 하시였다.

순간 일군들의 입에서는 저도모르게 《야!》하는 탄성이 터져나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어주신 실금에는 그 지방의 하천치수와 관련한 완전무결한 착상이 그대로 비껴있었기때문이였다.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일군들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물잡이란 결국에는 물량을 줄여서 물살을 더디게 하는 방법이라고 하시며 이런 내용의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우리가 백두산에서 싸울 때 보니까 강하게 밀려오는 적은 분산시켜 족치고 반대로 흩어져서 달려드는 적은 집중해서 때리는것이 제일 좋은 상책이였다. 물을 다스리는것도 리치는 마찬가지이다. 동무는 강하게 밀려내리는 물을 정면으로 맞서 여러번 멨다끈지자고 하는데 그건 신통한 방법이 못된다. 그리고 숱한 물주머니를 만들자면 방대한 자재와 로력, 자금이 들겠는데 지금의 형편에서 그렇게 하는것은 좋은 방법이 못된다. 물론 나라가 더 부강해진 앞날에 가서는 언제를 여러개 건설하는 방책도 쓸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안으며 일군들은 거듭 탄복을 금치 못해하였다.

언제나 들끓는 현실속에서 혁명의 진리와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

군 하신 위대한 수령님이시기에 대번에 하천치수의 묘안을 밝혀주신 것이였다.

일군들은 지도에 그어진 실금을 다시금 들여다보았다.

그것은 그리 크지 않았다. 하지만 거기에는 이 세상 그 어느 위인도 따를수 없는 위대한 수령님의 비범한 예지가 그대로 비껴있었다.

이렇게 되여 이 고장에는 물길이 새로 나지게 되였으며 강물이 넘어나 피해를 입는 일이 없어지게 되였다.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어느날 물길을 따라 강물이 분산되여 흘러내리는 광경을 목격하면서 누구나 위대한 수령님이시야말로 이 세상 가장 걸출한 위인중의 위인이시라는 뜨거운 격정을 터치고 또 터치였다.

몸소 정해주신 작업반의 규모

언제인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국농업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에 올라온 여러명의 작업반장들을 몸소 만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과 다정히 이야기를 나누시며 작업반운영정형을 알아보시였다. 그러던중 한 작업반장의 대답에서 그 작업반이 다른 작업반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것을 알게 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왜 작업반이 작은가고 하시면서 농산작업반은 몇개 작업반을 합쳐서 한개 작업반을 만들면 좋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현실조건에 맞게 작업반을 다시 정리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이어 다른 농장의 작업반의 실태도 알아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산작업반이 기계화되고 뜨락또르가 많이 들어가는 조건에서 그에 맞게 작업반을 조직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기계화실현에서 나서는 문제들도 밝혀주시였다.

품종배치에서 지켜야 할 원칙

언제인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어느한 회의를 지도하시였다.

농업생산과 관련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바로잡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사에서 품종배치를 잘하는것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하여서도 강조하시였다.

당시 일부 농업부문 일군들속에서는 품종배치에서 적지적작의 원칙을 잘 지키지 못하고있었다. 아래단위에 내려가 실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그에 맞게 지도를 하여야겠으나 경험주의에 사로잡혀 사업을 보다 계획적으로 세밀하게 해나가지 못하고있었다.

이러한 편향을 헤아려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품종배치에서는 절대로 한품종을 내리먹이지 말아야 한다고, 우리 나라의 기후풍토는 지대마다 다르다고, 한 골짜기안에서도 남쪽과 북쪽이 다르며 산밑과 산마루가 다르다고 하시면서 모든 조건을 다 참작하여 적지적작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는 농업지도일군들이 낡은 사업방법을 버리고 현실조건에 맞게 농사를 보다 세밀하게, 과학기술적으로 깐지게 해나가야 한다는 귀중한 가르치심이였다.

비상한 관찰력으로

언제인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업부문 책임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일군들에게 강냉이영양단지모옮겨심기가 늦어졌다고 근심한다는데 아무일도 없으니 아직 서두르지 말라고 이르시였다.

일군들은 의아함을 금치 못하였다. 봄이라고 하지만 날씨는 여전히 차서 밤이면 도랑물에 살얼음이 끼군 하였던것이다. 추위가 풀리기를 기다리면서 강냉이영양단지모옮겨심기를 늦잡으면 기일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할것같아 모두가 안타까와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지금까지는 4월 15일이면 개나리꽃이 피였는데 올해에는 며칠 늦은것같다고, 꽃이 늦게 핀것을 보고 기상수문국에 알아보았더니 올해 날씨가 8~9일 늦어진다고 하였다고 하시면서 모든 농장들에서 여기에 기준하여 강냉이영양단지모옮겨심는 날자를 잘 맞추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하나의 자연현상을 대하시면서도 비상한 관찰력으로 농사절기를 순간에 헤아려보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는 일군들의 가슴은 한없는 격정으로 끓어번지였다.

이리하여 강냉이영양단지모옮겨심는 일은 늦어진 날씨에 맞게 다시 조직되게 되였으며 그해 농사는 때늦게 내린 봄서리의 피해를 받지 않게 되였다.

몸소 가르쳐주신 벼마디의 수

1974년 어느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청산리를 찾으시였다.

이날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당면한 영농사업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고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문득 벼마디가 몇개인지 누구 말해보라고 하시였다.

뜻밖의 물으심이여서 누구도 선뜻 대답을 올리지 못하였다. 얼핏 보면 쉬운 문제같았으나 정작 말씀올리자고보니 알쏭달쏭하여 누구도 정확한 대답을 올릴수 없었다.

농사일로 잔뼈가 굵었다고 하는 오랜 농장원들도, 봄철부터 줄창 논벌에서 살다싶이하였다는 일군들도 실지 벼에 마디가 몇개인지 똑바로 알지 못하였기때문이다.

잠시후 한 일군이 잎이 나오는 곳마다에 마디가 있는것을 보아오던 생각이 들어 대여섯마디 되는것같다고 자신없는 어조로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좌중을 둘러보시며 또 다른 의견은 없는가고 다시금 물으시였다. 좌중에는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이윽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 늘 농사를 물감장사하듯이 깐깐히 하라고 하지만 우리 일군들이 아직 그렇게 못하는것같다고 하시며 벼마디는 14~15개이라고 알려주시였다.

순간 사람들의 얼굴마다에 놀라움의 빛이 어렸다.

일군들모두가 경탄을 금치 못해하고있는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벼마디가 14~15개 되지만 눈에 보이는 벼마디는 5~6개이고 땅속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벼마디가 9~10개인데 그것들은 뿌리에 다닥다닥 붙어있어 알아보기 힘들다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였다.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해박한 지식에 감탄을 금할수가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번에는 벼마디가 벼의 생육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는가고 물으시였다. 이번에도 누구도 대답을 올리지 못하였다.

이윽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무래도 동무들이 잘 모르는것같은데 자신께서 알려주겠다고 하시며 벼마디가 벼의 알곡소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점은 별로 없지만 벼가 넘어지지 않게 바로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벼마디는 아래서부터 우로 올라가며 세는것이 아니라 우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세여야 한다고, 그렇게 세여 네번째 혹은 다섯번째 마디 즉 물면과 접촉한 제일 아래 벼마디를 밑마디라고 하는데 이 밑마디가 제일 중요하다고 가르쳐주시였다.

탈곡장에서 찾아주신 낟알예비

언제인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낟알털기로 열기띤 한 농장 작업반의 탈곡장을 찾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행한 일군에게 벼짚 한단을 가져오라고 이르시였다.

한 일군이 위대한 수령님께 벼짚 한단을 가져다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손수 벼짚단을 일일이 살펴보시고나서 벼이삭을 골라 벼알을 달아보라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깊으신 심중을 알리 없는 일군은 한줌이나 될가말가 하는 벼알을 골라 저울에 달아보았다.

그것을 지켜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걱정어린 안색을 지으시며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였다. 이윽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장일군들을

바라보시며 한정보에서 이런 벼단이 얼마나 나오는가고 물으시였다.

농장의 한 일군이 위대한 수령님께 한정보에서 900~1 000개의 벼단이 나온다고 말씀드리였다.

농장일군이 올리는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손수 수첩을 펼쳐드시고 벼짚 한단에서 나오는 벼알을 20g으로 보면 한정보에서 벼단이 1 000개이니 낟알이 20kg 그리고 우리 나라의 모든 논정보를 합치면…라고 하시며 그 수량에 대하여 계산해보시였다.

그러시고는 일군들에게 그 수자에 대하여 알려주시였다.

순간 일군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그 수자는 나라의 농업부문을 책임진 일군들도, 농장의 관리일군들도 생각지 못한 엄청난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커다란 자책감에 휩싸여있는 일군들에게 이것은 대단한 수자라고 하시며 여기에 빨리 군내일군들을 모이게 하라고 하시였다.

얼마후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군들이 수령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달려왔다.

정중히 인사를 올리는 일군들을 반갑게 맞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제 자신께서 문제를 낼터이니 함께 풀어보자고 하시였다. 일군들은 호기심에 넘쳐 저저마다 수첩을 펼쳐들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논 한정보에서 벼단이 1 000개 나오는것으로 보고 한단에서 벼알이 20g씩 묻어나가면 얼마인가고 물으시였다.

일군들은 저저마다 이구동성으로 20kg이라고 위대한 수령님께 말

씀올리였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반색하시며 우리 나라 논면적에 대하여 알려주시면서 알곡량을 계산해보라고 이르시였다.

계산해나가던 일군들은 얻어진 답이 놀라와 아무 말없이 서로 얼굴만 마주보았다.

그 수자는 비록 자기 농장의 분조, 작업반에서는 보잘것없는 낟알이였지만 전국적범위에서 놓고 볼 때 결코 적은 량이 아니였다.

일군들은 저저마다 갈마드는 죄책감에 머리를 들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러한 일군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보라고, 허실되는 량이 너무 많지 않은가고 하시며 누구에게라없이 안타까운 심정을 터놓으시였다.

이때 한 농장일군이 위대한 수령님앞에 나서며 벼짚단속에서 나오는 벼알이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그릇된 생각을 하다보니 벼짚단을 깨끗이 털지 못했다고, 오늘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고보니 놓치고있는 낟알이 전국적범위에서 보면 엄청난 량이라는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였다고 솔직한 심정을 아뢰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날 일군들에게 벼짚단속에 묻어나가는 벼이삭을 모조리 골라내기 위한 대책적문제들을 일일이 가르쳐주시며 이 사업을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쳐주시였다.

농업생산을 위해 포전길을 걷고 또 걸으시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생전에 늘 인민들에게 흰쌀밥에 고기국을 먹이는것이 소원이라고 하시면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포전길을 걸으며 온갖 로고를 다 바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언제나 멀고 험한 농촌길을 걷고 또 걸으시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농업부문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인민들을 하늘처럼 여기시였으며 논머리나 나무그늘밑에서 그들과 허물없이 무릎을 마주하시고 나라일도 의논하시고 걸린 문제들도 풀어주시였다.

그 나날들에는 미림벌농민들과 함께 모를 내시던 잊을수 없는 그 봄날의 감격도 있었고 뙤약볕이 내려쪼이는 가물든 밭머리에 서시여 단비를 불러주시던 여름날의 사연도 깃들어있다. 풍년든 농장벌을 몸소 찾으시여 농민들의 수고를 헤아려주시던 가을날의 환희도 있었고 눈덮인 포전길을 걸으시며 농사차비를 두고 그리도 마음쓰시던 겨울날이 전하는 못잊을 이야기도 새겨져있다. 청산리에 가시였을 때 탈곡장에 펴놓은 멍석에 앉으시여 농민들과 담화를 하신 이야기도 있다.

농민들과 함께 모내기도 하시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47년 6월 7일 미림벌에 오시였다.

그날 모내기를 하시려는 위대한 수령님께 일군들이 장화를 드리

자 수령님께서는 모내기를 하는데는 맨발이 좋다고 하시며 성큼성큼 차거운 논판에 들어서시였다.

제땅에 그해의 첫모를 내는 기쁨에 모내기가 명절처럼 즐겁기만 하던 농민들, 자기들과 다름없는 수수한 차림새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허리를 굽히신채 모춤을 손에 들고 모를 내시니 그들은 그 사실이 꿈만 같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토장빛이 도는 논판에 발을 잠그시고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한포기한포기 정성들여 모를 꽂아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민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속속들이 헤아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는 항일무장투쟁을 할 때 조국을 해방하고 농민들이 제땅에서 농사를 마음껏 짓게 하려고 늘 생각하였는데 오늘 이렇게 해방된 조국에서 땅의 주인이 된 농민들과 함께 모내기를 하게 되니 참으로 감회가 깊어진다고 하시였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내기를 잘하는 방법도 가르쳐주시며 농사를 잘 지어 먹을것이 풍족해야 생활이 펴일수 있고 건국사업도 잘해나갈수 있다고 간곡히 이르시였다.

원화리가 전하는 감동깊은 이야기

1952년 5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동군 원화리를 찾으시였다.

원화리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풀밭에 스스럼없이 앉으시여 리의 농민들에게 발갈이형편은 어떠하며 씨뿌리기는 얼마나 하였

는가, 씨앗은 어떤것을 준비했는가, 부족한 로력과 축력은 어떻게 해결하고있는가에 대하여 일일이 물으시며 농사일을 의논해주시였다.

농사형편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후방에서 농사를 잘 짓는것이 전쟁승리에서 얼마나 큰 의의를 가지고있는가를 강조해주시고 전쟁의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있는 농민들과 씨뿌리는 일을 같이하시였다.

하늘에서는 가증스러운 적기들이 돌아치고있었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에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씨앗, 행복의 씨앗을 뿌리고 묻으시며 일손을 다그치시였다.

이 감격적인 소식을 전해들은 마을의 늙은이들도 농쟁기를 찾아들고 모두 떨쳐나와 두엄을 나르고 종자를 묻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에게 농사를 잘 지어야 전쟁에서 이길수 있다고 하시면서 오늘 식량을 더 많이 생산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라고, 식량이 많아야 전쟁에서 승리할수 있으며 령락된 인민생활을 안정시킬수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계속하시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녀성들이 보잡이를 하는것은 아주 훌륭한 일이라고, 지금 농촌에는 청장년들이 거의다 전선에 나가고 녀성들과 로인들밖에 없다고 하시며 오늘 농촌의 주인은 녀성들이며 녀성들이 일을 더 잘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이날 녀성보잡이들도 만나보시고 농민들과 함께 농사일도 의논해주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녀맹일군에게 품앗이반을 무었는가고 물으시였다.

이에 대한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원화리에서 소겨

리반과 품앗이반을 뭇고 서로 도우면서 농사를 짓고있는것은 좋은 일이라고 치하해주시며 품앗이반과 소겨리반을 무어 여러 집이 서로 힘을 합치면 일하기도 헐하고 소와 농기구도 합리적으로 리용할수 있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서로 힘을 합쳐 꼭 농사를 잘 짓겠다는 농민들의 결심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연한 벌을 둘러보시면서 장차 원화리일대를 인민의 락원으로 꾸리실 휘황한 전망도 펼쳐주시였다.

소삼정리가 전하는 못잊을 이야기

1954년 4월 15일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온 나라 인민의 축원의 인사를 받으셔야 할 생신날에 력포구역 소삼정리(당시 중화군 삼정리)를 찾으시였다.

3년간의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시고 전후복구건설의 모든 중하를 떠메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신날 하루만이라도 편히 쉬셨으면 하는것은 인민들의 간절한 념원이였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쟁으로 혹심하게 파괴된 농촌경리를 추켜세우고 령락된 농민들의 생활을 하루빨리 안정시키시려고 농업협동화의 첫걸음을 뗀 농촌을 찾아 현지지도의 길을 쉬임없이 이어가시였던것이다.

그때 소삼정리에는 세창, 가작 두 농업협동조합(당시)이 갓 조직되여있었는데 협동조합을 어떻게 운영해나가야 할지 조합일군들도 조

합원들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있었다. 그날 조합의 농호수와 조합원수, 경지면적과 농민들의 생활형편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점심식사도 뒤로 미루시며 농업협동조합원들의 협의회를 여시고 조합이 나아갈 길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벽길을 걷는 사람이 찬이슬을 먼저 맞듯이 무슨 일이나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애로와 난관을 많이 겪기마련이라고 하시면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농업협동조합을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열정에 넘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안는 일군들과 조합원들의 가슴속에는 크나큰 신심과 용기가 솟구치였다.

전후에 맞으시는 첫 생신날에도 농민들을 더 잘살게 하시려고 점심식사까지 미루시며 새로 무은 농업협동조합이 나아갈 길을 밝혀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는 일군들과 조합원들의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격정이 끓어올랐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백미밥을 먹고싶어하는 이곳 농민들의 소망을 깊이 헤아리시여 대동강물을 끌어올리도록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고서야 자리를 뜨시였다. 그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업협동조합들에 뜨락또르와 영농기자재들, 여러가지 과일나무모도 보내주도록 하시여 협동조합의 우월성과 생활력이 높이 발양되도록 크나큰 은정을 돌려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폭탄구뎅이를 메우고 뿌린 씨앗들이 싹터 우줄우줄 자라나는 여름에도 오시였고 낟알이 알차게 영그는 가을에도 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다녀가신 해에 이곳 협동조합들에는 대풍이 들었다.

풍년낟가리를 높이높이 쌓아올리며 마을사람들은 한 마을에서 거두어들인 낟알에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의 헤아릴수 없이 크나큰 로고가 깃들어있으니 온 나라가 거두어들인 수확고에는 수령님께서 기울이신 로고가 과연 그 얼마나 깃들어있을가 하고 생각하였다.

그럴수록 뜻깊은 생신날에 찾아오신 위대한 수령님께 쌀밥 한그릇 지어올리지 못한 죄책감이 가슴에 응어리로 맺혀 밤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1954년 11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금년에 우리는 중화의 농업협동조합에 세번 나가보았다, 봄에 나갔을 때에는 어떤 농민들은 고개를 숙이고 우리를 바라보더니 여름에 농사가 잘될 때에 나갔을 때에는 희색이 만면하였고 가을에 나가보니 농민들은 너무 기뻐서 입이 귀밑까지 이를 지경이였다고 감회깊이 교시하시였다.

그해 11월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다시 이곳을 찾으시였다.

콩마당질하는 곳에 이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합원들에게 추운데 수고한다고 하시고나서 콩마당질을 한번 같이 해보자고 하시며 친히 도리깨를 잡아드시였다.

추운 날씨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조합원들과 함께 콩마당질까지 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며 모두들 감격의 눈물을 머금었다.

평남관개공사를 완공하도록

언제인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평안남도일대를 돌아보시였다.

차창밖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느한 곳에서 급히 차를 세우게 하시였다. 물동이를 이고 오가는 농촌녀인들과 함께 논판에 웅크리고 앉아서 꼬챙이로 구멍을 뚫고 물을 부어가며 모를 내는 농민들, 아직도 모를 내지 못한 메마른 논벌들이 시야에 안겨들었기때문이였다.

꼬창모를 내고있는 한 로인곁으로 다가가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힘들게 농사를 지어서야 되겠는가고 하시였다.

뒤미처 위대한 수령님을 알아뵙고 당황해하는 로인의 거친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며 수령님께서는 물동이를 이고 물을 나르는 녀인들도 가까이로 부르시였다.

물있는데는 얼마나 먼가, 하루에 몇동이씩이나 길어오며 점심식사는 제때에 하는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문득 사람들뒤에 앉아있는 한 녀인의 정수리가 헐어있는것을 띄여보시였다. 물긷기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머리가 다 헐겠는가고 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음성에는 형언할수 없는 심려가 어려있었다.

녀인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처럼 심려하시는것을 보고 저으기 죄송스러워 일없다고, 모내기만 끝나면 곧 낫는다고, 전에도 늘 그랬다고 말씀올리였다.

그럴수록 위대한 수령님의 안색은 더욱 어두워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곧 일군들을 부르시였다. 그간 가물과의 투쟁정형을 료해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물이 바른 지대의 농민들은 말라터진 논바닥에 동이로 물을 길어다 한포기, 한포기 꼬창모를 내고 있는데 대하여 교시하시면서 가져오신 노랗게 병든 모를 탁상우에 내놓으시였다.

일군들은 인민의 충복이 되여야 한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머리를 들지 못하였다.

그후 관개공사는 빠른 속도로 진척되였으며 은혜로운 사랑이 그대로 생명수가 되여 대지를 적시였던것이다.

어느해 가을 열두삼천리벌을 찾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밤을 지새우시면서 평남관개의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체취가 어려있는 초가집을 돌아보시면서 추억깊은 교시를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때 한 일군이 위대한 수령님께 새날이 밝는데 좀 쉬셔야 하지 않겠는가고 여러번 말씀드리였지만 수령님께서는 물이 없어 손끝이 닳도록 꼬창모를 내면서 농사를 지어온 이 고장 농민들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물에 대한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을 풀어준 다음에 푹 쉬겠다고 하시며 등잔불밑에서 5 000여리 물길 건설을 구상하시였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민들과 약속한 물문제를 풀어주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농민들을 만나보겠는가고 하시면서 푼전을 쪼개써야 하였던 전후의 그 어려운 시기에 막대한 자금을 들

여 평남관개공사를 완공하도록 해주시였다고 하시였다.

농민들을 모내기의 힘든 일에서 해방하게 되였다고

농사를 기계로 지으려는것은 농민들의 세기적인 념원이였다.

모내는기계와 더불어 전해지는 사랑과 헌신의 이야기가 오늘도 만사람의 가슴을 뜨겁게 적셔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어떻게 하면 농민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해방시켜줄것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 늘 심려해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처음에 제초기처럼 사람이 손으로 밀게 된 간단한 모내는기계를, 그 다음에는 소로 끄는 모내는기계를 만들도록 하시여 농민들에게 보내주시였다.

그후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내는기계의 완성을 위하여 늘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한때 일부 과학자들은 다른 나라의 밀파종기를 개량하여 모내는 작업을 기계화하려고 시도한적이 있었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 실정에 그런 큰 기계는 맞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소형원동기를 리용하여 간단하면서도 능률적인 모내는기계를 만들도록 과학자들의 눈을 틔워주시였다.

깊은 밤, 이른새벽에 전화를 거시여 모내는기계연구정형을 료해하시고 때로는 설계가들을 저택에 부르시여 의논도 해주시였으며 어느 날엔가는 질벅한 논두렁길을 걸으시며 기계에 칠할 색갈도 선정해주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모내는기계 첫 시제품이 나왔을 때였다. 보슬비내리는 궂은 날씨였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몸소 포전에 나오시여 아직은 부족점이 많지만 모내는 작업을 기계화할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기뻐하시면서 그 시정방도를 하나하나 일깨워주시였다. 이렇게 되여 완성된 모내는기계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또다시 포전에 나오시였다. 일시에 발동을 건 모내는기계들이 청산벌에 푸른 주단을 펼쳐나갔다. 미풍에 옷자락을 날리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제는 우리 농민들의 굽은 허리를 펴주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시종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였다.

어느새 하늘에는 뭇별들이 반짝이였고 날씨는 차졌다. 일군들은 그만 돌아가시자고 몇번이고 아뢰였다. 하건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민들을 힘든 일에서 해방하는 일이 그리 쉬운가고 하시면서 좀더 보겠으니 자동차전조등으로 논판을 비쳐주자고 하시는것이였다.

한지에 오래도록 서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를수록 운전공들은 흐르는 눈물을 금치 못하였으며 끝내는 기계를 멈추고야말았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의 걱정은 말고 좀더 해보라고 이르시였다.

하지만 끓어오르는 격정으로 운전공들은 입술만 깨물뿐 기계를 움직일념을 못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번에는 마지막이라고, 저기까지 한번 더 갔다와보라고 다정한 어조로 재촉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또다시 움직이는 기계들을 바라보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저렇게 기계로 모를 내는것을 보니 피곤이 일시에 다 풀리는것같다고, 이제는 우리 농민들을 모내기의 힘든 일에서 해방하

게 되였다고 더없이 만족해하시였다.

진펄길을 헤치신 사연

언제인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중화군의 어느한 리를 찾으시였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직 이슬이 맺혀있는 보리밭머리에 허물없이 앉으시여 리안의 농사일을 료해하시였다.

다른 마을에서 기계로 밀을 파종한다는 말을 들으시고 험한 길을 걸으시여 그곳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좋은 샘터가 있다는것을 아시고서는 샘터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일군들은 당황하여 위대한 수령님께 거기는 못가는 곳이라고, 이만저만한 진펄이 아니라고 아뢰였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전에 일제와 싸울 때에는 그보다 더 험한 길도 다녔다고 하시며 진펄길에 들어서시였다.

그러시고는 몸소 양어장자리도 잡아주시였다.

이 물을 리용하여 물고기를 길러 인민들에게 공급하라고 하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금시 펄펄 뛰는 물고기들을 보시는듯 시종 환한 미소를 지으시였다.

그날 저녁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늘 농민들과 마주앉아 농사일도 의논하고 인민들의 생활을 높일 방도도 토론했다고, 농업협동화도 잘되여가고 나라일이 잘되여가니 마음이 기쁘다고 하시며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모내는기계운전공들의 수고도 헤아려주시며

1974년 5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봉산군 청계협동농장(당시)을 찾으시였다.

여러대의 모내는기계가 고르로운 발동소리를 울리며 나아가는데 따라 잎새를 펼친 벼모들이 꽂혀지면서 논벌을 푸른빛으로 단장하고 있었다.

농장벌의 전경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일군들에게 이제는 모내는기계가 완성된것같다고, 농촌경리의 기계화를 실현하는 문제도 계속 투쟁하니 되지 않는가고 하시며 못내 기뻐하시였다. 농민들을 힘든 농사일에서 해방시켜주시려고 깊이 마음쓰시며 정력적으로 이끄시여 마침내 모내는기계를 완성시켜주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미소를 담으시고 농장벌을 이윽히 바라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가까이에서 일하는 모내는기계운전공들쪽으로 눈길을 돌리시며 그들을 부르시였다.

기쁨에 넘쳐 한달음에 달려온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리가 아프지 않은가, 몇시간이나 쉬지 않고 일하는가, 하루에 몇정보나 모를 꽂을수 있는가 등을 물으시였다. 그러시다가 눈이 아프지 않은가고 물으시였다.

운전공들은 아프지 않다고 말씀올리였다.

눈부신 해빛이 얼른거리는 논판의 물면을 보시며 한동안 생각에 잠겨계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내는기계운전공들과 모공급수들이 색안경

을 끼고 일하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다심히 이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색안경을 끼지 않고 일하면 눈이 나빠질수 있다고, 해를 등지고 나갈 때는 일없지만 해를 맞받아나갈 때에는 눈이 나빠진다고 하시며 깊이 마음쓰시였다. 그러시고는 로동보호물자로 색안경을 보장해주도록 친히 대책까지 세워주시였다.

온종일 허리가 굽도록 모를 내며 고된 농사일에 시달려온 사람들이 어제날의 이 나라 농민들이였다. 그들에게 기계로 모를 내는 로동의 희열을 안겨주신 은덕만도 고맙기 그지없는데 오늘은 눈이 나빠질세라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토록 마음쓰시니 일군들도 농장원들도 격정에 눈시울 적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에게 며칠째 모내기를 하는가, 무릎이 아프지 않은가고 다시금 물으시였다.

아프지 않다는 그들의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내는기계를 타고다니면 무릎이 아플것이라고 하시면서 지난날 항일무장투쟁을 할 때에 말을 5시간쯤 타면 무릎이 몹시 아팠다고 회억의 교시를 하시였다. 당시의 사동구역 송신협동농장에 나가시여 각이한 형태의 모내는기계들의 작업정형을 보아주시던 때에도 운전공들이 말타는 자세와 같다고 하시며 말을 두시간이상 타기 힘들다고 다심히 마음쓰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자신께서 그전에 산에서 말을 타고다닐 때에는 발이 아프면 드리우고 다녔는데 저것은 그렇게도 못하게 되였다고 하시며 오래 타면 힘들겠다고, 몇시간 타면 좋겠는지 따져보라고 각근히 이르시였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장원들이 모내는기계를 다 운전하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그래야 모내는기계운전공들이 힘들면 교대할수 있다고 하시며 운전공들의 하루작업교대시간까지 일일이 밝혀주시였다.

사랑의 불빛

1974년 5월 어느날 저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어느한 농장을 지나실 때였다.

승용차의 불빛에 비쳐지는 논벌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저녁늦게까지 모내는기계를 몰아가며 일하는 농장원들의 모습을 띄여보시였다.

이 땅에 성실한 애국의 땀을 묻어가는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운전사에게 차를 돌려세우고 불빛을 비쳐주자고 하시였다.

승용차에서 비쳐지는 전조등불빛이 주위를 밝히자 농장원들은 성수가 나서 일손을 다그쳤다.

아직은 그 불빛에 어떤 뜨거운 사랑이 비껴있는지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

불빛을 비치도록 해주신분이 위대한 수령님이심을 얼마후에 알게 된 그들은 북받쳐오르는 격정을 금치 못해하며 모내는기계를 세우려고 하였다.

그러는 그들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번만 더 갔다오라고 다정히 이르시며 점도록 작업모습을 바라보시였다.

탄생일 아침에 맞으신 비

1977년 전반적지역에서는 4월초까지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농작물들이 가물을 타고있었다.

바로 그러한 시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개천시와 녕변군의 농장들을 현지에서 지도하고계시였다.

13일과 14일에도 여러 농장을 찾으시여 가물에 타는 발곡식들을 바라보시며 관수대책을 철저히 세우도록 세심히 가르쳐주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14일 밤이 깊어서야 숙소에 돌아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때없이 창문을 열고 검은구름이 떠도는 밤하늘을 바라보시였다.

이렇게 밝아온 4월 15일 아침, 드디여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비내리는 창밖을 내다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덧옷도 입지 않으시고 뜨락으로 나서시였다.

손을 펴드시고 비량을 가늠해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였다.

이때 한 일군이 위대한 수령님의 건강이 념려되여 덧옷을 들고 달려왔다. 그가 온줄도 모르시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펼쳐드신 손을 여전히 내리우지 않고계시였다.

일군은 안타까워하였다.

그의 마음을 읽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무들이 생일, 생일 하는데 비가 오니 생일보다 더 기쁘다고 하시면서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렇듯 탄생일에도 나라의 농업발전을 위해

그토록 마음쓰시였던것이다.

농민들과 함께 있을 때가 제일 기쁘다시며

언제인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례년에 없이 흐뭇한 작황이 마련된 어느한 군의 농촌을 찾아주시였다.

풍년든 벌을 이윽토록 바라보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이런데를 나와보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시종 환하게 웃으시였다.

그러시고는 한 일군에게 어느 농장 탈곡장을 하나 보자고 하시였다.

일군은 위대한 수령님을 한 작업반의 탈곡장으로 안내하여드리였다.

차에서 내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벼종합수확기의 능률에 대하여 료해하시였다.

시간이 흘러 위대한 수령님께 수행한 일군이 점심시간이 지났다는것을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들에 나오니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다고 하시면서 이왕 말이 나온김에 벼종합수확기에 대한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가자고 하시였다.

그런데 점심시간이여서 포전에는 농민들이 없었다.

일군은 위대한 수령님께 먼길에 피로하시겠는데 농민들은 다음기회에 만나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저으기 서운해하시면서 포전을 둘러보시다가 마침 닭우리에서 모이를 주고있는 한 녀성이 보이자 그를 데려오게 하

시였다.

이리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논머리에서 한 녀성농장원과 허물없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낟알을 걷어들여 탈곡하는 일을 기계로 하고있기는 하지만 지금처럼 해서는 힘이 많이 든다고, 앞으로 현대화된 농기계를 받아들이면 농민들의 힘든 일을 대신하게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벼종합수확기에 대한 녀성농장원의 의견을 기탄없이 들어주시였다.

시간은 또 퍼그나 흘렀다.

위대한 수령님의 건강이 념려되여 안타까운 표정을 짓고있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는 농민들과 함께 있을 때가 제일 기쁘다고, 자신께서는 여기에 나올 때마다 농민들과 자리를 같이하고 이야기를 나누고싶은 충동을 금치 못한다고 하시였다.

농사는 하늘이 짓는것이 아니라 사람이 짓는다

언제인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안악군 대추농업협동조합(당시)을 찾으시였다.

마중나온 일군들과 다정히 인사를 나누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날씨가 찬데 어서 방으로 들어가자고 하시였다.

일군들은 송구스러운 마음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을 수수한 리합숙방으로 모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이곳 조합이 다른데보다 잘살지 못한다고 하기에 찾아왔다고, 어떻게 하면 대추농업협동조합도 남들처럼 잘살수 있겠는가를 한번 의논해보자고 하시였다.

이날 조합의 로력구성과 알곡 정당수확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력점수에 비해 차례지는 몫이 매우 적은것이 마음에 걸리시여 분배량이 적은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고 물으시였다.

한 조합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농사가 잘되지 않은데 있다고 말씀올리였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땅이 척박하지 않은데 농사가 왜 잘되지 않는가고 다시금 물으시였다.

물때문이라는 한 일군의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말을 긍정해주시였다.

사실 이곳 조합원들은 가물때는 말라죽는 곡식들을 살리려고 모두가 떨쳐나서 낮에 밤을 이어 물지게를 져야 했으며 장마철에는 물에 잠기는 밭들을 바라보며 한숨만 지어야 했다.

이윽고 조합원수와 알곡생산량을 대비적으로 분석해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아무래도 결정적인 대책이 있어야지 농사를 계속 지금처럼 지을수는 없다고, 농사를 잘 짓기 위한 방도를 말해보라고 이르시였다.

누구도 선뜻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가물과 장마피해에 너무 시달려왔기때문에 비가 제때에 적당히 와주고 큰 장마나 지지 않으면 그이상 바랄것이 없

다고만 생각해왔던 그들이였다.

일군들의 잘못된 생각을 헤아려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사는 하늘이 짓는것이 아니라 사람이 짓는다는 참으로 뜻깊은 교시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에는 농사를 하늘에 의탁해서 지을것이 아니라 횡포한 자연을 사람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정복해야 한다는 깊은 뜻이 담겨져있었다.

순간 일군들은 자책감으로 하여 머리를 들수 없었다.

그들의 농사일을 두고 깊이 마음쓰시며 대추농업협동조합을 어떻게 하면 부유한 조합으로 만들것인가에 대하여 여러모로 생각해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땅이 비교적 좋은 조건에서 가물과 장마피해만 극복하면 될것같다고 하시면서 대추리에서는 우리 나라의 기후특성을 잘 알고 가물과 장마로부터 오는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 좀전에도 오면서 보았는데 도령천의 물을 퍼쓰면 가물피해를 얼마든지 극복할수 있을것같다고 하시면서 해마다 풍작을 거둘수 있는 방도를 대번에 찾아주시였다.

그 순간 일군들과 조합원들은 눈앞이 확 트이였다.

이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장마피해를 받지 않게 뚝도 쌓고 도랑도 깊숙이 파며 고인물을 제때에 뽑기 위한 양수장도 건설해주어야 하겠다고 이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며 조합의 일군들과 조합원들은 분발하여 농사를 잘 지어 자기 고장을 제일 잘 사는 농촌으로 변모시

켜갈 맹세를 굳게 다지였다.

하루동안에만도 련이어 찾으신 5개 농장

1993년 8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황해남도의 여러 군의 5개 농장을 련이어 찾으시였다.

인민의 간절한 념원을 담아 한 관리위원장(당시)은 위대한 수령님께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지도밑에 농사를 잘 짓겠으니 더는 포전길을 걷지 말아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말씀드리였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고 하시면서 협동농장(당시)들에서 농사를 잘 지어야 자신께서 농장들에 나가다니지 않지 농사를 잘 짓지 못하면 80이 넘었지만 나와 다니지 않을수 없다고 하시였다.

그날 황해남도의 책임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농사를 잘 지어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풀데 대하여 가르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는 황해남도의 농사가 중요하기때문에 어떤 때에는 국가주석을 그만두고 황해남도에 내려와서 농사를 지도하는 고문노릇을 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군 한다고 하시였다.

인민들이 잘살게 되면
그 어떤 험한 길도 얼마든지 걸을수 있다

조선인민은 오늘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80고령의 불편하신 몸으로 온천군 금당협동농장(당시)을 찾으신 그날을 잊지 못하고있다.

서해의 세찬 바람이 포전길의 먼지를 휘몰아올리며 기승을 부리던 험한 날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바람세찬 날씨에 험한 길을 걸으시면 어떻게 하는가고 말씀올리는 일군에게 일없다고, 인민들이 잘살게 되면 그 어떤 험한 길도 얼마든지 걸을수 있다고 하시면서 환히 웃으시였다.

인민을 위해서라면 온갖 고생도 달게 여기시며 바람세찬 포전길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는 일군들의 가슴은 뜨거워졌다.

잠시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디 강냉이밭을 좀 보자고 하시면서 천천히 포전쪽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강냉이 정보당 예상수확고에 대하여 알아보시고나서 농사를 아주 잘했다고 만족을 금치 못해하시며 다른데서도 다 여기처럼 농사를 해야 한다고, 분토를 많이 생산하여 올해농사를 잘 지어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시간은 사정없이 흐르고 바람은 여전히 세차게 불었지만 이런 바람을 많이 맞아야 풍년가을을 본다고 하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포전길을 계속 걸으시였다.

농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인민들을 하늘처럼 여기시였으며 논머리나 나무그늘밑에서 그들과 허물없이 무릎을 마주하시고 나라일도 의논하시고 걸린 문제들도 풀어주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 청산리에 가시였을 때에는 탈곡장에 펴놓은 멍석에 앉으시여 농민들과 담화를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한평생 농민들속에 계시며 그들에게 끝없는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농민들을 찾아 한평생 걷고걸으신 현지지도의 길은 위대한 사랑과 무한한 헌신으로 이어진 이민위천의 길이였다.

돌이켜보면 볼수록 위대한 수령님처럼 사시장철 언제나 농민들과 함께 계시면서 농사일도 의논해주시고 그들의 살림살이형편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며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신 그런분은 일찌기 없었다.

여섯마리의 메새에 깃든 사연

새 조국건설이 한창이던 어느날 시중군에 대한 현지지도를 하시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안찬리를 찾으시여 한 농민의 집에도 들리시였다.

산골농민들의 생활형편을 알아보시기 위해서였다.

방문을 여시고 집안을 둘러보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마음은 무거

우시였다.

서발막대를 휘둘러도 거칠것이 있을것같지 않은 가난한 살림이였던것이다.

집안팎을 돌아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인내외에게 해방전에 비하여 생활이 어떤가고 물으시였다. 그때까지도 위대한 수령님이시라는것을 알아뵙지 못한 집주인은 흥에 겨워 해방전에 비하면 정말 좋은 세상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심중을 그대로 터놓았다.

농민의 말을 들으시며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소리가 유정하게 들려오는 방구석을 유심히 살펴보시였다.

큰 새장안에서 여러마리의 메새들이 푸드덕거리고있었다.

집주인은 어줍게 웃으며 애녀석들이 재미로 산판에서 잡아온것들이라고 말씀드리였다.

한동안 새장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문득 저 새를 몇마리 줄수 없겠는가고 물으시였다.

농민은 산골에 흔한 메새야 왜 못드리겠는가고 하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그러는 그를 만류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래마을에 내려갔다가 다시 들리겠다고 하시며 자리를 뜨시였다.

그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약속대로 그 집에 다시 들리시였다.

집주인은 새장에 여섯마리의 메새를 넣고 기다리고있었다.

새장을 받아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메새값으로 많은 돈을 남겨놓으시였다.

주인내외는 너무도 황송하여 어쩔바를 몰라하였다.

사실 위대한 수령님께 그 새가 꼭 필요한것은 아니였다. 넉넉치 못한 이 집의 살림을 보태주시기 위해 일부러 새를 가져가겠다고 하신것이였다.

뒤늦게야 그분이 바로 만백성이 우러르는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이시라는것을 알게 된 농민부부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한밤중에 다시 찾으신 집

1949년 1월 5일 평안남도의 여러 단위들에 대한 현지지도를 마치고 평양으로 돌아오시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문득 운전사에게 차를 멈추라고 이르시였다.

일군들은 영문을 알수 없어 서로의 얼굴만 마주 보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의아해하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오늘 우리가 집밖에서 잠간 만나보았던 순천군 사인면 삼화리(당시)의 농민에 대한 생각으로 잠을 이룰수 없을것같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뜻밖의 교시에 일군들은 어떻게 대답을 올려야 할지 미처 갈피를 잡지 못했다. 일군들은 그 농민에 대해 해방전 몹시 가난하게 살았다는 정도로 느끼고있을뿐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에게 그 집주인을 밖에서 잠간 만나고 돌아섰으니 그가 섭섭해했을것이라고, 나라의 수상도 자기 집이 보잘것없으니 살림방에는 들어오지 않았다고 생각했을것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농민의 집을 다시 찾아가 그와 함께 하루밤 자고나야

자신의 마음이 가벼워질것같다고 하시였다.

뜨거운 생각에 젖어있는 일군들은 저마다 위대한 수령님께 이제는 평양도 가까이 하고 밤도 깊었는데 농민의 집을 다시 찾는 일만은 뒤로 미루실것을 간절히 말씀드리였다.

일군들의 심정을 헤아려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을 찾아가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은 없다고 하시며 기어이 차를 돌리게 하시였다.

그리하여 승용차는 다시 농민의 집으로 향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농민의 집에 도착하신것은 자정이 다되여서였다.

그날 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민의 두손을 꼭 잡으시고 쉬는데 깨워서 정말 안됐다고, 낮에 밖에서 잠간 만나고 돌아선 일을 두고 서운해할것같아 다시 왔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허물없이 집안으로 들어서시여서는 온밤 그의 가정생활을 의논해주시면서 육친의 정을 다 베풀어주시였다.

3만추가 아니라 6만추로 하자고

새 조국건설시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의 경제의 식민지적편파성을 없애기 위한 투쟁을 밀고나가시면서 경공업건설에 특별히 큰 힘을 넣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천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기 위하여 대규모의 현대적인 방직공장을 건설할것을 계획하시고 잡초우거진 대동강변을 밟으시며 그 터전까지 잡아주시였다.

그리하여 1949년초부터 동평양에서는 3만개의 방추와 1천대의

직기를 설치하게 될 방직공장건설이 시작되였다.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있던 그해 여름 어느날이였다.

강원도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느한 리의 농민들과 자리를 같이하게 되시였다.

한없이 소탈하신 미소를 지으시고 농사형편과 살림살이에 대하여 알아보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농민들은 어느덧 어려움도 다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속에 품고있던 생각까지도 터놓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라에서 풀어주어야 할것이 있으면 서슴지 말고 이야기해보라고 하시였을 때였다.

한 로인이 위대한 수령님께 장군님, 사람의 욕심이란 한정이 없는가봅니다. 그전 세월에는 헐벗어도 배나 곯지 않고 자식들을 공부나 시켰으면 하는것이 소원이였습니다. 그런데 장군님은덕으로 제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 쌀독을 가득 채우게 되고 이 심심산골에도 학교가 생겨 전날의 그 소원이 다 풀리고보니 이제는 나들이옷과 이부자리도 여벌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말씀올리였다.

로인의 말을 마지막까지 다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응당 그래야 한다고 그의 말을 긍정해주시고 수첩을 꺼내시여 마을의 인구수와 요구되는 천의 량을 계산해 써놓으시였다.

돌아오시는 길에 차안에서도 위대한 수령님의 심중은 무거우시였으며 사색은 더욱 깊어만지시였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벌 토스레옷을 엇바꾸어 입어야 했던 사람들, 한겨울에도 홑적삼에 몽당치마로 지내야 했고 반가운 손님이 찾아와도 몸에 걸친것이 험하여 선뜻 나설수 없었던 이 나라 녀인들의 눈물

겨운 모습을 그려보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천문제를 꼭 풀어야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평양에 돌아오시자 곧 일군들을 부르시여 우리가 나라를 찾고 어려웠던 식량문제를 풀어 인민들을 배고픈 설음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고 하여 조금도 마음을 놓을수 없다고 하시면서 현지지도의 길에서 만나시였던 그 로인이 하던 말을 전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막대한 추가투자를 하여 방직공장의 방추수를 3만추가 아니라 6만추로 하자고 교시하시였다.

돌이켜보면 그 시기 나라의 경제사정은 매우 어려웠다. 더우기 미제의 전쟁도발책동이 더욱 로골화되고있는 현실은 중공업건설에 선차적인 힘을 집중할것을 절실히 요구하였다.

그러한 형편에서 인민들의 옷감문제를 풀기 위하여 방직공장의 생산능력을 배로 늘인다는것은 누구나 쉽게 내릴수 있는 용단이 아니였다.

농민들이 바라는것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어려운것이라도 기어이 해내고야마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이 옷감생산문제를 미룰수 없는 중대사로 보시였던것이다.

온 나라 농민들에게
소금을 비롯한 생활필수품을 보장하도록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가렬한 전쟁의 포화속에서 농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있을세라 온갖 심혈과 로고를 바치시며 그들에게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1951년 3월 어느날 평안남도를 현지지도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강서군의 한 마을사람들로부터 적들이 도망치면서 장독까지 깨뜨려버렸기때문에 장이 없으며 장을 담그자고 해도 소금이 없어 애를 먹는다는 이야기를 들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민들이 장이나 소금근심을 해서야 되겠는가고 하시면서 곧 주변에 주둔한 인민군부대의 한 지휘관을 부르시여 마을사람들에게 소금을 실어다줄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때로부터 며칠후 소금을 가득 실은 여러대의 자동차들이 마을에 들어섰다.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이 너무도 고마와 농민들은 흐르는 눈물을 걷잡지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이후 온 나라 농민들에게 소금을 비롯한 생활필수품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적대책을 세워주시였다.

《홰불저수지》

1957년 1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삼석마을을 찾으시였다.

당시 가렬한 전쟁의 후과로 나라의 살림형편이 어려운것처럼 이 마을의 실태도 마찬가지였다.

이날 허물없이 농민들과 함께 무릎을 마주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민들의 생활형편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나서 앞으로 논을 풀 계획은 없는가고 물으시였다.

사실 논을 풀고 백미밥을 먹었으면 하는것이 이곳 농민들이 하나

같이 품고있는 소원이였다.

하지만 물이 없는 고장이였던지라 벼농사에 대해서는 아예 단념하고있는 실태에 대하여 알게 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마을사람들을 둘러보시며 논을 풀자고, 저수지를 만들고 논을 풀어보자고 하시였다.

그로부터 사흘후 위대한 수령님께서 또다시 마을을 찾아주시였다.

그날은 진눈까비가 내리는 매우 음산한 날이여서 마을사람들은 송구스러움을 금치 못해하였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도리여 좀더 일찌기 오려던것이 일이 바빠서 지금에야 왔다고 하시며 그새 논 풀 생각을 해봤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한 일군이 그동안 생각한것에 대하여 말씀드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겨계시다가 이런 내용으로 교시하시였다.

집에서 콩나물을 길러내던 때를 한번 생각해보자. 아마 콩나물 한 시루를 길러내는데 밀창에다가 버치를 받쳐놓지 않고 기른다면 물이 수십동이가 훨씬 넘을것이다. 그러나 콩나물시루밑에다 버치를 받쳐놓고 콩나물시루에서 흘러내린 물을 다시 시루에다 퍼주군 하면 물을 얼마 안가지고도 콩나물 한시루를 다 길러내지 않는가. 논을 푸는데도 물을 이렇게 순환식으로 아껴쓴다면 능히 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통속적인 가르치심에 마을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무릎을 탁하고 쳤다.

(콩나물을 길러먹듯이 저수지를 만들고 거기에 물을 잡아놓고 리용하면 우리 고장에서도 벼농사를 얼마든지 할수 있지 않는가!)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에 모두가 흥분을 금치 못하고있는데

한 로인이 자작골에 샘이 좀 나온다고 말씀드리였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반색하시며 자리에서 일어서시였다. 샘이 나오는 그곳에 가보시려는것이였다.

그동안 퍼그나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밤이 좀 깊었지만 그리로 가보자고 하시며 방문을 여시였다. 밖에서는 진눈까비가 더 기승을 부리며 세차게 쏟아져내리고있었다.

농민들의 심정은 참으로 안타까왔다.

마을사람들의 이러한 마음을 헤아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무들이 내가 눈을 맞을가봐 그러는 모양인데 자신께서는 산에서 싸울때 이보다 더한 눈길을 헤치며 몇날씩 대원들과 함께 쓰러지면서 행군해간적이 한두번만이 아니였다고, 자신께서는 동무들이 백미밥만 먹을수 있다면 이런 눈비를 얼마든지 맞겠다고 하시며 몸소 홰불을 높이 추켜드시고 앞장에서 걸으시였다.

그렇게 오랜 시간 진눈덮인 험한 비탈길을 앞장서 헤치시며 자작골에 이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인의 말대로 샘이 나타나자 못내 기뻐하시면서 홰불로 사위를 비쳐보시였다.

그러시고는 여기에 저수지를 만들자고 하시며 저수지언제를 쌓을 자리까지도 잡아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옷자락은 차디찬 진눈에 의하여 흠뻑 젖어들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추켜드신 홰불은 캄캄한 골짜기를 비치며 활활 타올랐다. 그 홰불이 타오른 곳에 얼마후에는 생명수 차넘치는 저수지가 생겨나게 되였고 그후 마을에서는 벼농사의 새 력사가 펼쳐지게 되였다.

하기에 이곳 사람들은 력사의 그밤을 영원토록 잊을수 없어 그 저수지를 《홰불저수지》라고 부르며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할 업적을 길이길이 전해가고있는것이다.

농촌건설의 대강을 마련하시던 나날에

1963년 11월 어느날 농업부문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평안남도의 어느한 농장을 찾으시였다.

그때로 말하면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힌 농촌테제의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던 시기였다.

농장에 도착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곳 일군들과 인사를 나누시고 농장관리운영사업을 비롯하여 농장원들의 현금수입정형에 이르기까지 농장의 실태를 하나하나 료해하시였다.

사실 이 농장은 벌방지대 농장들과 달리 산골에 위치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농민들의 생활수준이 다른 농장들에 비해볼 때 그리 높지 못하였다.

일군들과 오래동안 담화를 나누시며 농장실태를 료해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장원들의 현금분배가 적으니 입는 문제도 곤난하겠다고 하시며 멀리 마당가에서 뛰노는 어린이들이 입은 옷을 오래도록 살펴보시였다.

이윽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곳 일군들에게 농장살림살이에

대하여 한번 토의해보자고 하시며 자신께서 차를 보내겠으니 세포위원장(당시)들과 작업반장들을 데리고 평양에 올라오라고 하시였다.

일군들은 자기들이 일을 잘하지 못하였다는 생각에 죄스러움을 금할수 없었다.

그후 이곳 농장의 일군들과 작업반장, 세포위원장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차를 타고 평양에 올라왔다.

그들이 평양에 도착하여 안내된 곳은 당중앙위원회청사였다.

회의실에는 이미 당중앙위원회 일군들과 중앙기관 일군들이 모여있었다.

잠시후 회의장에 들어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장에서 올라온 일군들과 작업반장, 세포위원장들에게 오늘은 동무들의 사업을 토의하는데 어서 앞에 나와 앉으라고 다정히 이르시였다.

순간 그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자기들의 농장문제가 당중앙위원회 부장전원회의에서까지 토의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있던 그들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농장의 실태를 이야기하시면서 농장원들의 생활수준이 높지 못하다고, 유치원어린이들가운데 겨울옷을 입지 못한 아이들이 적지 않은데 추운 겨울에 아이들에게 겨울옷을 해입히지 못하는 부모들의 마음이 어떻겠는가고 심려어린 어조로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장의 알곡생산과 분배정형, 자금리용정형 등 농장경영활동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시며 농장의 살림살이를 개선해나가기 위한 방도적인 문제들을 가르쳐주시

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농민들의 생활을 추켜세우자면 우선 호당 알곡분배와 함께 현금수입을 높여야 한다고, 이제는 우리의 공업이 어느 정도 발전한 조건에서 공업이 농업을 적극 지원하고 도시가 농촌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앞으로 농촌에 대한 국가적지원을 결정적으로 강화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안으며 회의참가자들은 수령님께서 당중앙위원회 부장전원회의를 소집하신 깊은 뜻을 알게 되였다.

한 평범한 농장을 통하여서도 나라의 전반적인 농업부문 실태를 헤아리시며 사회주의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농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한 당적, 국가적조치를 취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며 농장의 일군들과 작업반장, 세포위원장들은 뜨거운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그로부터 얼마후 전국의 농촌어린이들은 국가로부터 겨울옷을 무상으로 받아안게 되였으며 전국적으로 농촌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적인 조치들이 련이어 취해졌다.

그리고 1964년 2월 농업부문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과 투자를 늘여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조선에서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길을 환히 밝힌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가 발표되였다.

몸소 계산해보신 현금수입

1968년 5월 어느날 평안남도의 한 농장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장일군들과 무릎을 마주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몸가까이 뵙게 된 농장일군들의 감격과 기쁨은 끝이 없었다.

그러는 일군들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사일을 의논해주시면서 현금수입을 높일 방도도 하나하나 찾아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손수 수첩을 꺼내드시고 농장일군들에게 과수원은 몇정보나 되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농장일군은 선뜻 말씀올리지 못하였다. 그것은 과수원이 수백정보나 되였지만 과일을 많이 생산하지 못하고있었기때문이였다.

이런 실정을 헤아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수첩에 과수원면적을 쓰신 다음 과일을 따는 면적과 정보당수확량을 알아보시였다. 그러시고는 현재 거기서 얻는 수입은 얼마나 되며 몇해후이면 전체 과수원에서 과일을 딸수 있겠는가, 그때에 가서 수입은 얼마로 늘이겠는가를 손수 계산해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동안 생각에 잠겨계시다가 이제는 기계화비중도 높아지고 그에 따라 로력문제도 어느정도 풀린것만큼 다각경리를 하여야 한다고, 그래야 현금수입을 높일수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을 바라보시며 닭을 기르고있는가, 1년에 농민들이 닭알을 얼마나 받아먹는가를 알아보시고 닭기르기를 잘하라고 일깨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실수 있는 사랑을 다 주시고도 모자라는것만

갈으시여 농장일군에게 농장원들의 현금수입을 더 높일 가능성이 없는가고 하시며 알곡생산을 높이고 남새생산도 더 높여야 하겠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또다시 남새생산을 통해서만 얻을수 있는 현금수입을 손수 계산해보시였다.

이윽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보당남새수확량을 지적해주시면서 그렇게만 생산하여도 농민들의 현금수입이 높아질것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남새농사를 잘하면 농장원들은 현금수입이 올라가니 좋고 로동자들에게는 언제나 남새를 풍족하게 공급할수 있으니 좋지 않은가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현금수입을 높이는데서 기본은 농사를 잘해서 알곡생산을 늘이는것이며 다음으로 다각경리를 잘하는것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집짐승도 많이 기르고 남새도 심고 과일도 따고 물고기도 잡고 누에도 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것으로 타산하면 현금수입을 얼마든지 높일수 있다고 기뻐하시였다.

농민영웅, 농촌혁명가들로 생을 빛내여주시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특히 농업근로자들속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높은 충성심을 안고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우리 당의 농업정책을 옹호관철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한 김제원, 림근상, 태성할머니를 비롯한 농촌혁명가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사업을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실속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농민들을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참된 혁명가들로 키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해방전 착취와 압박에 시달려온 농민들은 땅의 주인, 나라의 주인으로서 당과 수령에 대한 높은 충성심을 안고 당의 농업정책을 옹호관철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한 농민영웅, 농촌혁명가들로 생을 빛내일수 있었다.

나무리벌의 농민영웅에게 베풀어주신 은정

조선혁명박물관 《혁명전우관》에는 애국미헌납운동의 선구자, 농민영웅이며 최고인민회의 제1기 대의원이였던 김제원농민이 받아안은 대해같은 사랑과 은정에 대한 자료도 전시되여있다.

1947년 4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김제원농민의 집을 찾아주시였다.

노전우에 허물없이 앉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제원농민에게 자신께서는 오늘 재령나무리벌에 온 기회에 로인을 만나보려고 이렇게

찾아왔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에 김제원농민은 황송하여 어찌할바를 몰라했다.

밝은 미소를 지으시고 방안을 둘러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집안팎을 깨끗하게 잘 거두었다고, 살림형편이 괜찮은것같다고 하시며 로인이 해방전에는 소작살이를 하면서 구차하게 살아왔지만 해방후에는 농사를 잘 지어 소와 가구들도 장만하고 식량걱정이 없이 잘살게 되였다고 하니 자신께서도 매우 기쁘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자신께서는 로인이 작년에 농사를 잘 지어 남먼저 농업현물세를 완납하고 애국미헌납운동발기자가 되여 선참으로 30가마니의 쌀을 국가에 헌납한 소행을 높이 평가하며 그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하시였다.

크나큰 믿음이 어려있는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에 김제원농민은 눈굽을 적시며 자기는 땅을 주시고 땅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신 장군님의 은덕이 너무도 고마워 조금이나마 보답할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뿐이라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며 어떻게 되여 분여받은 논에서 많은 벼를 생산하였는가에 대하여 물으시였다.

김제원농민이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올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 속담에 부지런한 농사군에게는 나쁜 땅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로인과 같은 농민을 두고 하는 말인것같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로인은 알곡소출을 높인 좋은 경험을 이 고장 농민들에게는 물론 다른 리의 농민들에게도 알려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앞으

로 농민들은 청초도 채취하고 집짐승사육도 하여 퇴비를 많이 받아 논에 냄으로써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새겨안으며 김제원농민은 앞으로 꼭 농사를 잘 지어 장군님의 은덕에 보답하겠다고 말씀올렸다.

그의 진정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제는 떠나겠다고 하시며 자리에서 일어서시였다.

그 전해에 애국미를 싣고 평양에 올라갔다가 황송하게도 위대한 수령님의 저택에서 식사대접까지 받았던 김제원농민으로서는 수령님을 그렇게 그냥 바래드릴수 없었다.

하여 김제원농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손을 꼭 잡고 모처럼 오셨다가 이렇게 그냥 가시면 이 김제원의 가슴에 한이 남는다고, 변변치 못하지만 우리들의 성의가 담겨진 식사를 드시고 떠나시면 안되겠는가고 간절히 아뢰였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인이 부강한 조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훌륭한 일을 많이 하리라고 믿는다고, 로인과 온 가족이 건강하기를 바란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를 위해 응당 해야 할 일을 한 평범한 농민의 소행을 그리도 귀중히 여기시며 몸소 집에까지 찾아오시였던 것이다.

수령과 평범한 한 농민사이에 맺어진 이 숭고한 혈연적련계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으니 그 나날 김제원농민은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생일상과 함께 뜻깊은 선물까지 받아안는 크나큰 영광도 지니게 되였다.

그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은

정에 의하여 그가 살던 고장은 김제원리로, 해주시에 있는 농업대학은 김제원해주농업대학으로 불리우게 되였다. 김제원리에는 김제원농민의 반신상도 세워졌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김제원농민은 참된 농민영웅으로 조국청사에 새겨지고 영생의 삶을 누릴수 있게 되였다.

과거의 머슴군이 오늘은 조합의 주인으로

농업협동화가 완성단계에서 힘있게 추진되고있던 때인 1957년 12월 중순 어느날이였다.

황해남도 인민경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옥정농업협동조합(당시)이 협동경리의 생활력을 높이 발휘하며 농산과 축산, 잠업과 과수 등과 문화주택건설에서 전국의 모범이 되고있는 사실을 보고받으시고 기쁜 마음을 금치 못하시여 옥정리를 찾으시였다.

승용차에서 내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감격과 기쁨을 걷잡지 못하며 정중히 인사를 올리는 옥정농업협동조합 관리위원장(당시) 함원장동무를 보시자 몹시 반가와하시면서 수고한다고 그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였다.

잠시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함원장동무를 데리고 마을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로 지은 문화주택들에 들리시여 조

합원들과 담화를 나누시며 생활형편도 따뜻이 헤아려주시고 리진료소를 찾으시여서는 농민들에 대한 의료봉사실태도 료해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특히 민주선전실에 들리시여 조합에서 만들어건 전망계획도를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아주시였다.

아직은 첫걸음을 뗀데 불과하였지만 조합에서 벌써 전망계획도까지 만들어놓고 살림을 신심있게 착실히 꾸려나가고있는것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못내 대견하고 기쁘시였다. 그 수수한 한장의 전망계획도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적집단경리가 이제 와서 조선의 농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보금자리로 되고 생활과 리상으로 되고있음을 깊이 헤아리시였던것이다.

그 사실이 느껴지실수록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외진 산간벽촌에서 당의 뜻을 받들어 헌신분투하는 함원장동무가 미덥게 여겨지시였다.

함원장동무의 어깨에 다정히 손을 얹고 걸으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고 그에게 과거에 무슨 일을 하였는가고 물으시였다.

순간 함원장동무는 울컥 뜨거운것이 치밀어올랐다.

옥정땅은 그가 태를 묻은 고장이였다. 해방전에 가난한 소작농의 가정에서 태여난 그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것이란 꼴지게뿐이였다. 어린 꼴머슴, 그것은 인간의 존엄은커녕 삶의 의미마저 깡그리 빼앗긴 막바지 인생의 호칭이였다. 소를 먹이고 온종일 꼴을 베고 나무짐을 져나르느라 그의 누데기등거리에는 언제나 소금버캐가 허옇게 내돋아있었다.

잠시후 마음을 진정한 함원장동무는 떨리는 목소리로 수령님, 저는 해방전에 머슴도 살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날품팔이도 하면서 죽지 못해 살았습니다라고 말씀드리였다.

그의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전 농민들의 비참했던 운명을 더듬으시다가 이윽하여 과거의 머슴군이 오늘은 조합의 주인이 되였구만라고 하시며 다정히 그의 어깨를 두드려주시였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함원장동무를 곁에 데리고다니시며 초가집들을 헐고 농민들을 모두 문화주택에서 살게 할데 대하여, 천수답을 없애고 관수체계를 도입하며 작물배치를 잘하고 선진영농방법을 받아들여 알곡수확고를 높일데 대하여 그리고 경리를 다각화하고 집집마다 닭과 토끼를 길러 농민들의 수입을 높이며 야산들에 과일나무를 심어 과일도 먹고 경치도 아름답게 할데 대하여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협동화의 꽃이 핀 농촌에서 농민들의 생활을 더욱 유족하게 할수 있는 방도를 밝혀주시는 귀중한 가르치심이였다.

이날 농사문제로부터 살림집건설에 이르기까지 조합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떠나시기에 앞서 함원장동무를 다시 가까이 부르시여 조합원들의 생활을 하루빨리 높은 수준에 올려세우고 협동조합을 꼭 모범조합으로 만들라고 간곡하게 당부하시였다.

옥도리를 3년이나 에돌아다니신 사연

1970년 이른봄 어느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온천일대를 현지지도하시기 위하여 그곳으로 떠나시였다.

평양-남포도로(당시)를 따라 달리던 승용차가 룡강쪽으로 꺾어들었을 때였다.

문득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운전사에게 차를 세우라고 하시는것이였다. 승용차가 멈춰서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없이 차창밖의 어느 한곳을 한동안 바라보시였다.

그러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포쪽으로 차를 돌리라고 나직이 말씀하시였다. 사실 온천으로 빨리 가자면 직선길이라고도 할수 있는 룡강쪽으로 나진 길을 리용하여야 하였다. 그러나 만약 남포쪽으로 향한 길을 리용한다면 상당한 정도로 길을 에도는것으로 되였다.

동행한 일군은 위대한 수령님께 어디 다른데 들리실 곳이 있는가하는 의문을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온천으로 간다고 하시였다.

(그렇다면 왜 길을 에돌아가려 하실가?)

그러는 그들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옥도리앞을 지나가고싶지 않아 그런다고 하시였다.

이윽하여 승용차가 남포방향으로 꺾어들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림근상동무가 없는 옥도리앞을 지나고싶지 않다고 갈리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순간 일군은 물론 운전사는 뜨거운 격정에 휩싸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림근상동지를 얼마나 위하시였는지 너무도 잘 알고있던 그들이기때문이였다.

언제인가 그가 만든 파종기를 보시고 못내 기쁘시여 북두갈구리같은 그의 손을 꼭 잡아주시며 진짜농민의 손을 잡아본다고, 참 잘 만들었다고 값높은 치하를 주시고 또 언제인가는 손수 종이에 그림도 그려주시며 마을의 건설전망설계를 만들어가지고 한번 해보라고, 근상

동무가 해야지 누가 하겠는가고 크나큰 힘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옥도리를 통과할 때면 늘 운전사에게 차를 천천히 몰라고 이르시고는 림근상동무가 달려오지 않을가 은근히 기다리기도 하시고 그러시다가 정작 그를 만나시면 기쁨에 넘치시여 그와 흉금을 터놓고 농사문제를 의논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따뜻한 손길에 이끌려 그는 온 나라가 다 아는 어엿한 농촌혁명가로 자라날수 있었다.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를 받으시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에 충실한 아까운 농촌혁명가를 잃었다고 하시며 슬픔을 억제하지 못해하시였다.

이때부터 3년동안이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온천일대로 가실 때면 남포방향으로 에돌군 하시였다.

한 녀성일군에게 베푸신 각별한 은정

조선혁명박물관 《혁명전우관》에는 절세위인들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전화의 처녀보잡이로부터 나라의 농업전반을 책임진 지도일군으로 성장한 김락희동지의 자료도 전시되여있다.

평범한 농촌처녀였던 그가 **김일성**훈장, **김정일**훈장수훈자로, 로력영웅으로 빛나는 삶을 아로새길수 있은것은 성장의 걸음걸음을 따뜻이 보살펴주시고 이끌어주신 절세위인들의 자애로운 손길이 있었기때문이다.

김락희동지가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으로 사업하고있던 어느날이였다.

뽕나무를 조성하는 사업때문에 현지에 나가있던 그는 뜻밖에도 금강산으로 올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부르심을 받게 되였다.

그의 금강산행에는 참으로 뜨거운 사연이 깃들어있었다.

당시 강원도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에 계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느날 금강산지구를 돌아보게 되시였다.

수행일군들은 늘 긴장하게 사업하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경치좋은 금강산에서 잠시나마 피곤을 푸실것을 간절히 바라며 수령님을 따라섰다.

그런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문득 걸음을 멈추시고 동행한 일군들속에서 누군가를 계속 찾으시는것이였다.

(누구를 찾으시는걸가?)

의문을 감추지 못하는 일군들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락희동무가 왜 보이지 않는가고 물으시였다.

한 일군이 그의 행처에 대하여 말씀드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간곡하신 어조로 자신께서 지금까지 그 동무에게 일만 시켰는데 이런 때에 금강산구경을 시켜야 하지 않겠는가고 하시며 그를 데려오라고 따뜻이 이르시는것이였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김락희동지는 솟구치는 격정으로 마음을 진정할수가 없었다.

금강산을 가까이할수록 김락희동지의 눈앞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육친적사랑속에 값높이 흘러온 성장의 나날들이 어제런듯 어리여왔다.

그가 위대한 수령님을 처음으로 몸가까이 뵈옵는 영광을 지닌것

은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1월에 열린 전국농민열성자대회장에서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소박한 그의 토론을 주의깊게 들어주시고 휴식시간에는 그를 불러 터갈라진 손도 따뜻이 잡아주시며 동무와 같은 용감한 사람들이 후방을 지키고있기때문에 우리는 전쟁에서 꼭 승리한다고 하시면서 온 나라가 다 아는 처녀보잡이로 내세워주시였다. 그해 가을 보답의 일념 안고 성의껏 마련한 전선원호미를 헌납한 사실을 담은 그의 소박한 편지를 보아주시고는 친히 감사문까지 보내주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쟁이 끝난 이듬해 봄 21살의 애어린 그를 외국방문의 길에 오른 조선대표단의 유일한 농민대표로 내세워주시는 대해같은 믿음을 안겨주시였고 자신께서 농업부문을 지도할 때마다 데리고다니면서 배워주겠다고 하시며 일하는 방법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가 뜻하지 않게 다리를 상했을 때에는 걷는 모습까지 유심히 보아주시며 깊이 마음을 쓰시였고 그가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하도록 크나큰 신임을 안겨주시였다.

정녕 나라없던 그 세월 가난한 화전민의 딸로 태여난 평범한 농촌처녀가 영웅으로, 당일군으로 성장할수 있은것은 다름아닌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 따뜻한 보살피심이 있어서였다.

분에 넘치는 직책을 안겨주신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만짐을 지고 뛰고 또 뛰여야 할 자기를 불러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그 사랑에 뜨거워지는 마음을 안고 금강산에 도착한 김락희동지는 또 하나의 사실앞에서 다시금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를 기다리시여 금강산지구에 대한 현지지도를 미루고계시였던것이다.

김락희동지가 도착한 다음에야 금강산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구룡연까지 걸어오르시여 금강산에 깃든 전설도 들려주시고 경치좋은 곳에서는 기념사진도 찍으시며 각별한 정을 부어주시였다.

천하절승 금강산에 새겨진 그날의 뜻깊은 자욱이야말로 농업근로자들을 위하시는 위대한 어버이의 뜨거운 정으로 수놓아진 사랑의 길이였다.

농업생산을 위하여 크나큰 로고를 다 바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촌경리부문에서 새로운 변혁을 이룩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회주의농촌건설사상과 령도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빛내이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 전체 농업근로자들의 성스러운 혁명임무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세월의 눈비를 다 맞으시면서 한평생 험한 포전길을 걷고걸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숭고한 뜻을 실현하시기 위하여 언제나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계시며 나라의 농업생산을 위하여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농업근로자들을 농업생산의 직접적담당자, 주인으로 내세워주시고 그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시기 위해 삼복의 무더위와 엄혹한 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세월의 눈비를 다 맞으시며 농장벌에 거룩한 령도의 자욱을 새기시였다.

농업생산의 직접적담당자, 주인으로 내세우시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농사일을 책임적으로 실속있게 하는 기풍을 세우도록 하여야 합니다.》

농업근로자들은 나라앞에 농업생산을 책임지고있다. 농사는 농업근로자들자신이 주인이 되여 책임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혁명적본분이며 애국사업이다. 농작물을 심고 가꾸고 거두어들이는 일을 비롯하여 모든 영농사업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는것은 바로 농업근로자들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농업근로자들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천하지대본인 농업생산의 직접적담당자, 주인으로 내세우시고 그들이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농장포전은 나의 포전이다!》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농장원들이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다운 높은 자각을 가지고 농사를 책임적으로 짓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도록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협동농장(당시)들에서 농사를 자체의 힘으로 짓자면 농장원들속에서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나라의 쌀독을 책임

진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농사를 책임적으로 짓도록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뜻깊은 감사

언제인가 은파군 양동협동농장(당시) 제7작업반 농장원들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자기들의 애국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삼가 올린적이 있었다.

그때 그들은 편지에서 해방직후 김제원농민이 애국미로 위대한 수령님을 받든것처럼 위대한 장군님을 쌀로써 받드는 1990년대의 김제원이 되겠다는 맹세를 다지였다.

그들의 진심에 넘친 소박한 편지를 보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곳 농장원들의 애국충정을 높이 평가하시고 감사를 보내주시였으며 그후에도 여러차례에 걸쳐 그들의 소행을 적극 내세워주시였다.

1997년 정초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90년대의 김제원이 되자고 호소한것은 우리 인민들의 가슴속에 간직된 뜨거운 애국충정의 발현이라고 교시하시였다.

그후 양동협동농장 농장원들은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궐기모임을 가지고 전국의 농업근로자들에게 사회주의경쟁을 호소하였다.

농사의 주인은 농민들이라고

조선이 고난의 행군의 엄혹한 시련을 이겨나가던 시기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농민들에게 주인된 자각을 깊이 심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997년 1월 24일 전당당일군회의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력사적인 서한에서 농사의 주인은 농민들이라고 하시면서 여러가지 조건이 불리하여도 농민들이 사상적으로 발동되면 농사를 잘 지을수 있다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그러시고 농민들속에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그들이 농사를 잘 짓는것이 당과 수령의 은덕에 보답하는 길이며 우리의 사회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는것을 깊이 인식하고 농업생산에 자각적으로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어느한 기회에도 농업근로자들은 강국건설의 천하지대본인 농업생산의 직접적담당자들이라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으며 그들이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도록 온갖 조치를 다 취해주시였다.

농업근로자들이
제 구실을 바로하도록 하여야 한다

언제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일군들에게 농업생산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자면 농업부문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제 구실을 바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영농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인 대책이 세워졌다고 하여 농업생산이 저절로 높아지는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농업생산의 성과여부는 농업근로자들이 자기들의 역할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고, 농촌당조직들에서는 농업근로자들이 나라의 쌀

독을 책임진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제 구실을 바로하도록 하는데서 기본은 사상교양사업,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그들의 창조적적극성을 높이는것이라고 하시면서 농촌경리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그들이 농사를 잘 짓는것이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은덕에 보답하는 길이며 우리식 사회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는것을 명심하고 그 길에서 삶의 보람을 찾는 애국농민, 농민영웅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시였다.

사랑이 넘친 비행기

1999년 1월 어느날 평양에서는 전국농업부문 일군열성자회의가 진행되였다.

그런데 회의날자가 다 되여오도록 이미 왔어야 할 량강도대표들이 도착하지 못하였다.

량강도일대에 눈이 많이 내려 렬차가 고개를 넘지 못하고있었던것이다.

해당 부문 일군들은 안타까와 량강도에 거듭되는 전화를 걸어 회의참가자들을 평양에 빨리 올려보낼수 있는 대책을 세울것을 여러번 강조하였다.

그러나 회의날자까지 그것을 타개할 방도는 거의나 없었다.

이때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즉

시 비행기를 띄워 대표들을 데려오도록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리착륙조건과 기후조건에 따르는 안전대책까지 다 세워주시였다.

그리하여 전국농업부문 일군열성자회의에 참가할 량강도대표들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비행기를 타고 회의장에 오게 되였다.

농업생산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가르쳐주시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수령님께서 크나큰 로고를 바치시여 몸소 마련하여주신 주체적이며 과학적인 농사방법을 주체농법으로 명명하시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장군님께서는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를 통찰하시고 주체농법을 보다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선군시대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제시하시여 농업문제해결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마련하신 주체적이며 과학적인 농사방법을 주체농법으로 정식화해주시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농업생산에서의 일대 앙양을 위해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시며 종자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 등 농업발전의 명확한 지침, 휘황한 길을 밝혀주시였다.

깨우쳐주신 분조관리제의 우월성

1966년 5월 어느날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느한 강냉이밭머리에 차를 세우시였다.

산들산들 봄바람이 부는 밭에서 걸싸게 일손을 다그치고있는 여러명의 농장원들을 보신것이였다.

차에서 내리시여 농장원들에게 다가가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농사형편을 알아보시였다.

너무도 소탈하게 대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인품에 끌려 농장원들은 저저마다 자기들의 생각을 그대로 말씀드리였다.

이들의 말에서 이곳 농장의 실태를 대뜸 헤아려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문득 누구에게라없이 분조관리제를 실시하면 강냉이를 정보당 얼마나 낼것같은가고 물으시였다.

순간 누구도 대답을 드리지 못하였다.

갓 실시된 분조관리제를 두고 토지와 로력이 고착되여 일하기 좋다고만 여겼지 그 우월성에 대하여서까지는 깊이 생각해보지 못한 그들이였던것이다.

대답을 올리지 못하는 농장원들을 너그러이 바라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분조관리제는 농산작업을 다 장악하고 지도할수 있으며 모든 농장원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농산작업을 자각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게 한다고 이야기하시였다.

농촌의 실정에 대하여, 새로 나온 분조관리제의 우월성에 대하여 너무도 알기 쉽게 깨우쳐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이야기에 농장원들은 저도모르게 끌려들었다.

잠시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분조관리제는 규모가 작기때문에 농장원들사이에 성격과 취미를 잘 알게 한다고, 그리하여 농장원들속에서 리해가 두터워지며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정신이 더욱 높아지게 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를 새겨안으며 농장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분조관리제가 얼마나 우월하며 그대로 일해나갈 때 농업생산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게 되였다.

그날 농장원들은 모두가 주인된 마음으로 분조농사에 발벗고나설 불같은 결의들을 다지였다.

현지에서 하신 《과수업강의》

1967년 10월 어느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서해기슭에 자리잡은 어느한 과수농장을 찾으시였다.

과수원의 사이길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란히 서있는 두그루의 사과나무앞에서 문득 걸음을 멈추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따르던 일군들의 눈길이 일시에 그 나무들에로 집중되였다.

척 보기에도 두그루의 사과나무는 서로 대조를 이루었는데 한그루에는 사과가 많이 열려 가지가 휘늘어져있었고 다른 한그루에는 알수도 적었고 사과알도 크지 못하였다.

자세히 살펴보면 사과가 적게 달린 사과나무는 키도 더 크고 잎도 무성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과나무들을 가리키시며 이쪽나무에는 사과가 많이 열리고 알도 굵은데 저쪽 나무는 왜 그렇지 못한가, 같은 밭인데 어째서 이런 차이가 생기는가고 물으시였다.

나타난 현상의 본질을 파고드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물으심에 농장일군들은 선뜻 대답을 올릴수 없었다.

한것은 지금껏 과수농사를 지어오면서 어떤 수종의 과일나무이건 한해동안 결실이 좋으면 그 이듬해에 수확고가 떨어지기마련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현상을 있을수 있는 일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왔던 것이다. 또 이러한 견해는 오랜 세월 과수업부문에서 화석처럼 굳어진 하나의 《법칙》이기도 하였다.

영문을 알수 없어 머리를 기웃거리는 일군들을 일별하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과가 적게 달리고 알이 작은것은 사과나무발의 지력이 높지 못하기때문이라고 하시면서 사과밭의 지력을 높이자면 땅을 깊이 파고 비료를 많이 주어야 한다는데 대하여서와 린비료를 많이 주어야 알이 커지고 맛도 달다고 이르시고나서 정보당시비량까지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이어 사과가 많이 달린 나무에 가까이 다가가시여 가지 하나를 휘여잡으시고 손수 꽃눈을 세여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사과달림률을 높이자면 수세를 좋게 하는것과 함께 가지자르기를 잘해야 한다고 하시며 가지자르기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가지자르기를 잘해야 태양광선을 잘 받고 통풍이 골고루 되며 빛합성이 잘된다고 하시면서 가지자르기에서 중요한것은 결과부위를 많이 남기는것이라고, 가지끝을 자르면서도 쓸모없는 가지만 자르는것이 좋겠다고 가지자르기방법도 가르쳐주시였다.

계속하시여 사과나무는 키가 큰데 사과가 달리지 않은것은 가지자르기를 기술적으로 하지 못한데 있다고 그 원인을 밝혀주시였다.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통찰력에 또다시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해 봄 과수농장에서는 과일나무들의 모양을 바로잡는 작업이

진행되였는데 그때 꽃눈을 고려함이 없이 가지들을 지나치게 잘라버린탓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것이였다.

그러나 농장일군들은 과수밭의 일부 사과나무들에 열매가 많이 달리지 않은것을 단순히 당시 과수업부문에 고질적으로 남아있던 《법칙》으로나 해거리현상으로 해석하면서 비료주기와 가지자르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지 못한데 대하여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있었다.

하나의 현상에서도 사물의 본질을 속속들이 꿰뚫어보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그날의 《과수업강의》가 있은 때로부터 이곳 과수농장에는 새로운 과수농사방법이 도입되게 되였고 해마다 모든 과일나무들이 하나같이 탐스럽고 충실한 열매를 맺게 되였다.

주체농법에 대한 정식화

1974년 8월 어느날 한 일군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자신께서 최근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나라 농업을 추켜세우기 위하여 밝혀주신 농사방법에 대하여 연구해보았는데 그 영농방법은 확실히 우리 나라의 기후풍토에 맞는 새로운 영농방법이라고 하시면서 수령님은 농사에서도 박사이시라고 교시하시였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날 당중앙위원회의 한 일군을 만나신 기회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새로운 영농방법의 생활력을 보니 생각이 더욱 깊어진다고 하시면서 종래의 농사방법과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새로운 영농방법을 같이 보아서는 안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새

로운 영농방법을 그저 과학적인 선진영농방법으로만 부르기에는 너무도 아쉽다고,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새로운 영농방법은 수령님의 식, 우리식의 농사방법이라고 교시하시였다.

그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영농방법에 대한 심오하고도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시여 1974년 10월 9일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영농방법을 주체농법으로 정식화하여 부를것을 엄숙히 선언하시였다.

농민들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농법의 기본요구의 하나는 농사에서 농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것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농사를 구체적조건에 맞게 잘 짓자면 농민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들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농사의 주인은 농민들이며 농사일을 잘 아는것도 농민들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농사는 구체적인 실정을 잘 아는 농민들이 주인이 되여 책임적으로 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농사에 대하여 제일 잘 아는 농민들의 요구와 의사를 존중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히신 농사에서 농민들의 의사와 요구를 존중할데 대한 문제는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풀어나갈데 대한 주체사상의 원리를 구현한 가장 옳바른 방법론이다.

이렇듯 위대한 장군님께서 농민들의 의사와 요구를 존중하고 그들의 요구에 맞게 농사짓는것을 주체농법의 기본요구의 하나로 내세워주심으로써 농민들의 주인다운 자각과 열성이 비상히 높아지게 되였다.

귀중한 가르치심

1994년 10월 어느날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자신께서는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우리 인민들을 더 잘 먹이겠는가 하는 생각뿐이라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의 마지막시기까지 제일 걱정하신 문제도 우리 인민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이겠는가 하는것이였다고, 수령님께서는 올해에도 몸소 전국농업대회에 참석하시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으며 농사를 잘 짓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로고를 바치시였다고, 수령님께서는 몸이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여러 협동농장(당시)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대책을 일일이 다 세워주시였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뜻대로 농사를 잘 지어 먹는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종자혁명이 기본

1996년 7월 어느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일군들을 몸가까이 부르시고 그해 논벼의 작황과 논에 심은 벼종자에 대하여 물

으시였다. 한 일군이 자기가 돌아본 포전들의 논벼작황이 생각보다 그리 좋지 못한 사실과 벼종자는 지금까지 심어온 다수확품종이라는것을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런 품종만 심어가지고는 농사를 안전하게 지을수 없다고 하시면서 달라진 실정에 잘 맞지 않게 된 그 벼품종의 부족점과 새로운 농업발전추세를 명철하게 분석해주신 다음 농업생산을 추켜세우기 위하여서는 결정적으로 종자혁명을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종자혁명을 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신것은 그때만이 아니였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함주군의 한 협동농장(당시)을 찾으시였을 때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농장포전들을 돌아보시면서 그 전해 군의 농사형편을 알아보시였다.

한 일군의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시였다가 함주벌은 땅도 좋고 물도 모자라지 않겠는데 거기에 비해 볼 때 농사가 잘 되지 못했다고 하시면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고 물으시였다.

일군은 딱히 무엇이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 인차 입을 열지 못하였다. 군에서는 농사가 예견했던것보다 잘 되지 않은 원인을 여러모로 분석해보았지만 아직 근본원인을 똑바로 찾지 못한채 새해농사차비를 하였던것이다.

일군이 대답을 찾지 못하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벼모판씨뿌리기

와 모내기, 김매기와 비료치기를 제대로 하였는가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벼종자는 무엇을 심었는가고 물으시였다.

일군은 자기들이 심었던 벼품종과 벼가 한창 자랄 때는 작황이 좋았는데 가을할 때 보니 채 여물지 못한 벼알들이 있은 사실을 말씀올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러면 올해에는 어떤 품종을 심으려 하는가, 종자에 대한 파악은 있는가고 물으시였다.

일군은 새해에 심기로 한 벼품종과 그것을 심어보았는데 올되기는 하지만 다른 고장들에서처럼 벼알이 실하지 못하였던것을 그대로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저으기 심중하신 어조로 그러면 올해에도 결국 파악이 없는 종자를 심는가고 물으시였다.

일군은 아무 말씀도 드릴수가 없어 머리만 수그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다시금 깊은 사색에 잠기시였다가 자신의 생각에는 지난해 농사가 잘 안된 기본원인이 파악이 없는 종자를 심은데 있는것같다고, 농사야 땅이 있고 물이 있고 종자만 있으면 어디에서나 다 할수 있는게 아닌가고, 그런데 땅도 좋고 물도 넉넉하였으며 게다가 모도 제철에 내고 비료도 제대로 쳤다면 걸린것은 종자밖에 더 있는가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를 받고보니 일군은 눈앞이 확 트이는것만 같았다. 감동과 자책이 커서인지 일군의 낯색은 매우 신중해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러한 그를 바라보시며 우선 파악이 있는 종자로 품종배치를 잘해야 한다고 따뜻이 일깨워주시였다.

그후 함주군에서는 당의 종자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군을 또다시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 커다란 만족과 기쁨을 드리였다.

깊이 새겨주신 강령적지침

언제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일군들에게 농업생산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올해에는 모든 힘을 농사를 잘 짓는데 총집중, 총동원하여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한다고, 먹는 문제를 풀어야 사람들이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진심으로 느끼고 우리식 사회주의를 끝까지 지켜싸울수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평생소원을 한시도 잊은적이 없으며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전선시찰의 길에서도 어떻게 하면 농업생산을 늘여 먹는 문제를 풀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쪽잠마저 미룰 때가 적지 않았다고, 그래서 부침땅면적이 제한되여있는 우리 나라의 조건에서 먹는 문제를 풀자면 대규모토지정리사업과 자연흐름식물길공사를 하고 종자혁명과 감자농사혁명, 두벌농사, 콩농사를 하여야 하겠다고 결심하고 이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하였다고 하시였다.

두벌농사를 대대적으로 벌리도록

부침땅면적이 제한되여있는 조선에서 식량문제를 풀자면 두벌농사를 하여야 한다는것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간곡한 가르치심

이였다.

조선에서의 두벌농사문제는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농업부문의 중요한 과업으로 제시하신 문제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두벌농사문제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이미전부터 여러 시, 군들에서 두벌농사를 진행하여 경험을 쌓도록 하시고 그런 단계를 거쳐 두벌농사를 온 나라에 일반화하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1997년 9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두벌농사와 관련한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알곡생산을 늘이자면 결정적으로 두벌농사를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두벌농사면적을 늘이는데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로 하여금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높이고 조건보장을 적극 따라세우는 사업을 잘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2003년 6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의 한 부대에서 운영하고있는 농장을 찾으시였다.

이 농장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당의 두벌농사방침을 높이 받들고 이악하게 투쟁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모든 앞그루작물들이 하나같이 잘된것이 너무도 기쁘시여 몸소 밀밭을 앞장서 헤치시며 일군들에게 두벌농사문제를 두고 그처럼 마음쓰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소원을 드디여 풀어드릴수 있게 되였다고 교시하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부대군인들과 농업근로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을 높이 평가하시고 현지에서 두벌농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하

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농장을 비롯한 부대산하의 여러 농장들에서 앞그루로 밀보리와 감자를 심고 뒤그루로 벼와 강냉이를 심어 높은 소출을 냄으로써 우리 당이 제시한 두벌농사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실천으로 증명하였다고 하시면서 전국의 모든 농촌들에서 이들의 훌륭한 경험을 적극 받아들여 알곡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농장들의 경험은 종자문제를 옳게 해결하면 우리 나라의 기후조건에서도 알곡 대 알곡을 기본으로 하는 두벌농사를 얼마든지 할수 있다는 확신을 안겨주었다고 하시면서 생육기일이 짧으면서도 소출이 높은 좋은 종자를 더 많이 연구개발하여 심는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시였다. 그리고 질좋은 유기질비료를 더 많이 내여 지력을 부단히 높일데 대한 문제와 관수체계를 철저히 세울데 대한 문제, 앞그루로 심은 밀보리와 감자의 건조 및 보관관리대책을 예견성있게 따라세울데 대한 문제, 두벌농사에 대한 농업근로자들의 드높은 열의에 맞게 모든 지도일군들이 조직정치사업을 치밀하게 진행하며 인민군대의 지휘관들처럼 혁명적인 투쟁기풍으로 이 사업을 내밀데 대한 문제 등 두벌농사에서 나서는 제반 문제들을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다.

현실을 통하여 두벌농사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확증한 전국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앞그루와 뒤그루소출을 다 같이 높이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우선 두벌농사면적을 더욱 늘이고 지력을 높이며 생육기일이 짧으면서도 소출이 높은 종자를 널리 받아들

이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였다. 이와 함께 영농작업의 기계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쳤다. 그리하여 모든 도, 시, 군들에서 두벌농사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고 두벌농사에 대한 농민들의 관심이 비상히 높아졌으며 이 사업이 통이 크게 벌어지게 되였다.

한곳에서 시범을 창조하고 그것을 온 나라에 일반화하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위대한 령도방법이다.

인민군대에서부터 두벌농사의 본보기를 창조하고 그것을 온 나라에 일반화하실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2003년 10월 어느날 또다시 인민군대의 한 부대에서 운영하고있는 농장을 찾으시였다.

농장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여러차례에 걸쳐 농장에 찾아오시여 두벌농사를 잘할데 대하여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간곡한 가르치심을 깊이 새기고 이악하게 투쟁한 결과 훌륭한 작황을 마련하였다.

포전에 들리시여 농장일군들로부터 영농실태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어 뒤그루농사정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농장에서는 앞그루로 밀보리를 심고 뒤그루로 여러가지 다수확작물들을 심어 정당 알곡수확고를 급격히 높이게 되였다.

알찬 열매들이 주렁진 드넓은 농장벌을 바라보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척박한 땅을 기름진 땅으로 전변시켜 두벌농사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한 이 농장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처럼 이악하게 투쟁한다면 우리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

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모든 농촌들에서 이들의 경험을 적극 따라배울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이날 농장을 돌아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현지에서 두벌농사를 비롯한 농업생산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농장의 경험은 두벌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종자를 옳게 선정하고 긴장한 로력문제를 풀며 지력을 높이고 관수체계를 철저히 도입하는것이라는것을 현실로 보여주었다고 하시면서 그 실현을 위한 방도들을 다시금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정력적인 지도, 장군님의 끝없는 헌신과 로고속에 인민군대에서 두벌농사의 본보기가 창조되였으며 두벌농사의 열풍은 온 나라에 세차게 타번지게 되였다.

깨우쳐주신 과일농사법

언제인가 함경남도안의 인민경제 여러 부문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북청군 룡전리 문화협동농장(당시)을 찾아주시였다.

룡전리는 인민들에게 맛좋고 신선한 과일을 먹이시려고 몸소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북청확대회의를 소집하시여 온 나라에 과수업발전의 봉화를 지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업적이 깃든 력사의 고장이다.

농장원들도 아직 일터로 나가지 않은 이른아침 마을 입구에 차를 세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산기슭에 자리잡은 아담한 농장마을의

풍경을 둘러보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룡전리에 남기신 거룩한 자욱자욱을 깊은 감회속에 더듬어보시였다.

그러시던 위대한 장군님께 농장의 한 일군이 마을뒤산에 전망대를 세워놓았는데 거기에서 농장전경을 부감해주실것을 말씀드리였다. 무랍없는 그의 청을 쾌히 승낙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과 함께 전망대로 향하시였다. 전망대에서는 규모있게 건설한 문화주택들, 문화회관, 목욕탕을 비롯한 현대적미감이 나는 각종 편의시설들, 자체의 힘으로 바둑판처럼 정리한 규격포전들, 산비탈을 따라 조성한 과일밭들을 비롯하여 한폭의 그림마냥 펼쳐진 룡전리의 새 모습을 한눈에 바라볼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농장전경이 한눈에 안겨온다고 하시며 룡전리가 사회주의맛이 나는 문화농촌으로 전변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시종 밝으신 표정으로 산기슭의 마을과 규격포전들을 둘러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문득 과일나무들로 뒤덮인 산비탈의 과수원에서 시선을 멈추시고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기시였다. 무슨 영문인지 몰라 의아함을 감추지 못하는 일군들의 심정을 헤아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산을 벗겨 과일밭을 만들면 과일농사를 기계화할수 없고 힘든 로동을 없앨수 없으며 로력랑비도 많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농장원들이 무거운 사과짐을 지고 비탈길을 오르내리며 과일농사를 힘들게 하는것은 의의가 없을뿐 아니라 경제적인 실리의 견지에서도 맞지 않는다고 하시며 지금은 과학기술의 시대인데 등짐으로 져가면서 과일농사를 하는것은 지난날을 답습하는것

이나 갈다고 교시하시였다. 과학기술의 시대에는 등짐을 져가며 과일농사를 해서는 실리가 맞지 않는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를 받는 순간에야 일군들은 자기들이 어떤 실책을 범했는지 깨달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기계화를 할수 없는 비탈진 과수밭에서 농장원들이 봄과 가을에 땀으로 온몸을 적시며 등짐으로 거름과 과일을 지고 오르내리는 힘겨운 모습들을 그려보시였던것이다.

사실 이곳 일군들은 산비탈에 과수원을 조성해놓고 기계화를 도입하지 못하여 봄가을 과수밭관리에 많은 농장원들을 동원하다보니 다른 영농공정에까지 지장을 주고있었다. 잠시 마을과 과수원을 엇갈아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살림집들이 들어앉은 넓은 땅에 과일밭을 조성하고 살림집은 산비탈에 옮겨 지었어야 좋았을걸 그랬다고, 그러면 기계화를 도입하여 농장원들이 일을 헐하게 할수 있다고 아쉬운 표정을 지으시며 과일농사에서 앞선 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모든 작업공정을 기계화하여 농장원들을 힘든 일에서 해방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과수업에서도 종자혁명을 하여 과일나무를 심어서 1~2년이면 첫 수확을 거두어야 하며 나이많은 과일나무를 오래동안 유지하는것을 장려하여서는 안된다고, 북청회의정신을 따라배워 과수업분야에서 재래식방법이 아니라 앞선 과학기술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일군들은 기계화를 할수 있는 지대에 과일나무들을 심어 농장원들이 일을 헐하게 하면서도 과일생산을 늘이는것이 실리가 보장되는 과수원조성방법이라는 위대한 장군님의 깊은 뜻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였다.

북청회의정신으로 일하지 못한 자기들을 책망할대신 오히려 차근차근 깨우쳐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르며 일군들은 눈굽을 뜨겁게 적시였다. 자책어린 농장관리일군들을 다정히 둘러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과일군에 가서 현대적인 과일농사방법을 배우고 와서 자신께 편지를 쓰라고 거듭 이르신 후 차에 오르시였다.

미루벌이 전하는 사랑의 이야기

2005년 9월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미루벌의 어느한 협동농장(당시)의 밭벼포전을 돌아보시였다.

미루벌에 밭벼포전이 생겨난데는 사연이 있었다.

고난의 행군시기전까지만 하여도 미루벌의 농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은정속에 가는 곳마다 저수지와 양수장을 만들어놓고 물걱정이 없이 농사를 지어왔다.

그런데 나라의 긴장한 전기사정으로 양수기들을 제대로 돌리지 못하다보니 해마다 모내기철이면 드넓은 논벌을 원만히 적시기가 헐치 않았다.

그래서 해당 부문의 일군들은 밭농사에 력량을 집중하는데 그 타개책이 있다고 보고 밭벼생산을 시험적으로 하게 되였던것이다.

밭벼포전을 깊은 관심속에 돌아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문득 일군들에게 밭벼를 처음 심었는데 농장원들이 좋아하는가고 물으시였다.

일군의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미루벌의 농사에 대해서는 미루벌농민들이 제일 잘 안다고, 농업지도일군들은 농사지도에서 주관주의를 하지 말고 농민들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의견을 들

어보아야 하며 그것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이르시였다. 그러시면서 새 품종은 무턱대고 내려먹이지 말고 농민들이 그 우월성을 알고 스스로 받아들이게 하여야 한다고 다정히 일깨워주시였다.

그러나 일군들은 농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깊은 뜻을 미처 다 헤아리지 못하였다.

잠시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돌미산에 건립된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사적비앞에 이르시였다.

미루등판을 개간하여 알곡생산기지로 꾸려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감회깊이 돌이켜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미루벌에 자연흐름식물길공사를 하여야 하겠다고, 자연흐름식물길공사를 하면 미루벌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인 물문제를 풀수 있을뿐 아니라 숱한 양수기와 전동기를 쓰지 않게 되여 전기도 많이 절약할수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순간 일군들은 뜨거운 격정에 휩싸였다. 물걱정이 없이 논농사를 마음껏 짓고싶어하는 미루벌농민들의 소원을 풀어주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위대한 사랑의 세계가 안겨왔던것이다.

격정에 넘쳐있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농사에서 기본은 논벼농사이라고, 미루벌에 자연흐름식물길공사를 하자고 하는것도 결국은 논벼농사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이라고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자연흐름식물길공사가 힘있게 벌어졌고 미루벌의 물걱정은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속에 펼쳐진 자연흐름식물길에 실려 영영 흘러가버리게 되였다.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도록 이끌어주시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주인다운 일본새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충성의 로력투쟁으로 부족한것을 메꾸고 불리한 조건들을 극복하여 올해 농업생산에서 반드시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농업근로자들을 튼튼히 키워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농업생산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웅대한 구상을 펼치시면서 농업생산을 강국건설의 천하지대본으로 규정해주시고 모든 농업근로자들을 불러일으켜 농업생산에 자기의 힘과 지혜를 깡그리 다 바쳐 헌신해나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생전의 뜻을 실현하는것을 필생의 좌우명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불철주야의 현지지도강행군으로 전국의 농장들의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해주시면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키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온 나라의 토지가 사회주의국가의 토지답게 대규모규격포전으로 전변되고 자연흐름식물길건설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게 되였으며 조선의 실정에 맞는 다수확품종의 종자들이 마련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라의 농업발전을 위하여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시며 농장벌들에 거룩한 자욱을 끝없이 새기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명절날, 휴식일을 현지지도의 길에서 맞으신적은 그 얼마이고 험한 논두렁길을 걸으시며 농사일을 의논해주신적은 그 얼마인지 모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온 나라의 농장들을 찾아 이어가신 길을 따라 농업근로자들은 힘차게 떨쳐나섰으며 나라의 농업생산은 다그쳐졌다.

위대한 혁명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불철주야의 초강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시며 온 나라에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키신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농업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이 힘있게 다그쳐지게 되였으며 조선의 존엄과 위용이 높이 떨쳐지게 되였다.

몸소 지으신 두벌농사

1964년 6월의 어느 일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몸가까이 모시고 사업하는 한 일군은 장군님께서 계시는 저택으로 갔다.

정원에 들어선 일군은 류다른 풍경에 어리둥절하지 않을수 없었다. 자기가 상상했던것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눈앞에 펼쳐져있었기때문이였다.

관상용나무들이나 꽃나무들, 푸른 잔디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정원에는 뜻밖에도 경제림이 우거져있는가 하면 꽃밭대신 자름자름한 뙈기포전들에서 곡식들이 자라고있었다.

벼, 강냉이, 콩, 밀 등의 알곡작물들과 여러가지 공예작물들 그리고 배추, 무우, 쑥갓 등 남새류들과 지어 집짐승먹이풀들까지 자라고

있는 포전들이 련달려있었다. 포전마다에는 거기에 심은 품종에 대한 설명판들이 있었다. 마치 어느 농업연구소의 시험포전을 방불케 했다.

일군은 그러한 풍경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여 여기저기를 둘러보다가 문득 어느한 포전에서 일하고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을 우러르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시험포전을 가꾸시는 모습을 우러르는 일군은 한없는 격정에 휩싸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밀뒤그루로 콩을 심고계시다가 일군을 보시고 매우 반가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친근한 미소를 지으시며 저기에 호미가 있으니 그것을 들고 밭에 들어오라고 하시였다.

일군은 호미를 잡고 위대한 장군님의 곁으로 다가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뒤그루로 심는 콩은 잎이 작게 나오기때문에 촘촘히 심어도 해빛을 잘 받는다고 하시면서 일군에게 될수록 씨앗을 배게 심으라고 일깨워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몸소 콩그루사이의 간격까지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씨앗을 묻어나가며 이렇게 심으면 콩을 정보당 2t은 거둘수 있을것같다고 아뢰이는 일군의 말을 들으신 장군님께서는 2t이 아니라 자신께서는 3t을 예견하고있다고, 그래서 앞그루와 뒤그루를 합쳐 모두 6t반은 수확하려고 한다고 하시였다.

일군은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밭농사에서는 외벌농사가 기본이였고 두벌농사를 하는 경우에도 정보당 수확고가 4t을 넘지 못하고있었던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러한 일군에게 자신께서 몇해째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쌀보리와 밭벼, 쌀보리와 그루조, 쌀보리와 콩

등을 두벌농사작물로 정하고 시험재배해보았는데 6t 반수준에 올랐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알곡생산을 높일수 있는 커다란 예비는 두벌농사, 밀식농사에 있다고 일군에게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계속하시여 경지면적이 제한되여있는 우리나라에서 벌방지대에서는 한해에 두벌농사를 하고 중간지대에서는 두해에 세벌농사를 해야 하며 모든 곡식을 배게 심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알곡증산의 근본열쇠를 안겨주시는 귀중한 가르치심이였다.

일깨워주신 낟알의 무게

1967년 11월 어느날 대동군의 어느한 농장 탈곡장앞을 지나시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문득 차를 세우게 하시였다.

탈곡장앞 큰길에서 멍석을 깔고 탈곡하던 농장원들이 점심시간이 되자 그대로 두고 들어갔던것이다.

동행한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바쁘신 걸음을 지체시키는것만 같아 송구스러움을 금치 못해하였다. 차에서 내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낟알을 밟고 다녀서야 되겠는가고, 멍석을 한쪽으로 치우고 지나가자고 하시며 몸소 멍석귀를 드시였다.

이때 농장일군들이 황급히 달려와 위대한 장군님께 인사를 드리면서 차가 멍석우로 그냥 지나가도 일없다고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래서는 안된다고, 우리 농민들이 힘들게 지은 낟알인데 밟고 지나서야 되겠는가고 하시며 다정히 타이르시였다.

그러시고는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는가고 물으시고나서 요즘 수고가 많겠다고 하시였다.

잠시후 농장일군들을 바라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면서 보니까 벼단을 운반하면서 많은 벼알이 논판에 떨어져있는데 볼수록 아깝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책감으로 하여 고개를 들지 못하는 일군들에게 벼단을 실어들일 때에는 이런 멍석같은것을 깔고 한알의 낟알이라도 허실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농사가 잘되였다고 해서 낟알 귀한줄 모르면 안된다고 차근차근 일깨워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농민들속에서 한알의 낟알이라도 귀중히 여기고 알곡을 더 많이 생산할뿐 아니라 절약하도록 교양사업을 잘하여야 하겠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가르치심을 자자구구 새겨가는 일군들에게는 한알한알의 낟알의 무게가 천근만근으로 느껴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깨워주신 낟알의 무게!

그 무게는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뿐 아니라 온 나라 인민들이 언제나 깊이 새겨야 할 량심의 무게, 애국의 무게였다.

농사차비의 첫 공정

언제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문덕군의 협동농장(당시)들을 현지지도하시였다.

바다가의 협동농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득히 펼쳐진

논벌을 바라보시다가 일군들에게 문덕군은 우리 나라 곡창지대의 하나인데 해방전에는 이 지방의 적지 않은 농민들이 일제와 지주들의 착취와 압박에 못이겨 이곳을 떠나지 않으면 안되였다고 하시면서 착취받고 억압받던 지난날의 처지를 잊지 말고 농사를 더 잘 지어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신 고마운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드넓은 논벌을 한동안 둘러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올해 농사차비는 어떻게 하고있는가고 물으시였다.

한 일군이 그동안 해온 일에 대하여 보고드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의 대답을 주의깊게 들으시고나서 농사차비를 잘하는것은 한해 농사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농사차비를 잘하지 못하여 시기를 놓치면 알곡수확고를 높이는데 많은 지장을 주게 된다고, 그러므로 농사차비를 빈틈없이 해놓았다가 봄씨붙임을 제철에 와닥닥 해제껴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계속하시여 농사를 잘 지으려면 지도일군들이 모든 일에서 이신작칙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일군들은 군중속에 들어가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이 높은 책임성과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일하도록 하여야 하며 실정에 맞게 경제선동을 적극 벌려 농장원들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일군들은 한해농사의 첫 공정은 농사차비이고 농사차비의 첫 공정은 정치사상사업을 강화하는것이라는것을 깊이 새기였다.

이윽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바다가에 나가보자고

하시면서 그리로 향하시였다.

바다가에 이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해안제방뚝에 올라서시여 주변을 살펴보시였다.

근엄한 눈길로 바다를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미제의 침략책동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곳 당조직들이 언제나 놓치지 말아야 할 투쟁과업을 밝혀주시였다.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자자구구 새겨안았다.

그러면서 농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빛내이시는 고마운 사회주의제도를 수호하기 위한 성스러운 전투라는것, 전투준비의 첫 공정이 바로 정치사상사업을 현실의 요구에 맞게 진공적으로 벌리는것이라는것을 똑똑히 깨달았다.

농사의 주인된 자각을 심어주시며

1986년 11월 어느날 평원군 원화협동농장(당시)을 찾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먼저 농사형편에 대하여 알아보시였다.

관리위원장(당시)으로부터 그해 농사정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만하면 논벼농사가 괜찮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으로부터 분에 넘친 치하를 받아안은 관리위원장은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 원화리농사에 대하여 늘 관심하시며 보살펴주신 덕분이라고 말씀올리였다.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도 원화협동농장의 명예농장원인데 별로 도와준것이 없다고 하시며 한번 나와본다는것이 시간

을 내지 못해 오늘에야 나왔다고, 농사일에서 걸리고있는 문제들이 있으면 다 제기하라고 이르시였다. 그러시면서 걸린 문제가 있으면 자신께서도 알아야 하며 또 알아야 함께 의논하여 풀것이 아닌가고 다정히 말씀하시였다.

나라의 크고작은 일을 다 보살피시는 위대한 장군님께 어찌 한 농장의 걸린 문제를 말씀드린단 말인가.

관리위원장은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러면 자신께서 물어보겠다고 하시며 농장의 관리운영정형이며 농장원들의 생활형편에 대하여 하나하나 알아보시였다.

관리위원장이 올리는 대답을 주의깊게 들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문득 지원로력을 아예 받지 않고 농사를 지을수 없겠는가고 물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물으심에 관리위원장은 그만 머리를 숙이고말았다. 사실 지원로력을 아예 받지 않고 농사를 지을 용단까지는 선뜻 내리지 못했던것이다.

그러한 그를 탓할 대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늘 여기로 나온것은 책임을 묻자고 해서가 아니라 도와주자고 해서이다, 올해는 부침땅면적도 늘어나 일손이 긴장했겠는데 지원로력을 적게 받고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지어 알곡수확고를 높인것은 잘한 일이다, 조금만 더 잘하면 아예 지원로력을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농사를 지을수 있다고 차근차근 일깨워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협동농장들에서 지원로력이 없이 자체의 힘으로 농사를 잘 짓도록 하는것이 우리의 리상입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원화협동농장에서는 이제부터 지원로력을 받지 않고 농사를 자체의 힘으로 지어보아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그 방도에 대해서까지 가르쳐주시였다.

그러시고야 마음이 좀 놓이시는듯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드넓은 포전을 바라보시며 관리위원장에게 논두렁에 심은 콩의 처리문제를 놓고 농장원들이 좋아하는가고 물으시였다.

관리위원장은 위대한 장군님께 농장원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다고 자랑스럽게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농장원들이 좋아한다니 얼마나 기쁜 일인가고 하시며 환히 웃으시였다.

신명고개에 깃든 사연

나라의 곡창지대로 소문난 문덕군에 가면 열두삼천리벌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나지막한 둔덕이 있다.

신명고개, 그 옛날에는 이름없던 고개였다. 그러나 절세위인들의 령도의 자욱이 새겨진 때로부터 이 고개는 이름그대로 신명스러운 고개로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

언제인가 멀고먼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신명고개마루에서 차를 세우시였다.

일군들이 올리는 인사를 반갑게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고개마루에 새로 생긴 전망대와 헌시비를 보시였다.

눈비 내리여도, 삼복의 무더위에도 포전길을 걸으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잠시나마 눈비와 뙤약볕을 막아드리고싶어하는 인민들의 뜨거운 충성심이 깃들어있는 전망대였다.

대대로 내려오는 이 고장 농민들의 물걱정을 풀어주시고 농업발전의 휘황한 전망을 열어주시려 헌신의 자욱자욱을 새겨가신 위대한 수령님의 그 사랑, 그 업적을 세세년년 길이 전해가기 위하여 세운 헌시비였다.

헌시비에 새겨진 글발들을 한자한자 마음속으로 외워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망대에 오르시였다.

열두삼천리벌을 한눈에 굽어볼수 있게 전망대를 잘 지었다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신명고개에 오실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고 우리나라 농촌을 더욱 발전시킬 구상이 떠오른다고 하시였다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감회깊은 어조로 이야기하시였다.

불현듯 일군들의 뇌리에는 못잊을 가지가지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고장 일군들이 몇년동안 고심하면서도 해결하지 못하던 고인물빼기대책을 즉석에서 세워주시였다.

대형양수설비를 구하여 물을 뽑는다고 하여도 자기 농장보다 턱없이 낮은 지대에 위치하고있는 주변농장의 논벌들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될것이 우려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형편이였다.

이곳 일군들의 고충을 헤아려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바로 이 고개에서 끝간데없이 펼쳐진 논벌을 점도록 바라보시다가 지대상으로 이곳 농장보다 매우 낮은 다른 농장의 논벌을 가리키시며 저 논벌로 자연수위에 따라 빠질수 있는 지대까지 배수로를 깊이 쭉 내째라고,

그러면 양수설비도 필요없고 이웃농장논판에 피해를 줄 우려도 없을것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그때 일군은 속으로 환성을 올렸다.

또 어느해인가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로 이 고개에 오르시여 농민들이 가을날씨가 전에 없이 좋다고 하면서 가을걷이를 늦잡는것을 아시고 제때에 바로잡아주시여 우박의 피해를 미리막을수 있게 해주시였다.

력사를 더듬으며 일군들모두가 끓어오르는 격정을 금치 못하는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도 신명고개에 오면 새힘이 솟는다고, 아마 그래서 신명고개라고 부르는것같다고 하시였다.

새힘이 솟는 신명고개, 정녕 조국산천을 제일로 사랑하시며 이 땅을 기름지고 오곡백과 무르익는 사회주의무릉도원으로 전변시키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웅지가 이 교시에 뜨겁게 어려있는것이였다.

그 결과를 꼭 알려달라고

언제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자강도의 한 협동농장(당시)을 찾으시였다.

드넓은 포전에 새하얀 감자꽃이 눈부시게 피여난 광경은 참으로 이채로왔다. 두벌농사의 뒤그루로 심은 감자포기들의 싱싱한 모습은 마치도 조선로동당의 두벌농사방침의 정당성을 소리쳐 확증하는것만 같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이곳 관리위

원장(당시)에게 여기서 세벌농사까지 한다는데 어떻게 하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주 희한한 일이라고 못내 기뻐하시며 온실에 들리시였다.

온실에는 오이와 무우, 도마도, 부루 등 갖가지 남새가 계단식으로 층층이 자리잡고있었다.

철을 앞당겨 자라난 푸르싱싱한 남새들을 바라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단하다고 감탄을 금치 못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세벌농사를 하는데서 무우나 배추는 문제없고 이제 감자농사만 잘되면 성공이라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기록해놓았다가 자신께 알려달라고 이르시는것이였다.

순간 관리위원장도 수행일군들도 뜨거워지는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두고 마음쓰시며 북방의 크지 않은 농장의 세벌농사경험을 그렇듯 귀중히 여기시며 그 결과를 자신께 꼭 알려달라고 간곡히 당부하시는것이였다.

토지정리의 장엄한 포성

1998년 5월의 어느 이른새벽 최전연시찰의 길에 오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차를 멈춰세우시였다.

차창가로 지나가는 올망졸망 널려있는 뙈기논, 다락논들을 보신것이였다.

오래도록 주변논들을 바라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강원도의 토

지를 대담하게 정리하여야 하겠다고 하시며 즉시에 관계부문 일군들의 협의회를 소집하시였다.

산이 많은 강원도에서 토지를 정리하면 많은 부침땅을 얻고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여 농업생산을 늘일수 있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강원도의 토지정리를 본보기로 온 나라의 토지정리사업을 만년대계의 대자연개조사업으로 내밀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시였다.

이른새벽 농장을 찾으신 사연

조국과 인민을 위한 헌신의 강행군길을 이어가시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안변군의 한 농장포전을 찾으신것은 1999년 5월 어느날 이른새벽이였다.

일군들로부터 토지정리된 농장벌들에서 여러가지 형의 뜨락또르들이 논써레질을 하는것을 보실수 있게끔 준비를 해놓았다는 보고를 받으시였기때문이였다.

덧쌓여지는 위대한 장군님의 로고를 생각하며 일군들은 일정을 오후로 미루려고 하였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시켜주는 중요한 사업인데 순간도 지체할수 없다고, 아무리 피곤해도 새벽에 나가자고 일군들의 제의를 가볍게 막으시였다. 이렇게 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른새벽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신것이였다.

농장에 도착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발머리에 주런이 서있는

여러가지 형의 뜨락또르들을 주의깊게 살펴보신 다음 발동을 걸어보도록 이르시였다. 그러시고는 매 뜨락또르들의 속도와 회전반경, 성능과 구조작용을 세심히 료해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로동계급이 자체의 힘으로 마력수를 높인 《천리마》호뜨락또르를 보시고 대단하다고, 없는것과 부족한것이 많고 곤난한 때에 용케 만들었다고 더없이 기뻐하시였다.

이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다른 나라들에서 들여온 뜨락또르들도 유심히 살펴보시면서 어떤 뜨락또르가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가를 료해하시고 이 뜨락또르들의 우결함들을 하나하나 지적하시였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실정에 맞는 새형의 현대적인 뜨락또르를 어떻게 만들겠는가 하는것은 다른 나라에서 뜨락또르를 여러가지 더 들여다 시험해본 다음 결심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일군들에게 덤비지 말고 심사숙고하여 좋은것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실정에 맞게 실현하여 농민들을 하루빨리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시켜주시려고 그토록 마음쓰시는것이였다.

어제는 현대적인 농기계들과 농약, 비료를 보내주시고 오늘은 겹쌓이는 피로도 푸실사이 없이 이른새벽 농장포전에까지 나오시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르는 일군들은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드넓은 농장벌을 주름잡으며 발동소리 높이 논써레질을 하고있는 뜨락또르들의 모습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농민들에게 저 뜨락또르들을 다 보여주었는가, 농민들이 어느것을 좋아하는가

고 누구에게라없이 물으시였다.

일군들의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농사일을 제일 잘 아는 것도 농민이고 기계를 다룰 사람도 농민이기때문에 그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특별히 강조하시였다. 다시말하여 어떤 형의 뜨락또르를 만들겠는가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권한은 농민들에게 있다는 뜻이였다.

인민을 하늘로, 선생으로 여기시며 그들의 지향과 요구, 의견을 절대시하여 정책을 세우시고 그를 철저히 관철해나가시는 길에서 기쁨을 찾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인민관이 일군들의 가슴마다에 새겨진 하루였다.

《한드레벌》의 새 전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원대한 토지정리구상에 의하여 평안북도의 광대한 농경지가 새로 정리되여 로동당시대의 자랑스러운 대지로 그 모습을 일신하고있던 2000년 1월 24일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날 눈길을 헤치시고 태천군 은흥리의 한드레벌을 찾으시였다.

끝간데없이 아득히 펼쳐진 대평원, 하나하나가 다 운동장처럼 번듯하고 큼직큼직한 논배미들, 그가운데로 비행장의 활주로마냥 곧게 뻗은 길들, 실로 새로 정리된 한드레벌의 전경은 참으로 장관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렇게 훌륭하게 변모된 협동벌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고 하시면서 기계로 마음껏 농사를 지을수 있는 이런 땅을 가졌으면 하는것이 우리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이였다고, 우리 수령님께서는 농민들의 그 소원을 풀어주시

고 나라의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한평생 들길을 걸으시며 온갖 로고를 다 바쳐오시였다고, 이제는 우리가 수령님의 의도를 실현해드리게 되였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 일군들은 이 고장에 태를 묻고 살아오는 마을의 로인들이 무쇠철마의 위력앞에 하루밤사이에 올망졸망하던 뙈기논밭들이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추고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한 대평원으로 변모된 한드레벌의 희한한 전변을 두고 감격한 나머지 만세를 높이 불렀으며 며칠밤을 논머리에서 새운 사실을 그대로 말씀올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농민들이 그처럼 바라던 세기적인 념원이 실현되였는데 왜 그러지 않겠는가고 동감을 표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농민들의 오랜 숙망이 완전히 풀리게 된 오늘의 현실이야말로 강국건설의 시대를 빛나게 장식하는 하나의 커다란 경사이라고 하시였다.

이때 일군들이 이곳 농민들의 요구이기도 하고 자기들의 심정이기도 하다고 하면서 이제는 한드레벌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경된것만큼 벌이름도 고치였으면 하니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드레벌》이라는 이름대신 뜻깊은 다른 이름을 하나 지어주시였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벌이름을 고친단 말이지 하시며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시여 무연한 대지를 더듬어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눈빛은 저으기 숙연하였다. 새 대지의 끝에서 끝으로 사색깊은 시선을 옮겨가시며 묵묵히 누워있는 기름진 땅과 마음속이야기를 나누시는듯 천천히 밭머리를 거니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의 생각에는 벌

의 이름을 고치지 말고 그대로 부르는것이 좋겠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의아한 빛을 감추지 못하는 일군들을 바라보시며 착취받고 압박받던 지난날 우리 농민들이 얼마나 고생스럽게 농사를 지었는가고, 조상대대로 우리 농민들은 가난과 락후속에서 착취자들의 온갖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피눈물나는 고역의 력사를 이어왔다고, 《한드레벌》이라는 원한에 찬 이름도 그 과정에 생겨난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지난날 이 고장 농민들은 지주놈들의 가혹한 착취와 천대속에서 몇마지기의 뙈기논에 명줄을 걸고 말그대로 마소와 같이 시달렸다. 가대기나 겨우 댈수 있는 손바닥만큼씩한 논밭들은 장마때이면 큰물에 잠겨 아우성이였고 가물철이면 거북등처럼 갈라터져 농민들의 속을 태웠다. 물을 댈수가 없어 웅뎅이의 감탕물을 드레박으로 한드레 두드레 퍼올리였고 물지게를 지고 발이 닳도록 논배미들을 오르내리며 논판을 적시였다. 그렇게 고생스럽게 농사를 지었건만 가을이면 온갖 빚값에 빈털터리로 나앉아 농민들의 발치엔 늘 피눈물이 드레박으로 고이군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언제인가부터 은흥리 농민들은 원한과 피눈물이 슴배인 자기네 고장의 벌을 《한드레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농촌의 기막힌 과거를 돌이켜보는 일군들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라를 해방시켜주신 후에야 우리 농민들이 난생처음으로 제 땅에서 아무런 근심걱정도 없이 흥겹게 농사를 짓게 되였으며 기계농사의 새시대도 맞이하게 되였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는 농민들은 물론 군대와 인민들, 그리

고 후대들이 수난에 찬 과거를 한시도 잊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때문에 《한드레벌》이라는 이름도 고치지 말고 그대로 놔두어야 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피눈물을 자아내던 지난날의 한드레벌과 기계농사를 마음껏 지으며 행복의 열매를 거두게 된 오늘의 한드레벌을 대비해보면서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대한 생활력을 깊이 간직하고 고마운 사회주의제도를 튼튼히 지켜가게 하여야 한다고, 《한드레벌》이라는 이름이야말로 우리 농촌의 과거와 현재가 비낀 력사의 대명사이라고 하시였다.

일군들은 한 농촌마을벌의 이름을 놓고 조선인민의 지나온 력사를 분석하시며 투철한 계급의식과 열렬한 애국심을 심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르며 커다란 감동에 휩싸이였다.

우리의 농촌이 이처럼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가난과 락후의 마지막흔적인 뙈기논밭을 영원히 털어버리는 세기적인 변혁의 오늘에 와서 더욱더 뚜렷해지는것이 자본주의에 비한 우리식 사회주의의 절대적인 우월성이며 다시는 노예살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견결히 싸워야 한다는것이 력사의 진리라고 강조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를 깊이 새기며 일군들은 한드레벌을 마음속에 소중히 안아보았다.

구운 감자로 에우신 점심

언제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른 새벽부터 진눈까비 날리는 북방의 험한 길을 걷고계시였다.

오전 10시경, 대홍단군 홍암농장의 한 감자포전에 이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감자수확기의 작업공정을 살피시다가 이곳 일군들에게 이 밭에서 감자를 얼마나 낼것같은가고 물으시였다.

일군들은 예상수확고를 판정하였다고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앞으로 감자농사를 더 잘하여 수확고를 높여야 하며 그러자면 감자농사를 토배기농사군들이 하던 식대로 해서는 안되며 철저히 과학화해야 한다고, 이렇게 하는것이 바로 과학농사이고 감자농사에서의 혁명이며 대홍단식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그러시면서 이미 캐놓은 감자무지에 다가가시여 1kg짜리 감자 한알을 손에 드시고 기쁨어린 어조로 대홍단에서 성공하였다고, 이런 날이 오기를 바랐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홍암농장에 이어 창평농장 제2작업반의 감자저장고며 농기구보관고, 청년학교와 감자밭, 방풍림들을 일일이 돌아보시고 어느한 작업반의 감자밭머리에 이르시였을 때는 점심식사시간이 다 되여서였다. 새벽부터 내리던 진눈까비는 멎었지만 찬바람은 멎을줄 몰랐다. 그렇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래도록 감자밭머리를 떠나지 않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을 안고 봄내, 여름내 이악하게 투쟁하여 자랑찬 성과를 달성한 농장일군들과 제대군인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으로부터 과분한 치하를 받아안은 일군들은 한없는 격정에 휩싸였다.

사실 대홍단의 감자농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진두지휘하신것이나 다름없었다.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한개 군의 감자농사를 념려하시여 몸소 종

자로부터 심는 방법, 거름생산과 역병방지대책, 종합적기계화와 살림집건설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장군님께서 기울여오신 심혈과 로고에 대해 생각하는 일군들의 눈굽은 뜨겁게 젖어들었다.

잊지 못할 추억을 더듬으며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잠시라도 즐거운 휴식시간을 보내실것을 바라는 소박한 심정에서 발머리에 감자를 구워놓았다고 말씀올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감자를 어떤 방법으로 구웠는가고 물으시며 감자를 굽는 곳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군의 한 일군이 보통때 하던 방법대로 나무불에도 굽고 불에 달군 돌로도 구웠다고 말씀드리였다. 정말 그의 말대로 한쪽에는 탁탁 소리를 내며 불찌들이 튀여나는 장작불속에 감자를 묻었고 그옆에서는 뜨거운 열기를 확확 내뿜는 불에 달군 돌들우에 감자알들을 굽고있었다.

그 광경을 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너그러이 웃으시며 동무들이 하는 방법은 촌식이라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몸소 감자굽는 새로운 방법을 가르쳐주겠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방법으로 몸소 구운 감자를 일군들의 손에 하나씩 쥐여주시였다.

이날 구운 감자 몇알로 끼니를 에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언몸을 푹 녹이실 사이도 없이 멀고 험한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시였다.

사회주의리상촌으로 꾸려 후대들에게 물려주자고

2001년 4월말 어느날 황해남도의 토지정리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안악군 어러리벌과 삼천군 전진벌을 비롯한 도내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해종일 바람세찬 서해벌판에 계시였다.

어디에나 광활한 대규모의 규격포전들이 지평선끝까지 시원하게 뻗은 희한한 광경이 펼쳐져있었다. 삼천땅의 새 풍경은 더욱 볼만하였다.

이곳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새로 정리한 포전과 문화주택마을들을 부감할수 있는 언덕에 오르시여 위대한 변혁의 시대가 안아온 사회주의농촌의 새로운 모습을 이윽토록 굽어보시였다.

올망졸망한 뙈기논밭들이 가뭇없이 자취를 감추고 대신 무연한 바다를 련상시키는 거대한 포전들이 눈부리 아득하게 펼쳐져있었다.

꽃구름 피여나는 푸른 산기슭에는 아담하고 현대적인 문화주택들이 즐비하게 들어서있었고 싱그러운 봄바람은 구수한 땅내와 그윽한 꽃향기를 실어오고있었다.

이 나라의 하늘땅이 열려 처음보는 사회주의농촌의 이런 거창한 전변은 위대한 장군님의 원대한 토지정리구상의 빛나는 결실이였다.

만면에 환한 웃음을 담으시고 삼천땅의 새 풍경을 정겹게 바라보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우리 나라 사회주의리상촌의 풍경이라고 만족을 금치 못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음성은 크나큰 기쁨과 자부심에 넘쳐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제 여기에다 기계까지 주면 우리 농민들은 힘든 일에서 완전히 해방된다고 하시면서 바로 이것이 우리 수령님의 생전의 소원이였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계속하시여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한 대자연개조사업인 토지정리가 끝나고 종합적기계화까지 끝나면 우리 농촌은 말그대로 인민의 락원으로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농촌들을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사회주의리상촌으로 꾸려 후대들에게 물려주

자고 교시하시였다.

유리한 조건을 리용하여 농업생산에서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2007년 6월 어느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룡천군 신암협동농장(당시)을 현지지도하시였다.

무연하게 펼쳐진 벌을 한동안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된 자각을 안고 구슬땀을 바쳐가고있는 이곳 농업근로자들의 수고를 헤아려주시였다.

인민들을 더 잘 살게 하시려 험한 전선길과 공장의 구내길, 농장의 논두렁길을 걷고걸으시며 끝없이 헌신하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도리여 자기들의 수고를 헤아려주시니 농장의 일군들은 송구스러움을 금치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농장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농장관리운영과 로력조직을 잘 하여 농장자체의 힘으로 모내기를 앞당겨 끝냈고 논밭비배관리에서도 혁신적성과를 달성하고있는데 대하여 평가하시면서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킬데 대한 과업들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협동벌이 토지정리되고 백마-철산물길공사까지 완공되여 그 덕을 크게 보고있는것만큼 유리한 조건을 리용하여 농업생산에서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날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하며 특히 종

자혁명방침관철에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주인된 본분을 다하도록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2010년 6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새겨져있는 룡천군 장산협동농장(당시)을 현지지도하시였다.

먼저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사적비와 장산혁명사적관을 돌아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농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알곡생산을 계통적으로 늘이고 농장의 면모를 근본적으로 일신시키는 놀라운 변혁을 일으켜 수령님의 의도를 빛나게 관철하였다고 하시면서 그들이 이룩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농장에서 건설한 우렝이서식장을 돌아보시면서도, 벼모들이 푸르싱싱하게 자라는 논판들과 이랑이 보이지 않게 우거진 감자밭을 보시면서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농장의 주인된 자각을 안고 알곡생산에 애국의 구슬땀을 바쳐가고있는 농장원들의 수고를 헤아려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강국건설에서 농사는 천하지대본이라고 하시면서 농장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농민들의 생활문제를 두고 마음쓰시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내각과 국가계획위원회, 성, 중앙기관들, 도, 시, 군경제지도기관과 농업지도기관들은 농촌에 대한 물질기술적보장사업과 농민들의 생활을 안정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을 당정책적요구에 맞게 면밀히 짜고들어 책임적으로 조직진행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농업생산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면서 언제나 농업근로자들의 생활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그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에 의하여 조선의 농업근로자들의 생활은 끊임없이 높아지게 되였으며 그들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자기의 성스러운 사명과 본분을 다할수 있게 되였다.

산골이라고 하여 결코 벌방보다 못산다는 법은 없다

1968년 11월 24일 평안남도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안주군 상서협동농장(당시)을 찾아주시였다.

중간지대의 농장이라기보다 하나의 자그마한 산골이였다.

산세험한 왕산기슭의 여기저기에는 지난날의 흔적을 채 가시지 못한 살림집들이 널려져있었고 산골짜기마다에는 자름자름한 뙈기밭

들이 무질서하게 있었다. 거기에다 조나 수수, 강냉이를 심으면 며칠만 가물어도 곡식이 말라죽고 사흘만 비오면 랭습피해를 받아 종자마저도 거두어들이기 힘든 너무도 척박한 땅이였다.

나라가 해방된 후 이 고장 인민들의 생활에서는 근본적인 전변이 일어났지만 워낙 산골농장이다보니 벌방지대에 비하면 아직 너무 뒤떨어져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러한 농장의 실태를 료해하시고 동행한 일군들에게 지금 위대한 수령님께서 산골농민들의 생활수준이 올라가지 못하는 문제를 두고 걱정하고계신다고 하시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 이 고장 인민들의 생활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산골이라고 하여 결코 벌방보다 못산다는 법은 없다고 하시며 상서협동농장과 같이 산간지대 농장들에서 농장원들의 생활수준을 높이자면 토지정리를 잘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금 있는 뙈기밭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알곡생산을 늘일수 없다고, 토지정리를 산간지대의 특성에 맞게 잘하여야 땅을 묵이는 일도 없고 농산작업의 기계화를 실현할수 있으며 알곡생산을 늘일수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안으며 산골농민들의 생활문제를 두고 그처럼 마음쓰시는 장군님의 숭고한 의도에 맞게 일을 잘하지 못한 자신들의 잘못을 자책속에 돌이켜보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날 농장에서 산간지대의 특성에 맞게 산

을 잘 리용하고 소, 양, 돼지를 비롯한 집짐승들을 많이 기를데 대한 문제, 부침땅의 지력을 높이는 문제, 과수업과 잠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이 농장의 살림살이를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방도적문제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농장에 대한 현지지도를 마치시면서 안주군당위원회(당시)에서 상서협동농장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 이 농장을 잘 도와줄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농장을 현지지도하신 그 이듬해 1월 두차례에 걸쳐 또다시 농장을 찾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여기 땅이 척박하여 농사가 잘 안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땅이 나쁘다고 하여 그것을 버리고 좋은 땅에서만 농사를 지어서는 식량문제를 풀수 없으며 이곳 농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일수 없다고 하시며 지력을 높이기 위한 방도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후에도 여러차례에 걸쳐 농장을 찾으시여 살기 좋은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꾸리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농장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륜전기재들과 설비자재들도 보내주시였다.

인민들의 생활문제를 푸는데 먼저 낯을 돌려야 한다

1969년 6월 어느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원천협동농장(당시)을 찾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택건설장을 찾으시여 일군들에게 농촌살

림집을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도록 지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살림집들을 사이가 너무 좁게 짓지 말데 대하여서와 집집마다 터밭도 있고 과일나무도 몇그루씩 심을수 있게 할데 대하여 그리고 마을에 길도 시원한 감이 들게 곧추 내야 한다고, 마을중심에는 그늘이 질수 있게 수양버들도 심어야 한다고 마을형성에서 나서는 문제까지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그뿐이 아니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이 인민들의 생활문제를 푸는데 먼저 낯을 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논두렁뿐 아니라 새땅을 찾아내여 콩을 심으라고, 콩을 많이 심어 식생활에도 보탬을 하고 집짐승먹이문제도 해결하여야 한다고 차근차근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바쁜 영농기에 일에 몰려 농민들의 생활에 미처 관심을 돌리지 못하는 일군들의 안목도 틔워주시며 콩을 심는 문제까지 관심하여주시였다.

깊은 밤 포전머리에서

언제인가 신천군 화산협동농장(당시)의 관리위원장(당시)은 뜻밖에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곧 농장을 찾으신다는 놀라운 소식에 접하였다. 그는 급히 동구밖으로 달려갔다.

그가 흥분된 심정을 눅잦히지 못하며 신천읍으로 향한 큰길가에서 서성거리고있는데 승용차들이 전조등빛을 환히 비치며 달려왔다.

이윽고 차문이 열리더니 위대한 장군님께서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내리시는것이였다.

그전에도 위대한 장군님을 여러번 뵈온적있는 그는 한달음에 달려가 장군님께 인사를 올렸다.

그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관리위원장아바이생각이 나서 왔다고 하시며 스스럼없이 안부를 물으시였다. 그러시고는 자신을 기다리느라고 식사를 건늬였겠다고 하시며 같이 온 일군에게 뭘 좀 가지고 온것이 있으면 아바이에게 드리라고 따뜻한 은정을 부어주시였다.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아안고 너무 감격하여 어쩔줄 모르던 관리일군은 한참 지나서야 이제 몇시간 지나면 위대한 장군님의 생신날이라는 생각이 되새겨졌다.

전사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자신을 질책하며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 생신날을 이렇게 포전에서 맞이하셔서야 되겠는가고 죄송스러운 어조로 말씀드렸다.

그의 말을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밤하늘이 쩌렁쩌렁 울리게 호탕하게 웃으시더니 고맙다고 하시며 관리위원장동무가 자신의 생일을 어떻게 포전에서 맞이하겠는가 하면서 걱정하고있는데 자신께서는 원래 생일을 쇠지 않는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늘도 일군들이 자신에게 생일문제로 성화를 먹이기때문에 영농준비정형도 알아볼겸 해서 평양을 떠나왔다고 하시며 화제를 다른데로 돌리려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신의 탄생일에는 물론이고 명절날에도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현지지도의 낮과 밤으로 헌신하고 계신다는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있으면서도 관리일군은 인민의 한결같

은 소원을 담아 장군님께 생신날을 어떻게 이름없는 험한 포전에서 맞이하시겠는가고 거듭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의 간절한 소원을 깊이 헤아리신 듯 평양하늘을 바라보시다가 너무 그러지 말라고 하시며 갈리신 음성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평생 생신날을 모르시고 오직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끊임없는 로고를 바치고계시는데 자신께서 어떻게 편안히 앉아서 생일상을 받겠는가고, 자신께서는 수령님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한 길에서 생일을 쇠는것이 더 좋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동행한 일군들에게 휴식을 하라고 이르시고는 농사차비정형이나 들어보자고 하시며 농장관리일군을 자신의 승용차로 데리고 가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겹쌓인 피로를 푸실사이도 없이 농장의 새해영농준비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걸린 문제까지 풀어주시면서 새해농사를 잘 짓도록 온갖 조치를 다 취해주시였다.

9가지 사항

1979년 9월 25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전국의 모든 농업근로자들에게 해입히게 될 솜덧저고리의 견본품들을 보아주시기 위하여 친히 전시장에 나오시였다.

전시장에는 나이론천과 데트론천으로 7가지 색갈에 12가지 형식으로 만든 남자용솜덧저고리와 8가지 색갈에 17가지 형식으로 만든 녀자용솜덧저고리의 견본품들이 진렬되여있었다.

일군들은 남녀별, 년령별특성을 고려하여 만든 수십가지의 견본품들은 색갈이 다양하고 형태가 새로운것으로 하여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릴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었다.

전시장에 들어서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옷형태에 대하여 농민들과 토론해보았는가고 물으시였다.

일군들은 그만 말문이 막히였다. 옷형태를 여러가지로 정하면서도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볼 생각은 미처 못했던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옷감만 놓고보아도 젊은이들은 반짝거리는 나이론천을 더 좋아하고 나이먹은 사람들은 은은한 데트론천을 더 좋아하니 필경 옷형태도 다 다른것을 요구할것이라고 하시면서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아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손수 견본품하나를 드시고 잔등부분을 만져보시다가 뭐니뭐니 해도 겨울에는 뒤잔등이 뜨뜻해야 온몸이 훈훈해서 추운줄 모른다고 하시면서 솜덧저고리가 좀 얇은감이 난다고, 농민들은 두툼하고 뜨뜻한 솜덧저고리를 좋아한다고 깨우쳐주시고는 솜을 더 넣어야 하겠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번에는 또 다른 견본품을 드시고 팔소매를 벌려보기도 하시고 그것을 뒤집어보기도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농민들은 늘 밖에서 일하는데 팔소매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겠는가고 하시면서 솜덧저고리에 나이론바람막이소매도 달아야 하겠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고도 무엇인가 또 부족하신듯 견본품을 드신채 잠시 생각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귀가 시리지 않게 솜덧저고리에 삼각모자를 달아주면 농민들이 좋아할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한두명도 아닌 수백만의 농장원들이 입을 솜덧저고리를 두시고도

다심한 어머니의 심정으로 여러가지 문제에 대하여 세심하게 마음을 쓰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르는 일군들은 격정에 휩싸였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견본품들을 더 완성하여 하루빨리 다량생산에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견본품을 다 보시고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옷을 잘 만들자면 입을 사람들의 의견을 꼭 들어보아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하시면서 이번에는 각양각색의 솜덧저고리를 입고 서있는 농장원들에게로 다가가시는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맨앞에 서있는 처녀농장원에게 솜덧저고리를 누빈것이 좋은가, 누비지 않은것이 좋은가고 물으시였다.

처녀는 얼굴에 함박꽃웃음을 담고 자기는 누비지 않은것이 좋지만 누빈것도 좋다고 말씀드리였다.

처녀의 대답을 들으시고 즐겁게 웃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솜옷을 누빈 형태로도 만들고 누비지 않은 형태로도 만들며 농민들의 기호에 맞게 여러가지 색갈로 길게도 짧게도 만들어야 하겠다고 깨우쳐주시였다. 또한 나이가 든 농장원들에게는 솜덧저고리에 쟈크보다 단추를 달아주는것이 더 좋고 잘 어울릴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이윽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솜덧저고리생산을 다그쳐 설명절전으로 농민들에게 다 보내주어야 한다고 두번세번 강조하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농민들의 소박한 이야기를 귀담아들으시며 그들이 입을 옷견본품완성을 위하여 친히 주신 지시사항은 9가지나 되였다.

오랜 시간을 바쳐 옷견본품을 보아주시면서 미흡한 점이 하나라도 있을세라 친어버이심정으로 마음쓰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르는 일군들의 머리속에서는 언제나 자기들을 만나실 때마다 우리 인민에게 줄것인데 세상에서 제일 좋은것을 마련해주자고 하시면서 인민들이 요구한다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와야 한다고 늘 깨우쳐주시는 장군님의 고귀한 가르치심이 자자구구 떠올랐다.

농장의 자랑이라고

2011년 7월 어느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룡천군 신암협동농장(당시)을 찾으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청년분조합숙도 돌아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합숙을 잘 지었다고, 호실들이 아주 깨끗하다고 치하해주시였다.

동행한 일군은 위대한 장군님께 청년분조원들이 여기서 TV도 보고 학습도 하며 노래도 부르면서 문화정서생활을 하는데 집단생활이 얼마나 좋은지 집에도 가려 하지 않는다고 말씀올렸다.

집이 가까이에 있어도 가기 싫어한단 말이지 하고 되뇌이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존안에는 한없이 만족한 웃음이 실려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식사칸에 들리시여서는 반찬들이 그만하면 괜찮다고 치하해주시고 겨울난방을 어떻게 보장하는가 알아보시고서는 청년분조원들이 합숙에서 겨울을 춥지 않게 보냈다니 마음이 놓인다고 환하게 웃으시였다.

세목장과 탁구장까지 그쯘히 갖추어진 합숙을 돌아보시면서 잘 지었다고 거듭 치하해주시고 군당위원회 녀성일군의 수고도 헤아려주

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르며 일군들은 뜨거운 격정에 잠겨있었다.

합숙을 돌아보시고나서 못내 만족해하시는 위대한 장군님께 한 일군이 청년분조원들이 위대한 장군님을 그리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농사일에 청춘의 열정을 다 바치고있다고, 그들이 장군님을 몹시 뵙고 싶어한다고 말씀올렸다.

일군의 이야기를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들을 데려오라고 하시며 사랑어린 어조로 그들과 같이 기념사진을 찍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게 된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청년분조원들은 너무 기뻐 어쩔줄 몰라하였다. 덥벼치며 달려온 청년분조원들이 뒤쪽계단에 두줄로 늘어섰다. 그런데 키가 작은 녀성분조원들은 앞사람들때문에 자기들의 얼굴이 가리워지는것이 속상하여 저마끔 키를 솟구느라 야단이였다.

청년분조원들이 자리잡기를 기다려 한참이나 서계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녀성청년분조원들이 뒤줄에 서서 사진을 찍으면 가리워져 사진이 잘 나오지 않을수 있으므로 자신의 앞에 나와앉아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녀성분조원들의 속마음을 위대한 장군님께서 다 헤아려보셨던것이였다. 일잘하는 청년분조원들이 더없이 사랑스러우신듯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장군님가까이에서 사진을 찍고싶은 한가지 생각에만 옴하여 일군들사이를 비집고 앞줄로 나가는 나어린 처녀의 철없는 행동도 흐뭇한 미소속에 지켜보시였다.

남다른 특전,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영광을 받아안은 청년분조원들모두가 행복의 무아경에 잠겨있는데 촬영가들은 찰칵 사진기의 샤

타를 눌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금 농장들에 조직된 청년작업반, 청년분조들가운데 일을 잘하는 단위들이 많다고 하시면서 신암협동농장 청년분조원들이 일을 잘하여 농장원들의 사랑을 받고있다는데 그들은 농장의 자랑이라고 하시였다.

모두 일을 잘하라고 하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떠나가실 때였다. 그때에야 비로소 제정신을 차린듯 청년분조원들이 격정을 터뜨렸다. 목청껏 만세를 부르며 위대한 장군님 타신 차를 따라 내달리는 청년들, 너무도 뜻밖이고 너무도 감격스러워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는 처녀들, 오래도록 차창으로 손을 저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

정녕 그 모습은 자애로운 친아버지의 모습, 떨어지기 아쉬워하는 자식들의 모습그대로였다. 그날의 만세소리가 얼마나 우렁찼던지 10리밖의 사람들도 그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일군에게 자신께서 오늘 신암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면서 청년분조원들과 기념사진을 찍은데 대한 보도기사와 사진이 신문에 실리면 온 나라 청년들이 당에서 우리 청년들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며 청년사업을 중시하고있는가 하는데 대하여 다시금 잘 알고 오늘의 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 앞장서나갈것이라고 하시였다.

다음날 당보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활동보도와 함께 청년분조원들과 찍으신 사랑의 기념사진이 정중히 실리였다.

몸소 고쳐주신 농촌살림집설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2011년 10월 함주군 동봉협동농장(당시)을 찾으시여 농사정형과 함께 농장에 새로 일떠선 수십동의 살림집들의 구조와 칸수 등을 하나하나 알아보시였다. 그러시고는 현대적인 농촌문화주택들에서 농장원들이 행복한 생활을 누려갈수 있게 된것이 무엇보다 기쁘다고 하시였다.

새 살림집에서 살게 된 농장원들을 축복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르는 일군들은 그만 목이 메였다. 그것은 농장원들의 생활에 편리하게 구조가 달라진 농촌살림집이 설계되기까지에 깃든 몇해전 12월의 잊지 못할 사연이 떠올라서였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리원시 미곡리에서 새집들이를 하였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몸소 현지에 나오시였다. 먼저 다락식살림집을 돌아보시며 농장원들의 생활에 불편한것이 없는가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어 다른 한 살림집을 또다시 찾으시였다.

집주인의 인사를 친절하게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가정의 생활형편을 하나하나 료해하시였다. 메탄가스화까지 되여 도시부럽지 않게 살고있다는 집주인의 자랑을 들으시며 방안온도도 가늠해보시고 쌀독과 파란 불길이 솟는 메탄가스곤로를 보고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토끼우리를 보자고 하시였다.

너무도 뜻밖이여서 일군들은 어리둥절해졌는데 집주인의 얼굴에는 난처한 빛이 더욱 짙어갔다. 토끼우리로 가자면 다시 추운 밖에 나서야 하는데다가 해빛에 지붕의 눈과 고드름이 녹아 떨어지는 물방울을 피할수가 없었기때문이였다. 하지만 세간난 자식의 집을 찾으신 친

아버지처럼 성큼성큼 걸음을 옮기시여 토끼우리에 이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겨울철만이 아닌 장마철의 토끼기르기문제에 이르기까지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얼마후 이 집을 나서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 다른 살림집을 보자고 하시였다.

영문을 모르고 다른 가정에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였던 일군들은 그만 벙벙해졌다.

살림형편을 료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또다시 토끼우리를 보자고 집주인에게 청하시는것이였다.

왜 그러실가? 일군들은 의문을 풀수 없었다. 이윽고 추운 겨울이여서 토끼들을 림시 넣어기르고있는 부엌창고에 이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깊은 생각에 잠기시였다.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 새로운 농촌살림집설계를 무르익히시는줄 누구도 알수 없었다.

잠시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토끼우리는 살림집과 잇달아 짓는것이 좋겠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살림집과 잇달아 지은 토끼우리의 우월성에 대하여 하나하나 설명해주시였다. 순간 일군들의 눈앞에 영화화면처럼 비껴드는것이 있었다. 눈바람, 비바람 몰아치는 날에도 밖에 나갈 걱정없이 토끼를 기르며 기뻐할 농장원들의 모습이였다. 그제서야 위대한 장군님께서 살림집들을 찾으시며 농민들에게 사소한 불편도 없는 현대적인 농촌문화주택을 설계하시였다는것을 알게 된 일군들은 자책감으로 젖어들었다.

그때부터 농촌문화주택설계는 달라졌다. 미곡리의 추리동네, 살구

동네에 이어 도처에 새로운 구조의 살림집들이 솟아나기 시작하여 새집들이경사로 흥성거리였다.

동해지구의 동봉리에도 이런 훌륭한 살림집들이 일떠서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린것이였다.

농촌문제해결을 위하여 끝없는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의 농업근로자들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무장하고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당의 농업정책관철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사회주의농업전선의 믿음직한 주인으로 자라났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뜻을 실현하시기 위하여 언제나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계시며 농촌문제해결을 위해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의 농업정책관철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농업근로자들을 귀중히 여기시며 그들을 사회주의조국을 지켜선 전초병들로, 쌀로써 당과 혁명을 보위해온 충직하고 애국적인 근로자들로 값높이 내세워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투쟁이 성숙된 요구로 나선 시대적요구에 맞게 농촌진흥을 강력히 다그쳐 나라의 농업을 확고한 상승단계에 올려세우고 조선식 사회주의농촌의 비약적발전을 이룩하는 위대한 새시대를 열어나갈수 있게 하는 강령적지침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과학농사를 중시하시고 농업근로자들의 과학기술수준을 높이도록 하시였으며 특히 농업부문에서 재해성이상기후의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도록 하시고 농촌

의 면모와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변시키기 위한 투쟁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언제나 농업근로자들을 생각하시며 그들에게 주실수 있는 사랑과 믿음을 다 베풀어주시였다.

농촌의 참된 주인, 애국농민으로 내세워주시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리당조직들에서는 농촌의 정치사상진지, 계급진지를 강화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 모든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을 농촌의 참된 주인, 애국농민들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일년내내 바람세찬 전야에서 풍요한 가을을 안아오기 위해 아글타글 애쓰는 농업근로자들의 수고를 속속들이 헤아려주시며 참으로 충성스럽고 돋보이는 고마운 애국자들이라는 값높은 칭호를 안겨주시였다.

충성스럽고 돋보이는 고마운 애국자들, 불러볼수록 생각도 깊어진다.

애국농민의 땀은 땅에 깃들고 애국농민의 이름은 조국의 기억속에 남는다.

도도히 흐르는 강줄기에도 그 시원이 있듯이 자애로운 어버이의 품을 떠나 오늘의 애국농민들을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깨끗한 량심을 땅에 묻어 쌀로써 사회주의조국을 수호해가는 농업근로자들의 보석같은 마음을 귀중히 여기시며 애국자로 값높이 내세워주고계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에 의하여 오늘 조선의 농업근로자들은 당의 걱정, 나라의 어려움을 자기의 아픔으로 자각하고 사회주의건설의 주타격전방,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에서 혼심을 다 바쳐 분투하고있다.

사회주의주타격방향

2014년 2월 6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국농업부문 분조장대회 참가자들에게 력사적인 서한 《사회주의농촌테제의 기치를 높이 들고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자》를 보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서한에서 농업전선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이며 경제강국건설에서 힘을 집중하여야 할 주타격방향이라는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 농사를 잘 지어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적들의 반공화국, 반사회주의책동을 짓부셔버려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것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를 맡아나선 농업근로자들에게 안겨주신 크나큰 믿음이였고 애국에로 부르는 열렬한 호소였다.

따뜻한 정으로 마련해주신 하늘길

2014년 2월 9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고려항공총국(당시)의 책임일군을 찾으시여 래일 전국농업부문 분조장대회에 참가하였던 량강도대표들을 태워보내기 위한 비행조직을 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대회참가자들이 오늘부터 귀대하는데 지금 동해지구에 눈이 많이 내렸기때문에 량강도에서 올라온 대표들이 기차로 가려면 며칠 걸려야 할것이라고, 량강도대표들이 로상에서 며칠씩 고생할

것을 생각하니 마음에 걸려 그들을 비행기로 태워보내려고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중요한 비행임무를 주시리라고 생각하고있던 일군으로서는 너무도 뜻밖의 일이였다.

그는 흥분된 심정을 안고 이번에 농업근로자들에 대한 당의 사랑과 믿음이 얼마나 큰가 하는것을 깊이 느낀데 대하여 절절히 말씀올리였다.

그러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우리 농민들이 아닌가고, 그들의 수고를 생각하면 비행기가 아니라 꽃수레에 태워가도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시였다.

계속하시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일군에게 탑승인원과 그들을 태워갈 비행기기종까지 선정하여주시고나서 대표들의 편의를 잘 보장해주라고 거듭 당부하시였다. 그러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여 삼지연지구에 눈이 내리는것을 두고 몹시 걱정하시며 그곳에 주둔하고있는 군부대군인들을 동원시켜서라도 활주로의 눈을 깨끗이 치고 안전하게 비행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때로부터 몇시간가량 지나 자정이 가까와올무렵 일군에게 또다시 전화를 거시여 비행준비정형을 알아보고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래일 10시에 비행기를 출발시키려고 하는데 다른것이 없겠는가고 물으시였다.

비행승조와 비행준비는 다 되여있다는 일군의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그러면 10시에 비행기를 띄우는것으로 하자고 하시면서 비행조직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하여 대표들을 안전하

게 수송하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당부하시였다.

일군은 농업근로자들을 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진정이 사무치게 어려와 눈굽이 뜨거워올랐다.

다음날 새벽 또다시 전화로 일군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 전국농업부문 분조장대회에 참가하였던 량강도대표들을 수송하는 비행조직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하겠다고 각별히 당부하시였다.

값높은 믿음—애국자

2015년 5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어느한 농장을 찾으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종자연구소, 시험공장, 농작물시험 및 재배포전들을 돌아보시면서 육종연구사업과 농장관리운영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나서 해당 부문과 농장의 일군들, 과학자, 연구사, 종업원들이 육종사업의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농장이 이룩한 크고작은 성과들을 귀중히 여기시며 일일이 치하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러르며 일군들은 끓어오르는 격정을 금치 못해하였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땀과 열정을 묵묵히 바쳐가고있는 이곳 일군들, 과학자, 연구사, 종업원들은 애국자들이라고, 당중앙은 이들의 위훈을 언제나 잊지 않을것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

2016년 1월 1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새해의 투쟁과업과 그 실천방도들을 밝혀주시면서 농업과 관련한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농업근로자들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에 서있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분발하여 농업생산에서 전변을 일으켜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농업생산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통찰하시고 농업전선을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로 정해주신것이였다.

쌀은 곧 사회주의이다. 사회주의를 수호하자고 하여도, 경제강국건설을 잘하자고 하여도, 정치군사강국의 위력을 더욱 높이 떨치자고 하여도 쌀이 많아야 한다. 농업전선에서 쌀폭포가 쏟아져야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이 배심든든하게 전진한다. 사회주의건설의 새 승리를 향해 힘차게 내달려야 하는 오늘날 쌀은 더없이 귀중한 밑천이고 재부이다.

하기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8차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서한에서 농업전선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이라고, 농사를 잘 지어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야 우리식 사회주의를 지키고 사회주의강국을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축연회장에서 하신 당부

2021년 9월 8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과 조국에 대한 충성의 일편단심을 지니고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애국의 열정과 성실한 노력을 다 바쳐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하고있는 로력혁신자, 공로자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였으며 성대한 연회도 마련해주시였다.

못잊을 그날 연회참가자들을 믿음어린 시선으로 하나하나 일별하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의 한 일군을 찾으시여 연회에 참가한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데려오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자기들을 몸소 부르신다는것을 알게 된 순간 농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크나큰 충격에 휩싸였다.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으로서 별로 크게 한 일도 없이 영광의 자리에 앉았다고만 생각했는데 몸가까이에로 불러주실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것이다.

그들속에는 당시의 염주군 내중협동농장 관리위원장과 증산군 풍정협동농장 관리위원장도 있었다.

엎어질듯 달려와 인사도 변변히 드리지 못하는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대견하게 바라보시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그동안 농사를 짓느라고 수고가 많았다고 따뜻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자신께서는 나라의 천만중하를 한몸에 안으시고 하루도 편히 쉬지 못하시면서도 응당 해야 할 일을 했을뿐인 자기들을 로력혁신자로, 공로자로 온 나라에 내세워주시며 그 수고도 깊이 헤아려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랑어린 치하의 말씀에 어려움도 다 잊은 풍정협동농장 관리위원장은 올해 알곡생산량이 최고수확년도보다 더 많을것같다고 그이께 무랍없이 말씀올렸다.

그의 보고를 웃음속에 들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풍정협동농장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여러 차례 현지지도하신 령도업적단위인것만큼 응당 전국의 앞장에 서야 한다고 믿음어린 말씀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연백벌을 찾으시여 농사를 지도하시면서 알곡을 정보당 10t씩 생산하는것이 자신의 구상이고 희망이라고 교시하시였다고,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농사를 잘 짓지 못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평생소원을 풀어드리지 못하고있다고 나직이 말씀하시였다.

죄책감에 머리를 들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조국을 지켜선 전초병들이라고 말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뜨거운 격정에 휩싸였다. 동서고금그 어디에도 농업에 종사하는 평범한 사람들을 조국을 지켜선 전초병으로 값높이 내세워주는 그런 위인은 없었다.

사회주의조국을 지켜선 전초병들!

이는 농업근로자들을 사회주의진지를 굳건히 지키고 쌀로써 당과 혁명을 보위하는 충직하고 애국적인 근로자들로 여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만이 안겨주실수 있는 크나큰 믿음이고 사랑인것이다.

이윽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자신께서는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쌀로써 당중앙을 보위하고 우리 혁명을 보위할것을 당부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농장에 돌아가면 농장원들에게 자신께서 식량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려 쌀로써 사회주의조국을 굳건히 지켜나갈것을 부탁하였다는것을 꼭 알려줄데 대하여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그날의 뜻깊은 당부는 가렬한 전화의 나날 총포탄이 우박치는 속에서도 희생을 무릅쓰고 전시식량을 어김없이 생산보장한 농민들처럼 농업부문의 모든 근로자들과 일군들이 맡겨진 농업생산계획을 어떤 일이 있어도 기어이 수행하여 조선을 하루빨리 쌀이 남아돌아가는 나라로 만드는데 이바지할것을 바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믿음이 담긴 격려였고 고무였다.

몸소 제의하신 감사

2021년 12월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가 진행될 때였다.

첫째 의정에 대한 강령적인 결론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이 제일 중시하는 농업부문에서 평가할수 있는 성과, 자신심을 가지게 하는 뚜렷한 진일보가 이룩된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불리한 조건에서도 농사를 잘 짓는데 적극 기여한 농업부문의 모범적인 일군들과 근로자들,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감사를 보내자는것을 전원회의앞에 정중히 제의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의 뜻깊은 연단에서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국적으로 많은 단위들에서 성의껏 마련한 알곡을 애국미로 바치겠다고 당중앙위원회에 편지를 보내온데 대하여 소개하시면서 우리 당은 농업근로자들의 이처럼 소박하고 진실한 애국의 마음을 몇만t의 량곡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다고 하시며 이 단위들에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이름으로 감사를 보내자는것을 정중히 제의하시였다.

쌀로써 당과 혁명을 보위하는 애국적인 근로자들이라고

2022년 1월 27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9차대회 참가자들에게 뜻깊은 서한을 보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서한에서 우리 농업근로자들은 언제나 변함없이 당과 뜻을 같이하고 사회주의와 운명을 함께 하면서 농촌의 혁명진지를 굳건히 지키고 쌀로써 당과 혁명을 보위해온 충직하고 애국적인 근로자들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농업근로자들이 당의 걱정, 나라의 어려움을 자기의 아픔으로 자각하고 사회주의건설의 주타격전방에서 혼심을 다 바쳐 분투하고있는데 대하여 감동깊이 피력하시였다.

농촌발전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강령적지침을 밝혀주시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사회주의농촌테제에서 제시된 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하여 새 세기 농촌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고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사회주의농촌발전의 위대한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강령적지침을 밝혀주시였다.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투쟁이 성숙된 요구로 나선 오늘 농촌을 혁명적으로 개변시키는것은 엄혹한 난국을 주체적힘의 강화국면으로 반전시키고 국가의 부흥발전과 인민의 복리증진을 이룩해나가는데서 중차대한 혁명과업으로 나서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농업근로자들을 정책적으로 무장시키고 농촌을 현대적기술과 현대문명을 겸비한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농촌으로 전변시킬데 대한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농촌진흥을 강력히 다그쳐 나라의 농업을 확고한 상승단계에 올려세우고 조선식 사회주의농촌의 비약적발전을 이룩하는 위대한 새시대를 열어나가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가르쳐주신 과수농사방법

2014년 6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을 찾아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만나뵙게 된 농장의 일군들은 그 전해 과수농사를 잘 짓지 못한 죄스러움으로 하여 머리를 들수 없었다.

허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그에 대하여 탓하실 대신 지난해 사과농사를 잘하지 못한 원인에 대하여 알아보시고나서 축산과 과수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세워 지력을 높일데 대한 문제, 과일나무에 미량원소비료를 비롯한 여러가지 비료를 과학기술적요구대로 줄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대동강과수종합농장에서 사과생산을 늘이기 위한 대책적문제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그러시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과일농사를 소경 문고리 잡는 격으로 하면 안된다고, 과수부문에서 과일나무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과수농장들에서 과일나무들이 죽고 생산이 떨어지는 원인을 똑바로 찾고 불리한 일기조건에서도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과수농장에서는 병해충과 큰물피해막이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일군들을 일깨워주시였다.

한해가 다 저물어가는 때에도

2015년 12월 어느날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농업부문을 하루빨리 추켜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 농업부문을 추켜세워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

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년말인것으로 하여 한해 사업을 마무리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가르치심이 계실것이라고 생각하고있던 일군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말씀에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그들을 바라보시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금 농업생산에서 기계화비중이 높지 못하다고, 전번에도 말하였지만 현대적인 농기계와 농기구들을 많이 만들어 가까운 년간에 농업생산에서 기계화비중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농업부문을 추켜세우자면 농산작업을 결정적으로 기계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몸소 제시해주신 임무

언제인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어느한 농장을 찾으시였다.

이날 농장을 돌아보시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농장일군들에게 두벌농사방법을 완성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벼 대 뒤그루의 소출을 높여야 하며 뒤그루로서의 소출이 높은 벼품종을 연구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이야기하시면서 그 방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농장을 당중앙의 시험농장이라고 하시며 당의 종자혁명방침관철에서 선구자, 개척자로 내세워주시고 걸음걸음 따뜻이 이끌어주시고도 또다시 현지에 나오시여 농장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와 그 실현방도까지 밝혀주시였던것이다.

생명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고산과수종합농장을 찾으신 2016년 9월 어느날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고산과수종합농장에서 례년에 없는 과일대풍을 마련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너무 기뻐서 왔다고 하시며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두손을 허리에 얹으신채 그림같이 황홀한 농장의 정경을 바라보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과일생산에서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혁명사적교양실을 돌아보실 때였다.

농장에 깃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애국헌신의 자욱을 뜨겁게 안아보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문득 안색을 흐리시더니 올해 어느한 군에서 불리한 기후조건으로 과일농사가 잘되지 않은데 대하여 말씀하시는것이였다.

당시 그곳 군에서는 예상치 못했던 해풍피해를 입어 과일수확고가 그 전해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는 과일농사를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지 말아야 한다고, 과일농사에서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우리식의 과수농법을 받아들여야 과일생산에서 파동을 없앨수 있다고, 고산과수종합농장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과 당의 의도대로 농장을 세계적인 과일생산기지로 강화발전시키자면 과일생산을 과학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과일농사에서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참으로 이날의 말씀은 그 어떤 자연의 영향에도 구애됨이 없이 과일대풍을 이룩하여 인민들에게 더 많은 과일을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이 어린 가르치심이였다.

하늘의 변덕을 이기는 힘

2017년 9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어느한 농장을 찾으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농장에서 시험재배에 성공한 여러 품종의 농작물들을 보아주시고 우리가 믿을것은 과학기술의 힘이며 우리가 의거해야 할것은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명석한 두뇌이라고 하시면서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관철하자면 일군들이 농업과학연구부문을 추켜세우고 과학자, 기술자들을 우대해주며 그들의 창조적열의를 적극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풍요한 가을을 안아오기 위한 지름길, 다수확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직선주로는 바로 과학농사에 있음을 깨우쳐주시며 걸음걸음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따뜻한 손길이 있기에 농장에서 그렇듯 자랑찬 성과를 이룩할수 있은것이였다.

삼지연식농법을 창조해야 한다

2018년 10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삼지연군(당시)을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삼지연군꾸리기에서 나서는 방향과 방도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고 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현지에서 풀어주신데 이어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을 돌아보시였다.

감자저장에서 과학성과 안전성을 보장할데 대하여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의 감자생산문제를 화제에 올리시였다.

사실 이곳에서는 자기 지역의 해발고와 강수량, 적산온도 등 자연지리적특성과 기후조건에 맞는 감자농사방법을 연구하고 도입할 대신에 대홍단군에서 하고있는 농사방법을 그대로 답습하고있었다.

그러다나니 대홍단군에 비하여 지대가 높은 곳에 위치하고있고 토질 또한 굳은 진흙탕인 이곳에서는 농작물의 생육적산온도와 기일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삼지연군에서 감자농사를 대홍단군의 농사방법을 따라하는 식으로, 일률적으로 모방하는 식으로 하면 안된다고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부끄러움을 금할수가 없었다. 앞선 단위의 경험이 자기 고장의 실정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연구해보고 도입할 대신에 그것을 무턱대고 받아들이려고만 한 자기들의 사업태도가 돌이켜져서였다.

이윽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일군들에게 삼지연군에서 감자농사를 잘하자면 토지를 개량하고 감자밭에 물거름을 내여 지력을 높이는것과 함께 감자농사에서 기계화비중을 높이고 종자보관과 생산을 과학화하며 우량품종들을 계속 육종하여 받아들여야 한다고, 다시말하여 삼지연식농법을 창조하여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의 생각은 깊어졌다.

군이 감자생산에서 보다 큰 성과를 낼수 있는 비결은 다름아닌 군의 주인들이 군의 조건과 특성을 깊이 파악하고 연구한데 기초하여 끊임없는 장성을 이룩할수 있는 자체의 농사방법을 창조하는데 있었다.

잠시 동안을 두시였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과학기술의 힘에 의거하여 삼지연식농법을 창조하면 당의 의도대로 삼지연군안의 모든 농장들에서 감자를 정보당 평균 40t 생산할수 있다고 확신에 넘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가르치심은 삼지연군이 오늘뿐 아니라 앞으로도 감자생산에서 비약적이고 지속적인 장성을 이룩할수 있게 하는 고귀한 지침, 천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 금언이였다.

가르쳐주신 명안

2019년 9월 조선에 태풍13호가 시시각각 다가들 때에 있은 일이다.

태풍13호의 세기와 예상자리길, 특성에 대하여 수시로 알아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심중은 무거우시였다. 무엇보다 농작물들이 심하게 피해를 받게 되여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일군들에게 농업부문이 제일 우려된다고, 농업부문이 입는 피해는 만회할수 없다고 하시며 자신의 안타까운 심정을 터놓으시였다.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여서 또 조선의 농업근로자들이 아글타글 정성을 기울여 봄내여름내 가꾸어온 곡

식이 더없이 소중하고 귀중한것이여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그리도 절절히 말씀하신것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태풍때 큰비로 논이 물에 잠기겠는데 그렇다고 하여 물을 무작정 뽑으면 안된다고, 논이 물에 잠기면 센 바람이 불어도 벼가 잘 넘어지지 않게 된다고, 때문에 물을 뽑아도 맨밑에 있는 논밭의 물부터 뽑으면서 논들에 일정한 시간 물을 잡아두는것이 좋다고 하시며 태풍으로부터 논벼를 보호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새길수록 그 하나하나가 다 과학적인 명안이였다.

그것은 농업근로자들의 성실한 헌신의 땀, 깨끗한 애국의 구슬땀이 스민 농작물을 무조건 지켜내야 한다는 비상한 책임감을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만이 내놓으실수 있는 명안이였다.

과학중시가 국풍으로 되게

2019년 10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어느한 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이날 이곳 일군들을 만나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농장에서 해마다 훌륭하고 흥미로운 농업과학기술성과들을 이룩하고 자신을 기다리고있는데 대하여 평가하시면서 새 밭벼품종을 육종한것을 두고 만족을 금치 못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일군들에게 과학과 기술의 시대, 지식경제시대인 오늘날 누구나 과학기술의 힘으로 맡겨진 과업을 수행하

겠다는 관점을 똑바로 가져야 한다고 하시면서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자기앞에 나선 과업을 자체의 힘으로 수행해나가려는 관점이 바로 지식경제시대의 관점이라고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계속하시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는 나라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 과학기술의 힘으로 부닥친 난관을 뚫고나가는 관점과 투쟁기풍을 철저히 확립하여 과학중시가 국풍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이른새벽부터 저녁까지 농사문제를 두고 마음쓰시며

2021년 6월 어느날 이른새벽이였다.

인민들이 단잠에 든 그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농사작황을 놓고 마음쓰시며 한 책임일군을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일군에게 이제는 농사를 그저 잘해야 한다고 일반적인 강조나 할 때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올해 농사를 책임적으로 지을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말씀을 받아안는 일군의 가슴은 뭉클 젖어들었다.

얼마나 농사문제를 두고 걱정하시였으면 이 이른새벽에…

그러나 일군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농사문제를 놓고 그날 저녁에 당중앙위원회와 도당위원회 책임간부들의 협의회를 조직하신줄은 다 알수 없었다.

이른새벽부터 저녁까지 농사문제를 두고 그토록 심혈을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러르는 일군은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농작물생육후반기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2021년 6월과 7월 재해성이상기후의 영향으로 례년에 없는 변덕스러운 날씨가 계속되여 농작물의 생육에 불리한 환경이 조성되였다.

바로 이러한 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일군들에게 어떻게하나 불리한 날씨의 영향을 극복하고 농사를 잘 지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농업부문에서 농작물생육후반기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할데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기상전문가들과 농업과학연구기관 일군들, 농업성(당시) 일군들을 비롯한 해당 일군들로 전국농업부문 협의회를 조직하고 농작물의 성장을 최대로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적인안을 작성하도록 하시고 그에 기초하여 전당적, 전 국가적으로 농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과학기술적대책을 철저히 세워나가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그처럼 천금같이 귀중한 혁명시간을 한초한초 쪼개가시며 2021년 7월에만도 여러날에 걸쳐 기상수문국 책임일군을 전화로 찾으시여 고온현상이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수시로 료해하시며 앞으로 예견되는 기후변동정형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데 대하여 거듭 당부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2021년 7월말까지 가물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이 성과적으로 결속되고 고온현상에 의한 농작물피해를 최소화할수 있었으며 알곡생산을 늘일수 있는 튼튼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농업생산과 관련한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2021년 9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농업생산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그 어떤 불리한 기상기후조건에서도 농업생산의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할수 있게 농업발전전략을 정확히 작성하고 철저히 집행해나가며 특히 재해성이상기후에 견디여내면서도 소출이 높은 종자들을 육종, 개량하는데 초점을 두고 종자문제를 풀데 대한 문제, 전국적으로 논벼와 밭벼재배면적을 늘이며 밀, 보리파종면적을 2 배이상으로 보장하고 정보당수확고를 높여 인민들에게 백미와 밀가루를 보장할데 대한 문제들에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사회주의농촌건설의 목표와 당면한 중심과업을 천명하시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력사적인 보고 《우리식 사회주의농촌발전의 위대한 새시대를 열어나가자》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보고에서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농촌진흥을 강력히 다그쳐 나라의 농업을 확고한 상승단계에 올려세우고 우리식 사회주의농

촌의 비약적발전을 이룩하는 위대한 새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사회주의농촌건설의 목표와 당면한 중심과업에 대하여 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사회주의농촌건설목표는 온 나라 농촌을 주체사상화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만드는것이라고 하시면서 농업근로자들의 사상의식수준제고, 농업생산력의 비약적발전, 농촌생활환경의 근본적인 개변이 우리식 농촌발전에서 점령하여야 할 목표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사회주의농촌건설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은 거창하고도 심각한 혁명이며 장기성과 다면성을 띠는 농촌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자면 과학적인 단계와 목표를 설정하고 년차별계획에 따라 목적지향적인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밝혀주시고 당과 국가가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장기적인 농촌발전전략을 제시하시였다.

당면한 농촌발전전략의 중심과업은 모든 농업근로자들을 로동당시대에 어울리는 혁명적인 농업근로자로 개조하고 나라의 식량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며 농촌주민들의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변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농촌을 지속적인 발전궤도우에 확고히 올려세우는것이다.

농촌발전전략에서 특별히 중시해야 할 과업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에서 전국의 농촌마을들을 새롭게 변모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을 농촌발전전략에서 특별히 중시해야 할 과업으로 제시하시였다.

나라의 모든 농촌마을들을 사회주의의 맛이 나고 해당 지역의 특성이 뚜렷이 살아나게 건설하는것은 농촌주민들에게 세상에 부럼없는 훌륭한 생활환경을 제공해주며 국가의 전면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당에서 제일 중시하며 반드시 실현하자고 하는 전략적인 중대계획이다.

이 계획의 성과적실행을 위한 담보는 국가의 힘있는 지원과 강력한 국가적지도체계의 가동, 지방건설의 주인인 시, 군들의 역할제고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는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농촌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우리의 모든 농촌을 내놓고 자랑할수 있는 사회주의락원으로 훌륭히 전변시키며 인민들의 세기적숙망과 리상을 앞당겨 실현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천명하시였다.

농촌문제해결에서
현시기 절박하게 나서는 중요한 과업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에서 나라의 농업생산을 지속적으로 장성시키는것을 농촌문제해결에서 현시기 절박하게 나서는 중요한 과업으로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들이 제일 해결을 기다리는 이 절실한 과제를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서 과학농사제일주의를 일관하게 들고나갈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과학기술을 농업발전의 주되는 동력으로 하여 나라의 농업을 선진적인 농업으로 전환시키고 농업생산의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장성을 이룩하자는것이 조선로동당의 전략적인 발전관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종자혁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재해성이상기후에 대처할수 있는 과학적인 농사체계와 방법을 확립하며 농업기상예보의 신속성과 과학성, 정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현시기 농업생산을 발전시키는데서 당이 중시하는것은 나라의 알곡생산구조를 바꾸고 벼와 밀농사를 강하게 추진하는것이라는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보고에서 우리 인민의 세기적인 숙망을 가까운 앞날에 반드시 실현하려는 우리 당의 결심과 의지를 다시금 표명하시고 인민의 식생활문화를 백미밥과 밀가루음식위주로 바꾸는데로 나라의 농업생산을 지향시키기 위한 방도적문제들을 밝히시였다.

농업부문에서는 국가적인 벼와 밀소요량을 충족시킬수 있게 필요한 재배면적을 확보하는 사업을 계획적으로 내밀고 선진적인 재배방법을 도입하여 영농작업에 기계수단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건조시설을 꾸리는것과 함께 밀가공능력을 대폭 늘여야 한다.

당면하여 농장들에서 밀농사경험을 쌓기 위한 사업을 세밀하게 작전하고 국가적으로 다수확종자와 필요한 영농물자들을 보장하는 체계를 실속있게 세워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국적으로 콩농사, 감자농사열풍을 다시한번 고조시킬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저수확지들을 개량하여 옥토로 전변

시키기 위한 투쟁을 중단없이 힘있게 전개하며 벌방지대나 중, 산간지대 할것없이 전반적인 농장들에서 정보당수확고를 높일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축산과 과수, 남새와 공예작물생산을 늘이는것을 인민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중요한 과업으로 제시하시였다.

현존축산기지들을 현대적으로 개건하고 축산발전에 유리한 군들을 축산군으로 전환시켜 고기와 알, 젖생산량을 대폭 장성시키며 우량한 과일품종들을 널리 퍼치고 선진적인 재배기술을 확립하여 어린이들과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과일과 여러가지 과일가공품들이 차례지게 하여야 한다.

남새발관수체계를 환원복구하고 버섯생산기지들을 활성화하여 인민들의 식탁을 풍성하게 하며 공예작물재배에도 힘을 넣어 당원료와 기름원료를 비롯한 경공업원료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최중대과업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4 차전원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에서 농촌의 면모와 환경을 결정적으로 개변시키는것을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의 최중대과업으로 제시하시였다.

가까운 앞날에 전국의 모든 농촌마을을 삼지연시 농촌마을의 수준으로,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리상촌으로 만들자는것이 조선로동당의 농촌건설정책이다.

이 구상과 정책을 실현하는것은 전체 인민이 바라고 환호하는 인민적

인 사업이고 우리 시대의 새로운 사회주의농촌문명, 지방이 변하는 새세상을 펼쳐놓는 정치적사업이며 사회의 진보와 부흥을 위한 사업이고 공화국의 전반적발전을 이룩하는 력사적인 사업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삼지연시건설에서 축적한 우수한 경험들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확대하여 전국의 모든 농촌마을의 생활문화환경을 변모시키며 그 과정을 통하여 문명한 전사회건설을 다그쳐야 한다고 하시면서 모든 시, 군들에 농촌건설에 필요한 세멘트를 우선적으로 전진공급할데 대하여서와 설계력량과 건설력량을 강화하고 필요한 건설장비를 갖출데 대한 과업, 농촌건설에서 살림집건설을 선차적으로 내밀데 대한 과업, 농촌건설을 당적, 국가적으로 지휘하는 강력한 지도체계를 세울데 대한 과업, 주요자재들과 마감건재들을 국가적으로 보장하며 지방들에도 건재생산기지들을 꾸릴데 대한 과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방건설에 관한 당의 건축미학사상을 철저히 견지하여 농촌건설에서 독창성과 현대성, 문화성, 정치성을 보장할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시였다.

인민이 미처 알지 못한 사랑의 작전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가 진행된 때로부터 한주일밖에 안되던 2022년 1월 6일이였다.

이날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특별히 강조하신 문제는 농기계생산문제였다.

이번에 군수공업부문에서 농업부문을 힘있게 지원하도록 하였다고 하시면서 군수공업부문이 농기계들을 생산하여 농업부문을 도와줄

데 대하여 가르쳐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러를수록 일군들의 가슴은 뜨거워올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알곡생산을 늘여 인민들을 잘 먹이고 농민들을 힘든 일에서 해방하는 사업에 얼마나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였으면 군수공업부문에 나라의 방위력강화와 전혀 인연이 없는 농기계생산과제를 맡겨주시였겠는가 하는것이였다.

사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군수공업부문에서 농업부문을 도와줄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신것은 이날이 처음이 아니였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가 진행되던 2021년 12월 29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일군들에게 이번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의 옳바른 해결을 위한 당면과업에 대하여 토의한것만큼 군수공업부문에서도 농업부문을 도와주어야 한다는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그때 일군들 누구나 깜짝 놀랐다.

최근년간 국가방위력을 세계의 전렬에 당당히 올려세운 특출한 성과들에는 군수공업부문 로동계급의 불굴의 투쟁과 위훈이 력력히 어려있었다.

조선의 주체탄들이 세찬 불줄기를 내뿜으며 만리대공으로 치솟아오를 때마다, 열병광장들에 도도히 굽이친 조선로동당식절대병기들의 장엄한 흐름을 대하실 때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마음속에 언제나 군수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이 소중히 간직되여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을 겨냥한 적대세력들의 무분별한 책동이 계속되고있었으며 부족한것도, 어려운것도 많은 조건이였지

만 군수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을 믿으시고 대용단을 내리신것이였다.

그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수공업부문에서 군수생산을 진행하면서 인민경제부문을 적극 도와줄데 대한 대담한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이날뿐이 아니였다.

그 다음날인 12월 30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또다시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군수공장들에서 농기계들을 잘 만들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군수공장들에서는 농기계들을 높은 수준에서 생산할데 대하여 절절히 당부하시였다.

그 당부에는 나라의 농업을 확고한 상승단계에로 올려세워 조선식 사회주의농촌의 비약적발전을 이룩하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확고한 의지와 함께 군수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이 전략무기들의 탄생을 안아오는데 커다란 기여를 한것처럼 사회주의농촌발전을 위한 투쟁에서도 당중앙의 구상과 결심을 앞장에서 받들어나갈것을 바라시는 크나큰 기대가 담겨져있었다.

온 나라 농촌을 현대적인 농기계들로 뒤덮고 농업근로자들이 기계로 농사를 흥겹게 짓는 사회주의농촌의 새 풍경을 펼치는것을 제일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사업으로 여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이시여서 이렇듯 지난해에 이어 새해의 첫 기슭에서 또다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는것이였다.

잊지 못할 1월의 그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생산대수나 맞추는 식이 아니라 우리 실정에 맞으면서도 발전된것을 만들어 농촌에 보내줄데 대하여, 여러가지 농기계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보고 우수

한 기능을 창조적으로 더 보충하며 농기계를 다루어야 할 사람들의 의견까지 반영하여 설계도면을 작성할데 대하여, 시제품을 만든 다음에는 농장에 가지고나가 실지 동작을 시켜보고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농기계를 완성할데 대하여, 매 공정마다 품질검사를 하면서 제품의 질을 높이도록 할데 대하여 등 농기계생산과 관련한 세부적인 문제까지 하나하나 다 가르쳐주시였다.

농기계생산문제를 놓고 그토록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가슴속에 뜨겁게 간직되여있는것은 농업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기 위해 끝없는 심혈과 로고를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의 념원을 현실로 꽃피우실 진정이였다.

우리 혁명공업의 명예를 걸고 민수공업부문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이 불같은 호소는 조선혁명의 시기마다 당이 바라는것이라면 목숨을 내대고 결사로 관철해온 군수공업부문 로동계급에 대한 최대의 믿음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주신 중대과업을 받들고 군수공업부문에서는 즉시 수천대의 농기계생산과 관련한 지휘조가 무어졌으며 필요한 자재와 협동품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빈틈없는 조직사업이 진행되였다.

농촌진흥의 변혁적실체, 농기계바다가 펼쳐질 그날은 멀지 않은 가까이에 있었다. 하지만 그때 황해남도의 농업근로자들과 온 나라 인민은 농기계생산을 위한 이렇듯 웅대한 사랑의 작전이 펼쳐지고 추진되고있는줄 모르고있었다.

농촌진흥을 다그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2022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을 받들고 농촌진흥을 다그쳐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에 밝혀진바와 같이 농촌을 진흥시키는데서 선차적인 과업은 농업근로자들을 개명시키는것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농촌혁명의 주인인 농업근로자들의 의식수준을 개변시켜야 그들이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에 대한 옳바른 인식을 가지고 그 관철에서 핵심적이고 주동적인 역할을 할수 있으며 격변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농촌을 더욱 개화발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다고 하시였다.

계속하시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농업근로자들의 사상의식령역을 넓혀주자면 농촌에 선진성, 현대성을 접종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농업생산을 과학화, 현대화, 정보화하고 농산작업의 기계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는것을 비롯하여 농업생산환경을 현대적으로 개변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농업근로자들의 사상의식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할뿐 아니라 모든 농촌을 부유한 농촌으로 전변시켜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살림집건설을 기본으로 지역적, 지대적특성에 맞게 농촌건설계획을 바로 정하고 단계별로 모가 나게 수행하여 우리 나라 농촌의 급속한 진흥이 실지 눈에 뜨이게, 농민들의 피부에 가닿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절대로 미룰수 없는 중대국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2023년 2월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강령적인 결론 《올해 농사에서 나서는 당면과업과 농업발전의 전망목표에 대하여》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결론에서 제일 절실한 농업문제, 식량문제를 푸는데서 농업과학연구부문이 들고일어나 당당히 제몫을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농업을 선진적이며 현대적인 농업으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연구과제들을 실속있게 추진할데 대한 구체적인 과업들을 명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올해 농사를 잘 짓는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나라의 농업과학기술발전을 위한 토대를 높은 수준에 올려세우는 사업도 절대로 미룰수 없는 중대국사이라고 강조하시였다.

농기계전시회장을 돌아보시면서 주신 강령적가르치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2024년 1월 2일 농기계전시회장을 돌아보시였다.

전시회장에는 각종 뜨락또르, 모내는 기계, 농업용무인직승기, 밀보리파종기, 이동식강냉이종합탈곡기를 비롯하여 농업위원회와 련관부문들과의 협동밑에 설계제작된 수백종에 달하는 농기계들이 전시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시된 농기계들을 보시면서 성능과 기술적특성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해당 농기계생산단위와 련관단위들에서 자체의 기술력으로 농촌의 실정에 맞는 효률적이며 성능높은 농기계들을 제작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데 대하여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이 밝힌 농산작업의 기계화목표실현에서 수자보다 질이 우선이고 기본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현존농기계제작기술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리고 그에 기초하여 전망적인 발전계획을 과학적으로 작성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현시기 농기계공업분야에서 비약적개변을 안아오는것은 혁명의 절박한 요구이고 또한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수행을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고 하시면서 농기계발전전략을 정확히 수립하고 농기계생산부문의 현대화와 능력조성을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과 그를 위한 강령적과업들을 밝히시였다.

첫째도 둘째도 농사를 잘 짓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2024년 1월 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회의에서 강령적인 시정연설 《공화국의 부흥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당면과업에 대하여》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시정연설에서 인민생활개선을 위한 사업에서 중요한것은 첫째도 둘째도 농사를 잘 짓는것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농업부문에서 지난해 알곡고지점령으로 신심과 열의가 높아졌는데 이러한 승세를 몇년동안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만이 인민생활을 정상궤도에 올려세울수 있으며 당과 정부에 대한 인민의 신뢰를 공고히 할수 있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해처럼 내각과 경제지도기관들에서 비료와 농약, 연유를 비롯한 영농물자들을 미리 앞질러가며 보장하여 농장들에서 농사를 마음놓고 지을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조성해주어야 하며 온 나라가 또다시 년초부터 지원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농업부문을 사상정신적으로, 물질기술적으로 고무격려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농업부문에서는 농업근로자들의 애국적열의와 집단주의정신을 더 높이 발양시키고 선진적인 농업과학기술에 토대하여 과학농사열풍을 일으키며 지력을 높이고 관개체계를 완비하는 사업을 힘있게 내밀어 기후조건이 어떠하든 무조건 올해를 또다시 풍작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와 함께 밀재배면적을 늘여 알곡생산구조를 바꾸고 밀가공기지들을 건설하는 사업과 농촌경리의 기계화, 간석지건설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남새농사와 축산, 과수와 공예작물농사도 다같이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특히 올해중에 평양시에 현대적인 가금공장을 또 하나 건설하며 앞으로는 각 도들에도 일떠세워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은 알과 고기가 차례지게 하자고 한다고 하시였다.

나라의 농업생산을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쳐가시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근로자들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에 서있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분발하여 농업생산에서 전변을 일으켜야 합니다.》

현시기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것은 혁명의 운명, 사회주의의 전도와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로 나서고있다.

부닥치는 장애와 도전을 이겨내고 농업생산을 부단히 장성시켜 조선을 쌀이 남아돌아가는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는것이 조선로동당의 결심이고 의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언제나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계시며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알곡증산을 위한 투쟁에서 과학농사를 중시하시고 농업근로자들의 과학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농업생산력을 높이는데 실질적으로 이바지할수 있도록 옳바로 해나가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특히 농업부문에서 재해성이상기후의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농촌의 면모와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변시키기 위한 투쟁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조선의 농업근로자

들은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매진함으로써 이 땅우에 사회주의만세소리,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차넘치게 하고 조선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중요행사장에서 관심하신 문제

2014년 5월 어느날 깊은 밤 어느한 도당위원회의 책임일군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걸어오신 전화를 받게 되였다.

그가 올리는 인사를 반갑게 받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어느한 곳에 조직된 행사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아침에 그곳으로 와야 하겠다고 이르시였다.

한시바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뵙고싶은 심정을 안고 밤을 새운 도당책임일군은 아침일찍 그이께서 부르신 곳으로 한달음에 달려갔다.

그곳에서는 중요한 행사가 진행되게 되여있었다.

행사에 앞서 영접나온 일군들과 인사를 나누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도당책임일군이 올리는 인사도 반갑게 받으시며 그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였다.

이윽하여 행사장전경을 미소속에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한 일군에게 오늘 날씨가 어떤가고 물으시였다.

그 일군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오늘 날씨는 개이고 며칠후에는 비가 온다는데 대하여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무척 반가우신듯 미소를 지으

시며 누구에게라없이 요즘 내리는 비는 농작물의 생육에 정말 좋은 약비라고 말씀하시였다.

농작물의 생육에 정말 좋은 약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말씀이 울리는 순간 도당책임일군의 생각은 깊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농사문제를 얼마나 중시하고계시는가가 깊이 새겨져서였다.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농업생산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통찰하시고 농업전선을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주타격방향으로 정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이시였다.

그해의 2월에만도 전국농업부문 분조장대회를 소집하도록 해주시고 강령적인 서한을 보내주시였을뿐 아니라 월별, 공정별에 따르는 농사실태를 수시로 알아보시며 농업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풀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이시였다.

도당책임일군은 도의 농사를 더 잘해야 하겠다는 자각으로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다.

사실 봄에 들어와서만 해도 도에 여러번 비가 내렸지만 뒤이어 가물현상이 나타나 봄씨붙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있었다. 하여 불리한 일기조건에서 당면한 영농공정을 진척시켜야 했다.

도안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한사람같이 떨쳐나 헌신적으로 투쟁함으로써 한해 농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봄씨붙임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때마침 며칠사이에 도의 전반적지역에 봄비가 퍼그나 내

려 농작물의 모살이에 좋은 조건이 이루어지고있었다.

이런 생각을 더듬던 도당책임일군은 농사일때문에 마음을 놓지 못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싶은 심정에서 이번에 도에 평균 20㎜의 비가 내렸으며 그 비로 땅이 다 합토되고 가물을 타던 농작물들이 전반적으로 살아나 초기생육에 좋은 영향을 주고있는데 대하여 그이께 말씀올리였다.

그러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몹시 기다리던 소식을 받으신듯 환하게 웃으시며 다른데 비가 적게 내렸지만 그곳 도에는 많이 내린데 대하여 못내 기뻐하시였다.

인자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말씀에 도당책임일군의 마음은 후더워졌다.

그를 바라보시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20㎜정도의 비가 내렸으면 많이 내린 셈이라고, 이번에 내린 비로 하여 합토가 되고 가물타던 농작물들이 전반적으로 살아나고있으면 됐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말씀을 받아안은 도당책임일군은 뜨거운 격정에 휩싸였다.

도당책임일군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해에 어떻게 하나 농사를 잘 지어 도앞에 맡겨진 국가알곡생산계획을 무조건 수행하겠다고 자기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심정을 그대로 아뢰이였다.

힘있게 울리는 도당책임일군의 결의를 수긍해주시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간곡한 어조로 올해 농사를 잘 지어 도앞에 맡겨진 알곡생산계획을 무조건 수행하여야 한다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 올해 농사를 잘 지어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스스로 맡아안으신 과업

2015년 5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한 농장을 찾으시였다.

당시 농장에는 농작물의 육종기일을 앞당길수 있는 현대적인 온실을 꾸려야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있었는데 그런 온실을 건설하자면 과학기술적으로 제기되는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어느한 단위에 그런 온실이 있었는데 빛과 온도, 습도보장을 비롯한 모든 관리운영을 자동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되여있는 현대적인 온실이였다.

한 일군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농장에도 그와 같은 온실이 있으면 좋겠다고 스스럼없이 말씀올리였다. 하지만 그는 곧 실책을 깨달았다. 농장의 강화발전을 위해 로고가 크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자기의 생각만 앞세우면서 외람되게 말씀올렸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흔연하신 어조로 농장에 어느한 단위에 있는것과 같은 현대적인 온실을 꾸리면 겨울에도 재배시험을 할수 있어 시험기간을 절반으로 줄일수 있다고 하는데 온실문제는 자신께서 풀어주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일군들모두가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좀전에는 농장에 부침땅이 적어 연구사업에서 애로를 느낀다는것을 아시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주시였을뿐 아니라 필요한 영농물자들을 무조건 보장하도록 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이시였다.

나라의 농사문제를 위해 모든것을 바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이시기에 해당부문이나 일군들에게 과업을 주시여도 되시

련만 자신께서 직접 온실문제를 풀어주겠다고 스스로 말아안으시였던 것이다.

현대적인 농기계들이 사회주의농장벌들에 꽉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2015년 8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한 농기계전시장을 찾으시였다.

이 전시장으로 말하면 그해 2월에 소집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능률높은 여러가지 농기계들을 많이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어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농기계생산문제와 관련하여 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농업부문에서 농기계생산을 추켜세우기 위하여 꾸린 농기계전시장이였다.

전시장에 들어서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 농기계전시장을 돌아보고 현대적이며 능률높은 농기계들을 많이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기 위한 대책을 세우자고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전시장에는 여러 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창안제작한 농기계와 부속품, 소농기구들이 전시되여 있었다.

그 모든것을 기쁨속에 돌아보시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여 농업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시키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이였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가르치심을 받아안는 일군들은 한없는 격정에 휩싸였다.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여 농민들을 하루빨리 힘든 로동에서 해방시켜주시려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숭엄히 어려와서였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가 생산한 현대적인 농기계들이 사회주의농장벌에 쫙 차넘치게 하자는것이 당중앙의 의도이라고 하시면서 이 사업에 전당적, 전 국가적인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우리가 생산한 현대적인 농기계들이 사회주의농장벌들에 쫙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이렇듯 숭고한 의지를 안으시였기에 혁명령도로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몸소 농기계전시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이시였다.

이윽고 농업부문에서 농기계가 가지는 중요성과 농기계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는 방도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문득 일군들에게 설계기관들의 실태는 어떤가고 물으시였다.

이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농기계설계일군들에게 현대적인 농기계자료들을 많이 보여주어야 한다고, 보는것이 많아야 세계적인 농기계발전추세를 잘 알고 현대적이며 능률높은 농기계들을 창안제작할수 있다고, 자신께서 오늘 다른 나라에서 생산하는 농기계들을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왔는데 일군들이 가지고가서

보아야 하겠다고 하시며 몸소 현대적인 농기계들에 대한 잡지를 일군들에게 나누어주시였다.

그러시면서 벼농기계와 강냉이농기계를 비롯하여 수백종의 농기계들에 대한 자료가 들어있다고, 그 농기계들은 자동식, 반자동식, 수동식으로 되여있지만 하나의 공통점은 모두 로력절약형농기계들이라는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농기계생산과 관련한 문제들을 자신께서 직접 풀어주고 적극 도와주겠으니 해당 부문의 일군들이 농촌기계화비중을 더욱 높이기 위한 투쟁을 통이 크게 작전하고 대담하게 밀고나가라고 크나큰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였다.

깊이 관심하신 과학기술보급문제

언제인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한 과수연구소를 찾으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연구소에서 새로 개발한 과수품종열람프로그람도 보아주시였다.

프로그람이 현시된 화면을 주의깊게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연구소일군들에게 과수품종열람프로그람을 농장들에 모두 보급하는가고 물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물으심에 연구소의 일군은 선뜻 대답을 드리지 못하였다.

당시 연구소에서는 새로운 과학기술에 대한 보급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있었기때문이였다.

이에 대하여 자책감을 안고 올리는 일군의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농장별로 망을 련결하고 국가망을 통하여 전국에 보급하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나라의 과수업을 발전시키는데서 의의가 있는 이 프로그람을 온 나라의 과수부문 일군들과 기술자들에게 널리 보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통속적으로 일깨워주신 농기계의 중요성

언제인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농기계전시장을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주타격방향인 농업전선의 돌파구를 열어제끼자면 현대적인 농기계들과 부속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어야 한다고, 농기계들의 가동률과 리용률을 높여야 로력을 절약하면서도 농업생산을 비약적으로 높일수 있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현대적이며 능률높은 여러가지 농기계들을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기 위해서는 농기계생산자들이 농촌기계화의 전초병이라는 본분과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이라는 자각을 깊이 간직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농업부문에서 비료는 탄약과 같고 농기계는 무장장비와 같다고 가르쳐주시였다.

100리청춘과원에 울려퍼진 메아리

2017년 9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과일군을 찾으시여 생산장성의 비결은 과학기술에 있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몸소 버팀쇠줄을 쳐드시고 허리굽혀 사과밭에 들어서시여 주렁진 사과를 한알한알 만져보시며 사과가 얼마나 달렸는가고 물으시였다.

그루당 평균 200알, 최고 300알 달린 나무도 있다는 일군의 대답을 들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사과나무마다 땅이 꺼지게 열매가 달렸다고 만족을 금치 못해하시였다.

이날 그윽한 사과향기 넘치는 청춘과원을 돌아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달성한 그들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시면서 현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라고, 하늘을 쳐다보며 과일농사를 짓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100리청춘과원에 힘있게 울린 그날의 뜻깊은 가르치심이야말로 농사는 결코 하늘이 짓는것이 아니라는것을 깊이 새겨준 력사의 메아리였다.

결실을 볼 때까지, 끝장을 볼 때까지

2017년 9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한 농장을 찾으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농장포전들을 돌아보시면서 가물이 지속된 불리한 기상기후조건에서도 우량품종의 종자를 심어 정보당 수확고를 이전에 비해 4배이상 끌어올린 농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불같은 애국심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분에 넘치는 치하를 받아안은 일군들은

크나큰 격정에 휩싸였다.

농장의 연구소를 첨단농업과학연구소답게 새로 건설하며 현대적인 온실을 또 하나 일떠세우도록 조치를 취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이시였다.

끌끌한 제대군인들을 파견해주신것을 비롯하여 농장사업을 걸음걸음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세심한 손길을 떠나 농장의 자랑찬 결실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는것이였다.

하건만 자신께서 바치신 심혈과 로고는 뒤에 두시고 농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수고를 헤아려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대해같은 은정에 일군들은 목이 꽉 메여올랐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중앙과 지방의 많은 당일군들이 이 농장을 참관하게 하여 당중앙의 의도대로 종자혁명방침을 결실을 볼 때까지, 끝장을 볼 때까지 직심스럽게 관철하자면 어떻게 투쟁해야 하는가를 직관적으로 보게 하자고 말씀하시였다.

결실을 볼 때까지, 끝장을 볼 때까지!

이날 일군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말씀을 다시금 되새기며 당의 종자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해나갈 불같은 결의를 다지였다.

농기계현대화의 본보기단위로

2018년 7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삼지연시 중흥농장을 찾으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작업반의 농기계와 뜨락또르들을

보시면서 깊이 관심하신것은 농장에서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할데 대한 문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번에 농장에 와서 제일 관심하며 알아보려고 한 문제가 감자농사의 기계화비중과 수준이 어떠한가 하는것이였다고 하시면서 농장의 종합적기계화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겠다고 가르치시였다.

잠시 동안을 두시였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농장일군들에게 실지 농사일을 모두 기계로 하자면 어떤 설비들이 얼마만큼 필요한지 주저하지 말고 충분히 타산하여 제기하면 당에서 적극 풀어주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 농장을 농기계현대화의 본보기단위로 먼저 잘 꾸린 다음 그에 기초하여 삼지연시와 시안의 농장들을 종합적기계화가 높은 수준에서 완벽하게 실현된 우리 나라의 표준으로, 농장원들의 리상이 현실화된 종합적기계화농장으로 전변시키자는 것이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달리는 렬차에서 주신 가르치심

2018년 8월 찌는듯한 무더위가 지속되던 어느날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들이 병치료는 물론 사회주의문명도 마음껏 누릴수 있는 문화휴양지를 일떠세우실 구상을 안으시고 양덕군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행하게 된 일군들은 그이께서 렬차에서

만이라도 잠시나마 쉬시였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랐다.

하지만 일군들의 이 소원은 이루어질수 없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렬차를 타고가시면서도 나라의 농사문제를 두고 마음쓰시며 로고를 바치시였던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신 렬차가 석탕온천역을 향해 한창 달리고있을 때였다.

차창밖으로는 강냉이밭들이 언뜻언뜻 지나가고있었다.

한동안 강냉이밭들을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한 일군에게 고온피해를 받은 면적이 얼마나 되는가고 물으시였다.

그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고온피해를 가시기 위한 대책을 세울데 대하여 강조하시고나서 이번에는 양덕군의 책임일군에게 양덕군에서는 강냉이 정보당소출이 얼마인가고 물으시였다.

그러시고는 도달해야 할 정보당수확고에 대하여 지적해주시고나서 영농방법을 개선하고 과학적인 영농기술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종자혁명을 하여 그만한 량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고 이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가르쳐주신대로 군의 농사를 진행하여왔는가를 돌이켜볼수록 군의 책임일군은 자책감을 금할수 없었다.

영농방법을 개선하고 과학적인 영농기술을 받아들이며 종자혁명을 일으켜야 한다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일관하게 강조하시는 문제였다.

그런데 지난 시기 인해전술에만 매여달리면서 정보당수확고를 높

이기 위한 과학적인 방도를 틀어쥐고 농사를 완강하게 내밀지 못하였던것이다.

그의 속마음을 헤아려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해전술로는 알곡 정보당수확고를 높일수 없다고, 알곡 정보당수확고를 높이자면 과학농사열풍을 일으켜 영농방법을 개선하며 지력을 높이고 비료를 비롯한 영농물자보장사업을 따라세워야 한다고, 기본은 과학적인 영농방법을 받아들이는것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의 모든 농장들에서 당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알곡 정보당수확고를 높이자면 결정적으로 과학적인 영농방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과학적인 영농방법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도 해당 지대의 특성에 맞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잠시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의 책임일군에게 서해안의 벌방지대와 같이 농사에 유리한 지대의 영농방법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우리 나라는 지대마다 자연지리적조건과 기상기후조건이 다 다르다고, 그러므로 알곡 정보당수확고를 높이자면 지대적특성에 맞게 과학적인 영농방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나라의 크고작은 모든 일들을 돌보시는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농사에서 정보당수확고를 높이는 문제를 두고 깊이 관심하시며 그 방도를 세세히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뜻을 잘 받들지 못하여 이렇게 렬차에서까지 농사문제때문에 마음쓰시게 하였다는 자책으로 일군은 얼굴을 들수 없었다.

하지만 그를 탓할 대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과학적인 영

농방법을 받아들이는데서 자기 지대의 특성에 맞는 품종의 종자를 심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그러자면 자기 지대에 맞는 우량품종을 적극 받아들이고 지금 심고있는 품종을 다수확품종으로 개량하여야 한다고, 다시말하여 종자혁명을 하여야 한다고 일깨워주시였다.

무조건 가야 할 길

2018년 8월 한해치고 삼복의 무더위가 제일 기승을 부리던 어느 일요일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날 잠시의 휴식도 뒤로 미루시고 인민들에게 맛좋은 고기와 우유를 먹이시기 위하여 어느한 종합목장을 찾으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량종축산연구소를 비롯한 여러곳을 구체적으로 돌아보시면서 새 품종의 돼지육종사업과 사료용품 재배에서 나서는 문제, 소품종을 개량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축산과학기술을 하루빨리 새로운 높이에 올려세우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러시고나서 요즘 고온현상이 계속되고있는데 오늘도 날씨가 간단치 않게 무덥지만 목장을 돌아보고나니 마음이 거뜬하다고 하시며 자신께서 가는 길은 인민을 위한 길이라고, 이 길은 더우나 추우나 무조건 가야 할 길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특별렬차가 멎어서게 된 사연

언제인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신 렬차는 함경북도 중평지구를 향해 기운차게 달리고있었다.

차창밖으로는 흐뭇하게 펼쳐진 드넓은 전야와 푸른 물결 출렁이는 동해의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고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어떻게 하면 인민들에게 보다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시겠는가 마음쓰시며 사색에 사색을 거듭하고계시였다.

렬차가 어랑군 봉강리를 지날 때였다.

차창밖에 시선을 두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문득 달리는 렬차를 세우도록 하시였다.

뜻밖의 일이라 일군들은 어리둥절해졌다.

영문을 몰라하는 일군에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한 포전을 가리키시며 강냉이포기와 이삭들을 통채로 가져오라고 이르시는것이였다.

달리는 렬차안에서도 특별히 잘된 강냉이포전을 알아보시였던것이다.

강냉이포기를 보아주시며 그 작황을 료해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러르는 일군들은 이름할수 없는 격정에 휩싸였다.

일군들의 뇌리에는 얼마전에 있었던 감동깊은 사실이 되새겨졌다.

그날도 인민들에게 훌륭한 문화정서생활기지를 안겨주시려고 양덕군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문득 어느한 포전옆에서 달리던 차를 멈추게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의아해하는 일군들에게 도로옆에 펼쳐진 포전에서 벼포기를 한대 뽑아오도록 하시고는 친히 무게며 알수

를 가늠해보시였다.

포전의 작황이 산골농사치고는 통장훈을 부를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을 헤아려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아지가 휘게 탐스러운 벼이삭들이 주렁진 포전에서 한동안 만족한 시선을 떼지 못하시였다.

그제서야 일군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왜 달리던 차를 멈춰세우시였는가를 알게 되였다.

잊을수 없는 그날의 화폭이 주마등같이 떠오를수록 일군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맞고보내시는 분분초초는 그대로 인민의 행복을 위한 끝없는 사색과 심혈의 련속이라는것을 다시금 온넋으로 절감하였다.

그해 11월이였다.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자신께서 지난 8월에 렬차를 타고가시다가 어랑군 봉강리에 있는 어느한 농장 남새분조의 강냉이밭옆에 렬차를 세우고 강냉이포기와 이삭들을 가져다 작황을 료해하신데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그 분조에서 올해에 강냉이농사를 잘하였다고 한다고, 그곳 분조장을 올해말에 진행하는 농업부문열성자회의에 참가시키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이르시였다.

순간 일군들이 받아안은 충격은 컸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그처럼 바쁘신 현지지도의 길을 지체하시며 몸소 강냉이작황을 료해하시고 한 분조의 농사정형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였던것이다.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으로서 응당 해야 할 일을 한 이름없는 평범한 분조장의 수고를 두고 깊이 마음쓰시며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웅심깊은 사랑에 일군들은 목이

메여올랐다.

오랜 시간 걸으신 험한 농촌길

언제인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태풍피해정형을 료해하시기 위하여 황해남도의 한 군을 찾으시였다.

이미 군의 농작물피해상태를 보고받으시고 그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까지 세워주시였건만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여 피해상황을 직접 보시기 위해 떠나신 길이였다.

군안의 한 농장에 이르시여 농사문제를 두고 몹시 걱정하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피해가 더 심한 곳들이 있는가에 대하여 알아보시고나서 그곳으로 가자고 하시며 앞장에서 걸음을 옮기시였다.

군의 책임일군은 황황히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앞을 막아나섰다. 이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가시려 하는 포전들은 차가 한번 빠지면 나오지 못하는 수렁논들이였던것이다.

하지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피해상황이 심각하지 않은 논들이나 돌아보자고 현지에 나오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아무리 길이 험하다고 하더라도 가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이윽고 피해가 더 심한 농장에 도착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흙탕길을 걸으시며 태풍피해를 받은 농작물들의 천알질량을 올리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토의해주시였다.

이렇게 오랜 시간 험한 진창길을 걷고걸으시며 태풍피해상황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날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되여서야 걸음을 멈추시였다.

일군들은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농사문제를 두고 그리도 마음쓰시며 인적없는 피해현장에 몸소 첫 자욱을 새기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이시였다.

그 전날에도 인민의 생명재산을 지켜주시려 한밤을 꼬박 지새우시고도 순간의 휴식도 잊으신채 식사마저 건늬시며 이 나라 험한 농촌길우에 헌신의 자욱을 새겨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러르는 일군들은 뜨거운것을 삼키였다.

치하해주신 농업근로자들의 수고

2020년 10월 1일 아침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김화군을 찾아주시였다.

큰물피해로 재난을 당한 김화군 인민들에게 훌륭한 살림집을 안겨주시려 몸소 피해복구건설현장에 오시여 오랜 시간 돌아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이시였다.

그러시고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일군들에게 농사작황을 보러 가자고 하시며 또다시 김화군 초서농장의 포전길에 현지지도의 자욱을 아로새기시였다.

그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농장벌을 둘러보시며 큰물피해를 입은 당시에는 내다볼수 없었던 좋은 작황이 펼쳐졌다고, 포전마다에 피해를 이겨낸 흔적이 력력하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농장원들의 정성이 포기마다 고이고 그들이 바친 성실한 애국의 땀방울과

노력이 있었기에 례년에 없는 피해상황속에서도 이런 결실이 가능한것이라고 하시면서 귀중한 농작물들을 끝까지 지켜낸 농업근로자들의 수고를 높이 치하해주시였다.

감자농사에서도
농촌진흥의 본보기가 되여야 한다

2021년 11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삼지연시 중흥농장을 찾으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농장의 소재지마을을 돌아보시며 시종 만족해하시였다.

어제날의 낡은 살림집들을 모두 허물고 백두산지구의 특성에 맞게 새로 건설한 살림집들은 마치 한폭의 그림같았다.

이곳 일군에게 새 살림집을 받은 농장원들이 좋아하는가를 알아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소재지마을이 멋있다고, 중흥농장 농장원들이 소재지마을이 천지개벽되였다고 하면서 자신께서 올 날만을 기다렸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들으니 자신께서도 기쁘다고, 농장마을을 품들여 꾸린 보람이 있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러르는 농장일군들의 생각은 깊었다.

중흥농장에 펼쳐진 천지개벽, 이것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진것이 아니였다.

언제나 삼지연시인민들을 마음속에 안으시고 백두산기슭에 산간의 리상도시, 사회주의리상촌을 일떠세워주시려 현지를 찾고찾으시며

건설이 최상의 수준에서 진행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헌신과 로고를 떠나 생각할수 없는 자랑찬 결실이였다.

농장의 일군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지금 모든 농장원들이 훌륭한 살림집을 안겨준 당의 은덕에 감자농사를 잘 짓는것으로 보답하기 위해 한사람같이 떨쳐나선데 대하여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중흥농장 농장원들이 당의 은정깊은 사랑을 가슴깊이 새기고 농사일을 더 잘하여 감자풍년을 이룩하겠다고 결의다지고있으면 좋다고 하시며 삼지연시는 감자농사에서도 농촌진흥의 본보기가 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농촌진흥에서 본보기라는것은 농업근로자들의 사상의식과 문화생활에서의 진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새집들이를 하고 새집에서 산다고 하여 농촌진흥의 본보기라고 볼수 없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농업생산의 담당자, 문화생활의 창조자, 향유자들인 농업근로자들이 높은 과학기술로써, 농업생산성과로써 자기들의 준비정도와 사업정형을 시대앞에 검증받고 온 농장이 나라의 본보기적단위로 되여야 농촌진흥의 본보기라고 할수 있다고 하시였다.

농촌진흥의 본보기가 되자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를 새겨주시는 참으로 뜻깊은 말씀이였다.

일군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농장을 농촌진흥의 본보기단위로 꼭 만들겠다고 말씀드리였다.

그의 결의를 들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리당조직들에서

는 서로 호상 높은 경쟁열의를 가지고 자기 지역 농업근로자들의 사상의식과 기술기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주되는 과업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한다고 이르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중흥리가 현대적으로 꾸려진데 못지 않게 농업근로자들을 계발시키고 농촌혁명을 수행하는데서 전국의 앞장에 서기 바란다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특혜조치에 깃든 감동깊은 사연

2021년 12월말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농장들의 경제적토대를 보강해주기 위한 중요한 대책의 일환으로서 협동농장(당시)들에서 국가에 상환하지 못한 거액의 대부금을 전부 면제할데 대한 특혜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이 소식은 온 나라에 크나큰 감격의 파도를 일으켰다.

실로 그것은 농업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고 모든 농촌을 부유하고 살기 좋고 문명한 사회주의락원으로 전변시켜 인민들의 세기적숙망을 앞당겨 실현해나가실 웅지를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만이 내리실수 있는 대용단이였다.

국가가 막대한 손해를 보면서도 농촌에 유리한 재정적, 물질적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취해진 중대조치에 접한 온 나라 농업근로자들과 전체 인민들은 끓어오르는 격정을 금치 못해하면서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켜나갈 불같은 열의에 충만되여있었다.

그러나 그때 신장협동농장(당시)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아쉬움을 금할수 없었다. 한것은 특혜조치가 발표되기 며칠전에 이미 국가에서 받은 대부금을 상환하였기때문이였다.

어떤 농장원들은 남들이 받는 특혜도 받지 못하였다고 투정도 하고 또 농장이 언제면 허리를 펴겠는가고 걱정도 하였다.

그들의 목소리는 농장일군들의 마음을 일시나마 무겁게 하였다.

그러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어깨우에 덧쌓이는 무거운 짐을 천만분의 일이나마 덜어드린다면 더 바랄것이 있겠는가 하고 생각하니 일군들의 마음은 한결 개운해졌다.

하지만 이들은 얼마나 웅심깊고 정깊은 손길이 자기들에게 와닿고있는지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가 있은지 며칠이 지난 어느날이였다.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협동농장들이 국가로부터 대부를 받고 상환하지 못하고있는 자금을 다 면제할데 대한 특혜조치를 취하였는데 이 조치를 취하기 며칠전에 상환한 자금은 돌려주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함경북도 연사군 신장협동농장에서 농장에 있는 자금을 다 모아 국가로부터 대부받았던 자금을 지난해 12월 24일에 상환하고 상당히 아쉬워하고있는데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그 자금을 농장에 돌려주어야 하겠다고 하시였다.

마디마디에 농업근로자들에 대한 다심하고 사려깊은 사랑과 정이

차넘치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가르치심을 받아안는 순간 일군들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후 해당 일군들로부터 이 꿈같은 소식을 전달받은 신장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흐르는 눈물을 걷잡지 못하였다.

그날 감격의 도가니로 화한 신장리의 집집마다에서는 밤늦도록 불이 꺼질줄 몰랐다.

나라의 크고작은 천만가지 일을 다 돌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마음속에 자기 농장도 소중히 자리잡고있다는 생각, 평양에서 수천리 먼곳에 떨어져있는 이름없는 농장의 살림살이형편까지 속속들이 헤아려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하늘같은 은덕에 대한 고마움, 농사를 더 잘 지어 그이의 사랑과 믿음에 꼭 보답해야 한다는 불같은 일념…

산촌의 밤은 소리없이 깊어갔지만 끝없이 갈마드는 상념속에 신장리사람들은 쉬이 잠을 이룰수 없었다.

신장리 농업근로자들을 울린 특혜조치, 여기에는 농업근로자들의 수고를 깊이 헤아려주시며 그들에게 누구나 부러워하는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하루빨리 안겨주시려는 위대한 어버이의 열화같은 정이 응축되여있었다.

그후 신장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강심을 먹고 농사일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알찬 결실을 이룩하였다.

이것은 비단 신장리에서만 펼쳐진 감동깊은 화폭이 아니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대해같은 사랑과 특혜조치에 의해 전국의 수백개의 농장들에서도 상환금을 되돌려받게 되였으니 온 나라 방방

곡곡에서는 격정의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

황남의 새 전설을 낳은 250여일

2022년 9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수공업부문에서 농업부문에 보내줄 5 500대의 농기계생산을 끝냈다는 자랑찬 보고를 받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로부터 농기계생산과업을 받아안은지 불과 250여일, 그 나날을 군수로동계급의 결사관철의 투쟁으로만 이야기할수 없다.

나라의 제일 큰 농업도이며 기본곡창지대인 황해남도를 중시하시며 황남인민들에게 자자손손 길이 전할 크나큰 은정과 배려를 거듭 베풀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하늘같은 사랑을 떠나 생각할수 없는 고귀한 결실인것이다.

돌이켜보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의 연단에서 나라의 제일 큰 농업도인 황해남도를 중시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5개년계획기간에 당적으로, 국가적으로 황해남도에 힘을 집중하여 나라의 농업생산에서 기치를 들고나가도록 할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실 때 사람들 누구나 사회주의농촌의 휘황한 발전을 확신하며 가슴설레였다.

나라의 천사만사로 분분초초가 천금같이 귀중하신 속에서도 농기계생산과 관련하여 군수공업부문에서 올리는 문건들을 모두 보아주시고 온갖 대책을 취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이시였다.

2022년 4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하나의 문건을 오래도록 보고계시였다. 농기계생산과 관련하여 해당 부문에서 올린 문건이였다.

뜻깊은 4월의 명절과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을 경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 어느때보다 분망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이시였다.

하건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있어서 농기계생산은 잠시도 미룰수 없고 소홀히 할수 없는 문제였기에 귀중한 시간을 바쳐가시였던것이다.

농기계품평회를 진행하고 우수하게 평가된 농기계들에 대한 심의를 거쳐 설계도면을 넘겨준 사실과 그에 기초하여 생산된 농기계들에 대한 도입시험을 진행한 사실, 도입시험을 통하여 제기된 황해남도일군들의 의견과 관련한 문제…

시제품으로 생산한 농기계들에 대한 사진들도 보아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농기계도입시험과정에 제기된 부족점들을 시급히 대책하고 계렬생산을 힘있게 다그치도록 하시였다.

그때뿐이 아니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농기계들의 도입시험과정에 황해남도의 일군들속에서 제기된 의견대로 소형벼수확기와 종합토양관리기계의 대수를 늘이도록 하여주시였으며 농기계들을 계렬생산하는데 필요한 자재들을 하루빨리 보장할수 있도록 수송대책까지 세워주시였다.

국가의 부흥발전과 인민의 복리증진을 이룩해나가는데서 농촌문제해결을 중차대한 혁명과업으로 제기하시고 황해남도인민들이 변혁적실체의 첫 주인공들로 되게 하시려는 웅대한 구상과 불같은 사랑을

지니고계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만이 취하실수 있는 가슴뜨거운 조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높은 뜻을 받들고 군수공업부문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결사의 투쟁을 벌려 기적을 창조하였다.

단 몇달사이에 5 500대에 달하는 이동식벼종합탈곡기, 소형벼수확기, 강냉이종합탈곡기, 종합토양관리기계를 훌륭히 생산해냄으로써 당의 결심은 곧 변혁의 실체라는것을 실증하였던것이다.

농기계생산을 끝냈다는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번에 군수공업부문에서 농업부문을 힘있게 지원할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황해남도에 보내줄 농기계를 5 500대 생산하였다고, 군수공업부문에서 정말 큰일을 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한없는 기쁨에 넘치시여 한해 농사를 결정하는 관건적인 시기에 맞게 5 500대의 농기계들을 모두 하루빨리 황해남도에 내려보내도록 또다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그리하여 해주광장과 주변도로를 짝 메우며 조선식의 능률높은 농기계들이 늘어선 황남의 농기계열병식이 펼쳐졌다.

농기계들을 줄지어 세운 부지면적만 하여도 축구경기장 8개의 면적에 달하는 6만여㎡, 한줄로 세운다면 무려 50리에 달한다고 하였다.

위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이어진 250여일의 낮과 밤이 드디여 2022년의 또 하나의 전설을 황해남도에 낳은것이다.

현지에서 지도하신
오계농장과 월랑농장의 피해복구사업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강원도 안변군 오계농장과 월랑농장을 돌아보시며 태풍에 의한 농작물피해를 가시기 위한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피해지역 논들을 돌아보시면서 피해복구실태에 대한 종합보고를 받으시고 피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해당한 농업기술적대책들을 세운 정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피해흔적을 말끔히 털어버리고 풍요한 가을을 기약하며 황금빛을 기다리고있는 농장벌을 바라보시며 이 농장벌에도 우리 군인들의 충성의 구슬땀이 뿌려져있다고, 우리 군인들의 애국충심에 의해 자연재해를 입었던 이곳에도 황금이삭이 설레이는 바다가 펼쳐지게 될것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침수포전들의 농작물생육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조선인민군 공군부대의 직승기와 경수송기들을 동원하도록 조치를 취하시고 농약살포사업을 몸소 조직지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중앙이 우리 군인들을 태풍피해복구사업에로 조직동원시킨것은 결코 200정보의 피해면적이 많아서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싸우는 전선에서 한치의 땅도 적들에게 내여줄수 없듯이 인민생활과 직결된 농업전선에서 단 한평의 땅도 자연의 광란으로부터 빼앗길수 없기에 그 영예로운 임무를 응당 우리 군대에게 맡길것을 결심하였다고, 우리 군대는 인민의 복리를 지키는데서 한치의 양보도 모르는 진정한 인민의 충복이 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침수피해를 받은 해당 농장들에서 신심을 가지고 농업생산에 적극 떨쳐일어나 지대적특성과 자연기후조건에 맞게 농작물생육후반기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며 올해 농사를 안전하게 결속하기 위한데 모든 힘을 총집중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농업부문의 전체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 다시한번 총궐기하여 재해성기후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작물의 안전한 생육을 보장하기 위한 비배관리를 과학적으로 알심있게 진행함으로써 전국의 그 어느 농장에서나 다수확의 성과를 이룩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 국가적으로 피해방지대책과 위기대응능력을 더욱 철저히 갖출데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시면서 특히 농경지와 농작물들이 자연피해를 받지 않도록 시설물정비보강사업을 비롯한 전반적인 자연재해방지능력을 후열조사하고 취약한 고리들을 찾아 신속하고 적시적인 대책을 따라세움으로써 그 어떤 재해성기후에도 주동적으로 대처해나갈수 있게 확고히 준비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인민군대의 애국적인 헌신으로 자기의 새 모습을 드러낸 안변군 오계농장과 월랑농장의 전경을 둘러보시며 자연의 피해를 가셔낸 이 지대에 오곡백과 무르익는 풍요한 가을과 행복이 깃들기 바란다고 따뜻이 축복해주시였다.

온실남새생산의
새로운 령역과 경지가 개척되였다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2024년 3월 16일 강동종합온실 준공 및 조업식에 참석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강동종합온실을 훌륭히 일떠세워 조선로동당의 숙원을 또 하나 풀어준 인민군장병들을 고무하는 뜻깊은 격려사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몸소 준공 및 조업테프를 끊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각이한 류형의 온실들을 돌아보시며 조선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온실남새재배를 위한 선진적인 기술장치들과 그 경제적효과성, 기술적특성 등을 상세히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세계적인 안목을 가지고 자체의 힘과 기술로 운영하게 될 고도로 집약화, 최적화, 지능화된 생산공정들을 보시면서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맛좋고 영양가높은 갖가지 남새품종들의 생육환경을 과학적으로, 균형적으로 보장해줄뿐 아니라 일반재배방식에 비하여 획기적인 생산성을 담보하는 부지절약형, 로력절약형의 종합온실완공으로 온실남새생산의 새로운 령역과 경지가 개척되였다고 하시면서 강동지구의 눈부신 변혁상은 자력, 자존의 기상속에 더욱 강해지는 우리식 창조투쟁의 보람찬 축도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생활향상을 추동하는 또 하나의 거대한 동력으로 되는 종합온실건설에서의 자부할만한 성과와 경험을

확대하는것은 사회주의 새 생활을 더욱 풍요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성스러운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전국적범위에서 대규모의 현대적인 온실건설을 다그치며 남새생산을 창조형산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들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강동종합온실에서 보람찬 로동생활을 향유하게 될 근로자들을 위하여 건설한 살림집들을 기쁨속에 돌아보시면서 그들의 행복한 앞날을 축복하시였다.

몸소 세여보신 벼이삭알수

2024년 8월 25일이였다. 성천군을 떠나 찌는듯한 무더위에 달아오른 철길을 따라 평양으로 달리는 렬차가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신 전용렬차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날부터 련 이틀째 여러 지방공업공장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시공의 질적수준을 제고하도록 거듭 당부하시고 우리당 지방발전정책에 필수3대건설과제를 추가할데 대한 새로운 중대결단도 천명하시고 돌아오시는 길이였다.

이제 온 나라 인민들이 또 얼마나 커다란 환희에 휩싸이겠는가 하는 생각에 흥분을 금치 못하면서도 일군들은 그 거창한 결실들을 안아오시기 위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지금보다 두배, 세배가 넘는 중하를 더 걸머지셔야 한다는 사실앞에 마음 무거워짐을 금할수 없었다.

렬차안에서만이라도 잠시나마 쉬시였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누구의 가슴에서나 세차게 고패치고있었다.

허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그 시각에도 수행한 일군들에게 여러 부문 사업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고계시였다.

렬차가 한창 기운차게 달리고있을 때였다. 차창으로는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전야가 련이어 펼쳐지고있었다. 하늘의 변덕을 끝끝내 이겨낸 벼이삭들이 탐스럽게 여물어가는 광경을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문득 일군들에게 렬차를 멈춰세우고 철길옆 논에서 벼이삭 몇대를 가져올데 대하여 이르시였다. 잠시의 휴식도 없이 늘 깊은 심혈을 기울이시는 농사문제에로 또다시 사색의 세계를 이으신것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삭이 여물어가는 논밭옆을 지나실 때마다 길을 멈추시고 농사작황을 료해하신것은 이미 여러 차례나 되였다. 어느해인가 함경북도인민들에게 대규모온실농장을 일떠세워주시려 현지로 가시던 길에 달리던 전용렬차를 세우시고 탐스러운 이삭들이 달린 강냉이포기를 통채로 가져오도록 하시여 농사작황을 료해하시였고 또 언젠가는 양덕군에 대한 현지지도길을 이어가시다가 도로옆에 펼쳐진 논의 벼이삭을 손수 드시고 그 알수와 무게를 가늠해보신적도 있었다. 련포온실농장 준공식장으로 가시던 길에 차를 세우시고 일군들과 함께 어느한 농장포전의 벼이삭알수를 친히 세여보시던 못잊을 사연, 침수피해를 받은 안변군과 안석간석지의 벼생육상태를 두고 못내 가슴아파하시며 력사에 불멸할 헌신의 자욱을 새기시였다.

얼마후 이삭당 벼알이 보통 150알이상이고 지어 200알이 넘는 이삭들도 있다는 일군들의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였다.

해마다 이렇게 나라의 모든 지역들에서 농사가 잘되면 식량문제를 반드시 풀수 있다는 확신을 피력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러르며 일군들도 싱글벙글 기쁨에 겨운 웃음을 피워올렸다.

이윽고 다시 출발한 렬차가 속력을 내며 얼마간 달리였을 때였다.

차창으로 흘러가는 어느한 논에 시선을 보내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여기가 침수피해를 받았던 논이 아닌가고 누구에게라없이 물으시는것이였다.

일군들의 눈길이 일제히 차창밖으로 향하였다. 그러고보니 벼이삭까지 큰물에 잠기였던 흔적이 눈에 띄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침수피해를 받은 이곳 논의 벼작황도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렬차를 다시 멈춰세우도록 하시였다. 이미 속력을 내며 달리고있던지라 적지 않은 거리를 지나서야 멈춰선 렬차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가리키신 논이 있는 곳으로 서서히 후진하기 시작하였다.

(농사문제를 두고 얼마나 마음을 깊이 쓰시였으면 련거퍼 두번이나 달리던 렬차를 멈춰세우시랴.)

잠시후 렬차에서 내린 일군들은 논에 들어가 벼이삭을 몇대씩 뽑아가지고 돌아왔다.

그들의 손에 들려있는 벼이삭들을 잠시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벼이삭알수가 얼마나 되는가 세여보자고 하시면서 한 일군으로부터 벼이삭을 넘겨받으시였다.

여기저기에서 입속으로 벼이삭알수를 세여보는 수행일군들의 낮

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자애로운 시선으로 그들의 모습을 일별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도 나직한 음성으로 손에 드신 벼이삭의 알수를 세여보시였다.

사실 한이삭에 달린 벼알이라야 다해서 손 한줌에도 차기 힘든것이다.

그러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거기에서 헤아려보시는것은 결코 벼알수와 무게만이 아니였다.

바로 그 한알한알의 벼알을 세여보시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제 온 한해 인민들이 마주할 살림살이형편을 심중에 그려보시고 알곡생산목표의 수행여부가 인민경제전반에 미치게 될 영향까지 가늠해보시는것이였다.

문건의 글줄이 아닌 실체로써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농사문제해결을 위해 책정, 포치한 사업들의 집행정형을 자상히 헤아리시고 앞으로의 일감들도 예단성있게 구상하시는것이였다.

어느덧 일군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저저마다 자기들이 세여본 벼이삭알수를 말씀올리였다. 조금씩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한이삭당 벼알수는 평균 140~150알이였다.

물에 잠겼던 논치고는 벼의 생육상태가 생각했던것보다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러르며 일군들모두가 다행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때였다. 이제 태풍피해만 없으면 되겠는데라고 나직이 뇌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절절한 음성이 일군들의 귀전에 들려왔다.

순간 일군들은 온몸을 휩싸안는 세찬 격정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온 한해 농사문제때문에 바치신 로고가 그 얼마인데 황금이삭 무르익는 이 계절까지 근심을 못놓으시고 이처럼 크나큰 심혈을 바치신단 말입니까.)

농사준비로부터 영농물자보장사업, 전국가적힘을 농사에 총집중하는 문제와 관개체계완비문제, 농기계생산문제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료해하시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몸소 취해주신 강력한 조치들과 아로새기신 불멸의 자욱들은 얼마이고 가물이 들세라, 큰물이 질세라 봄내여름내 무거운 근심을 안으시고 보내신 낮과 밤들은 그 얼마인지 모른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기울이시는 끝없는 사색과 심혈이 정녕 해빛이 되고 자양이 되고 그 어떤 광풍에도 끄떡없는 버팀목이 되여 온 나라 전야에 황금이삭 설레이는 가을이 오고있는것이다.

농업근로자들이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려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식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전진시키기 위한 간고한 투쟁행정에서 누구보다 고생을 많이 한 우리 농업근로자들이 부유하고 문명한 사회주의리상향에서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농사의 주인은 농민들이며 농업생산장성의 열쇠는 농업근로자들이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데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언제나 농업근로자들에게 뜨거운 사랑과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며 그들이 농사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삼복의 무더위와 장마비, 한겨울의 맵짠 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이어가시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언제나 농업근로자들을 먼저 생각하시며 그들에게 주실수 있는 사랑과 믿음을 다 베풀어주고계신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맡기고 가신 인민을 수령님과 장군님의 영상으로 정히 새겨안으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찾고 찾으시는 수많은 농장들과 그 자욱마다에 꽃핀 사랑과 믿음의 이야기들은 만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뜨거운 사랑과 크나큰 믿음에 받들려 조선의 농업근로자들은 존엄높고 긍지높은 삶과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었다.

사랑의 축복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천지개벽된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당시)을 찾으신 2015년 6월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업수첩에 빈봉투농장으로 올라있던 이 농장이 희한한 별천지로, 농장도시로 전변된것이 너무도 기쁘시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시종 환하게 웃으시였다.

문화회관이며 장천원을 비롯한 농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어 소층살림집들에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도로옆의 첫 현관으로 들어서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1층의 살림집내부를 둘러보시고 살림방의 옷함문도 열어보시며 만족해하시였다. 그리고 부엌의 가시대앞으로 다가가시여 수도꼭지를 틀어보시면서는 가시대의 턱에 물방울이 떨어지는것을 보시고 이 수도꼭지시공을 잘못하였다고, 수도꼭지가 이렇게 바투 붙으면 안된다고 일깨워주기도 하시였다.

농장원들에게 희한한 살림집을 마련해주시고도 친정아버지의 심정으로 자그마한 불편이라도 있을세라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러르는 일군들은 뜨거운 격정에 휩싸였다.

농장원들을 생각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마음은 끝이 없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살림방들을 다 돌아보시고나서 농장의 일군에게 입사를 언제 하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다음날에 입

사한다는 대답을 들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래일 입사하고 첫날밤 잠을 잘 자라고 축복의 말씀까지 하여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이렇듯 따뜻한 축복속에 다음날 농장원들은 새 살림집들에 행복의 보금자리를 펴게 되였다.

깊은 밤 내려보내주신 문건

2017년 9월 어느날 과일군을 찾으시여 과수밭들을 돌아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심중은 뜨거우시였다.

혹심한 자연재해를 강인하게 극복하고 흐뭇한 과일대풍을 안아온 이곳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당에 대한 깨끗한 충성심, 불타는 애국심을 한그루한그루의 과일나무마다에서 헤아려보시였던것이다.

수천정보의 과수밭을 다 돌아보고싶은 심정이라고 하시며 오래도록 과일군을 돌아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과일군은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온 나라의 전렬에 내세워야 할 전형단위, 모범단위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감사를 주시고 사랑의 특별상금까지 배려해주시는 하늘같은 은덕을 베풀어주시였다.

응당 할 일을 한 자기들을 그처럼 높은 영광의 단상에 올려세워주시고도 못다 주신 사랑이 있으신듯 또다시 사랑과 정을 부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러르며 과일군일군들은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고 또 드리였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이룩한 성과를 두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미처 다 알수 없었다.

바로 그날 밤 자정이 깊어갈무렵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과일군에 보내줄 특별상금과 관련한 문건을 비준하여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비준하여주신 문건을 받아안은 해당 부문 일군들은 뜨거운 격정에 휩싸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말씀을 받들고 일군들은 과일군에 특별상금을 보내주는 문제와 관련한 문건을 즉시 작성하여 올리였다. 그러면서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렇게 빨리 문건을 내려보내주실줄 생각지 못하였던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들에게 더 많은 과일을 안겨주게 된것이 그리도 기쁘시여, 과일대풍을 안아온 과일군안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에게 한시바삐 사랑과 정을 부어주고싶으신 불같은 마음으로 깊은 밤 문건을 내려보내주시였던것이다.

농업연구사들이 받아안은 은정

2017년 가을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어느한 농장을 찾아주시였다.

한해전 농장을 찾으시여 연구소를 첨단농업과학연구소답게 새로 건설하며 현대적인 온실을 또 하나 일떠세우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 주변농장을 시험농장으로 전환시켜주시였을뿐만 아니라 끌끌한 제대군인들을 파견해주신것을 비롯하여 농장의 력사와 더불어 길이 전해갈 하늘같은 은덕을 베풀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이시였다.

이날 농장에 꾸려진 연구소에 들리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농장에서 지금까지 연구하여 시험재배에 성공한 갖가지 농작물을 전시해놓았는데 정말 볼만하다고 하시면서 이 농장에는 내놓고 자랑할만한 성과들이 대단히 많다고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커다란 기쁨속에 연구소를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문득 동행하던 농장일군에게 이곳 연구사들의 살림집문제에 대하여 물으시였다.

사실 그들중에는 소환되여온지 얼마 되지 않다보니 독신생활을 하고있는 연구사들이 있었다.

일군으로부터 이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그럼 집을 지어주어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동행하던 해당 부문 일군이 필요되는 살림집세대수에 대하여 말씀드리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인들의 생각을 들어보시려는듯 농장일군에게로 정겨운 시선을 보내시였다.

잠시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연구사들이 과학연구사업에 전심전력할수 있게 미래과학자거리의 살림집 20세대를 선물로 주겠다고 하시며 미래과학자거리의 살림집을 받으면 과학연구기관들과의 과학기술협의를 하고 자녀들을 공부시키는데도 편리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연구사들의 연구성과에 따라 살림집을 배정하여주겠다는 농장일군의 의견도 긍정해주시였다.

이윽하여 연구소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미래과학자거리에 연구사들의 살림집을 해결해주면 출퇴근이 걸리겠다고 걱정하시였다.

순간 농장일군은 뜨거운것이 뭉클 솟구쳐오르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북받치는 격정을 애써 누르는 일군을 바라보시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연구사들의 출퇴근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뻐스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동행한 일군들에게 농업부문 과학자들에 대한 대우를 잘해주어야 한다고, 농업전선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 최전방이며 농업전선에서도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농업부문 과학자들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그로부터 2년후인 2019년 가을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농장을 또다시 찾아주시였다.

농장일군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연구사들의 한결같은 심정을 담아 미래과학자거리에서 연구사들이 행복하게 살고있다고, 그들이 고마움의 편지를 몇번이고 올리고싶었지만 성과가 적어 올리지 못하였다고 말씀올리였다.

그러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면서 됐다고, 연구사업만 잘하라고 하시면서 연구사들에게 자신의 인사를 전해달라고 정을 담아 말씀하시였다.

한밤을 새고싶다고

언제인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중평온실농장을 돌아보시였다.

온실건설과 운영에서 나서는 많은 문제들에 가르치심을 주시느라 어느덧 사위가 어두워지기 시작했건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농

장원들이 새살림을 펴게 될 농장마을로 향하시였다.

새로 일떠선 살림집들을 빨리 보고싶으신듯 앞장서 소층살림집에 이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바깥벽에 붙인 타일들을 손수 쓸어보시고 여러 살림집들도 구석구석 돌아보시며 보라고, 군인들이 얼마나 잘했는가고 만족해하시였다.

어둠질은 공원의 돌의자에 스스럼없이 앉으시여 새로 일떠선 살림집들을 정겹게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얼마나 좋은 밤인가고, 오늘같은 좋은 밤이 한달에 한번씩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자신께서는 평양시에 번듯한 거리가 하나 늘어나는것보다 지방에 중평온실농장과 같은 창조물이 일떠서는것을 볼 때가 기분이 더 좋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황홀한 새집에서 웃음꽃을 피워올리는 북방의 농업근로자들의 행복넘친 모습을 그려보시는듯 너무도 기쁘시여 오늘은 여기서 이 한밤을 새고싶다고 하시며 자리를 뜨지 못하시였다.

대청리농장원들에게 하신 인사

2020년 8월 7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친히 운전대를 잡으시고 큰물이 채 찌지 않은 은파군 대청리로 야전차를 달리시였다.

큰물이 난 때부터 지금껏 누구도 밟아보지 못한 험한 진창길을 맨 앞장에서 헤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따라설수록 일군들은

격정에 목이 꽉 메여왔다.

전날 몸소 은파군당의 책임일군에게 전화를 거시여 인민들의 생명안전, 생활상문제부터 제일먼저 물어주시고 그달음으로 현지에까지 나오시여 큰물피해상황을 료해하시며 일찌기 있어본적 없는 사랑의 특별조치들을 취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이시였다.

그러시고도 피해지역 인민들에 대한 걱정으로 한밤을 꼬박 지새우시고 정녕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여 또다시 그 험한 곳을 찾아주시였던것이다.

피해를 많이 입은 곳들에 한번 가보자고, 아무리 길이 험하여도 피해상황이 어떤지 직접 돌아보아야 하겠다고 결연히 말씀하시며 발목까지 잠기는 감탕길도 주저없이 걸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이시였다.

이렇듯 눈물겨운 헌신의 자욱자욱을 새기시며 수재민들의 생활안정과 피해복구를 위한 은정어린 조치를 거듭 취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귀로에 오르시였을 때였다.

폭우에 의해 여기저기 물웅뎅이들이 나있는 곳을 헤쳐나가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야전차는 그만 길섶의 논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게 되였다.

야전차는 심하게 기울어지고 차바퀴는 거듭 공회전하였으며 그럴수록 차체는 더욱 지쳐내리였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10여명의 농장원들이 어푸러질듯 달려왔다.

그렇게 달려와서는 온통 흙탕물로 얼룩진 야전차를 보고는 너무도 억이 막혀 울음조차 터치지 못하고 그대로 진창속에 몸을 던졌다.

북받치는 오열을 삼키며 야전차를 힘껏 떠밀었다.

한참이나 신고해서야 야전차는 빠져나왔다.

그제서야 다소 마음을 진정한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시선을 마주하며 안도의 숨을 내쉬였다.

바로 그때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차문을 열고 내리시더니 정말 수고들하였다고, 고맙다고 하시며 몸소 인사를 하시는것이였다.

순간 농장원들은 어쩔바를 몰라하였다.

너무도 뜻밖이고 꿈만같은 일이여서 일순간 굳어졌던 농장원들은 북받치는 감격을 터치며 《만세!》의 환호를 올리였다.

얼마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신 야전차는 서서히 전진하기 시작하였다.

목청껏 환호를 올리며 그냥 야전차를 따라서는 대청리농장원들을 두고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으시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몇번이나 차를 멈춰세우시였다.

격정의 눈물로 바래워드리는 농장원들의 모습을 뒤에 남기고 야전차를 달리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잠시후 가시던 길을 또다시 멈추시고 은파군당위원장(당시)에게 절절하신 음성으로 오늘 차가 진창에 빠지다보니 인민들을 도와주러 왔다가 오히려 신세를 지고 간다고 말씀하시였다.

중요한 국책으로 내세우신 농촌건설

2020년 9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 소재지마을을 찾아주시였다.

불과 몇달만에 피해흔적을 말끔히 가시고 몰라보게 전변된 강북리를 기쁨속에 돌아보시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사회주의농촌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데 대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아담하게 꾸려진 소층살림집을 돌아보실 때였다.

어느한 살림집에 들리시여 몸소 부억의 가마뚜껑도 열어보시고 살림방도 일일이 돌아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일군들에게 사회주의농촌건설을 중요한 국책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순간 일군들은 이름할수 없는 격정에 휩싸였다.

농촌을 하루빨리 사회주의리상촌으로 전변시키시려 그렇듯 마음쓰시며 현지지도의 길에서 귀중한 농촌건설방향을 밝혀주시는것이였다.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사회주의농촌혁명강령을 완수하기 위한 당면계획과 년차별계획, 전망계획을 실현가능성이 있게 정확히 세우고 그것을 집행하기 위한 투쟁에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농업근로자들을 개명시키고 정책적으로 무장시키며 우리의 농촌을 현대적기술과 현대문명을 겸비한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농촌으로 전변시키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전에 바라시던 념원이였으며 우리의 사회주의농촌혁명강령이라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대로 농촌에서 3대혁명의 기치를 계속 들고나가 농업근로자들을 로동계급화하여야 한다고, 우리는 농업근로자들을 끝까지 이끌고 공산주의사회에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

였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일군들에게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농촌특유의 문화발전을 가속화하여 사회주의농촌의 면모를 계속 일신시켜나가야 한다고, 그렇게 하여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극력 줄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현지에서 밝혀주신 지방건설의 기본핵

2020년 10월 1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머나먼 길을 달리시여 김화군피해복구건설현장을 찾으시였다.

이곳에서는 피해지역 인민들에게 한시바삐 보다 훌륭한 살림집을 안겨주시려고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뜨거운 사랑에 떠받들려 새 살림집들이 일떠서고있었다.

이날 건설현장을 돌아보시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의 책임일군에게 군내인민들이 좋아하는가고 거듭 문의하시고 그들모두가 좋아한다니 더 바랄것이 없다고 진정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기쁨을 금치 못하시며 살림집들을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피해복구지역에 새로 건설한 살림집들을 보면서 한가지 아쉬운것은 살림집설계를 일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일률적으로 한것이라고, 지역의 우수한 문화와 지대적특성, 인민들의 편의와 요구를 보장할수 있게 하는 원칙에서 독창성이 부여되고 주변환경과의 예술적조화성, 다양성이 적절히 결합되게 하였더라면 더 좋았을것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방의 살림집들을 일률적으로 꼭같이 건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이것은 지방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정책적문제이라고 하시였다.

부단한 창조와 혁신, 건설에서의 비반복성에 대하여 다시금 새겨주시는 가르치심이였다.

이윽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나라의 건설은 끊임없이 발전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지방건설에서 건물들을 비반복적으로,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친환경적으로 건설하는것을 주요구성내용으로, 기본핵으로 내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러르며 일군들은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천되는 오늘의 시대의 요구에 맞게 지방건설에서도 모든것을 새롭게 창조하도록 이끌어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의 심혈의 세계가 뜨겁게 어려와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일군들에게 한마을에서도 건물의 다양성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농촌살림집을 총면적이 몇㎡ 되여야 한다, 터밭은 몇평 되여야 한다는것과 같은 법적요구와 규정에 준하여 건설하도록 하면서도 단층과 소층건물을 배합하고 다락식건물도 지으면서 다양하게 짓도록 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농촌건설에서 제1순위

2021년 11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삼지연시건설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멀고 험한 길을 달려 삼지연시 포태동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포태지구에 살림집이 모두 몇세대인가를 료해하시고나서 살림집 한세대에 세멘트가 얼마 들었는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였다.

그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일군들에게 리상을 높이 세워야 한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우리는 현대문명을 창조하겠다는 리상과 포부를 가지고 계속 돌진하여야 한다고 이르시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일군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어떤 숭고한 뜻을 지니고계시는가를 다는 알지 못했다.

일군들과 함께 지난 시기 농촌살림집을 건설하면서 한개 리에서 소비한 세멘트량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따져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은 사회주의농촌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농업근로자들에게 현대적인 살림집을 마련해주는것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가 농업근로자들에게 현대적인 살림집을 마련해주는것은 사진을 찍어 달력에 내고 선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우리 당은 농업근로자들의 생활환경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해주는것을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중요한 고리로 보고있다고, 생활환경이 개선되면 농업근로자들의 사상의식에서 변화가 오게 되며 결과적으로는 농업생산에서 그 성과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일군들에게 우리는 농업근로자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것을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중을 높이고 연유와 비료 같은 영농물자를 보장하는 실무적인 문제로가 아니라 그들을 개명

시켜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농업근로자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것을 이처럼 중요한 문제로 보기때문에 농촌건설을 힘있게 내밀자고 하는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일군들에게 농촌건설에서 제1순위는 농촌살림집건설이라고, 농촌살림집건설을 내밀어 농촌의 문화생활환경을 바꾸는것은 우리가 선차적으로 내세우고있는 과업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이날 사회주의문화농촌에 펼쳐질 찬란한 래일을 그려보시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모든 시, 군들의 농촌살림집을 삼지연시 포태동의 살림집수준으로 꾸리면 농업근로자들이 먼저 공산주의사회에로 가게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전국의 모든 농촌마을들이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전변되게 될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겨나가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 아니다

2022년 9월 9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농촌살림집건설에서 중시하여야 할 문제들에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일군들에게 농촌건설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나무가 잘 자라자면 굵은 뿌리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잔뿌리가 더 튼튼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참으로 깊은 의미를 담아 하시는 말씀이였다.

계속하시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검덕지구에 살림집을 건설하는것처럼 눈에 잘 뜨이지 않는 산골막바지농장, 제일 못사는 농장에서부터 살림집을 건설해나가야 한다고, 그렇게 하여 산골막바지에서부터 로동당만세소리가 울려나오게 하여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산골막바지에서부터 로동당만세소리가 울려나오게 하여야 한다!

멀리 있는 고장일수록, 어렵고 힘든 지역 인민들일수록 자신의 가까이에 꼭 품어안으시고 정을 부어주며 행복을 꽃피워주시려는 자애로운 어버이의 마음속진정은 일군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러르며 일군들은 나라의 모든 농촌마을을 사회주의문명이 꽃피는 현대적인 농촌마을로 전변시키는 살림집건설을 어디서부터 먼저 하여야 하는가를 가슴깊이 새기였다.

주민구조 및 대피사업을 직접 지휘하시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2024년 7월 28일 평안북도 신의주시와 의주군의 큰물피해현장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집중폭우에 의한 재해현장과 재해예측지역의 주민구조 및 대피사업을 직접 지휘하시였다.

2024년 7월 27일 조선의 북부국경지대와 중국측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압록강의 수위가 위험계선을 훨씬 넘어섬으로써 평안북도 신의주시와 의주군의 여러 섬지역들에서 5 000여명의 주민들이 침수위험구역에 고립되는 엄중한 위기가 조성되였다.

위기정황이 발생한 즉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직접 포치하신

데 따라 당과 정부, 군부의 지도간부들이 현지에 급파되였으며 조선인민군 공군 직승기들과 해군과 국경경비대 해상경비편대의 각종 구조정들이 주민구출전투에 신속히 투입되였다.

물이 범람하는 험한 길을 달려 구조전투가 벌어지고있는 비행기지에 도착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휘관들로부터 침수위험구역의 주민상태와 구조전투상황을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10여대에 달하는 직승기들이 무려 20여회씩 련속적인 왕복비행을 하면서 불리한 일기조건과 긴급한 상황에서 주민들을 구출하는 모습을 전기간 지켜보시며 전투를 직접 지도하시였다.

구출된 인민들은 너무도 뜻밖에 비바람세찬 비행장에서 자기들을 기다려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뵙고 끝없는 감격과 고마움의 눈물을 흘리며 격정의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구조된 주민들이 사소한 불편도 느끼지 않도록 지역 당조직과 정권기관이 모든 가능성을 다하여 의무적인 방조를 제공하라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비행부대 지휘관들과 비행사들과 담화를 나누시면서 피해지역상황을 청취하기도 하시고 한사람도 빠짐없이 무조건 구조할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시였으며 주민구출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도 몇차례나 정찰비행을 재조직하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4 200여명의 주민들을 성과적으로 무사구조한 비행사들의 수고를 격려하시고 일일이 손을 잡아주시면서 우리 비행사들이 반나절 남짓한 기간에 이렇게 많은 침수지역 인민들

을 직승기로 구출한것은 그야말로 믿기 어려운 기적이고 공중구조전투의 산모범이라고, 이런 훌륭한 인민의 공군무력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의 자랑이고 우리 국가의 자랑이며 이런 군대의 최고사령관직을 맡고있는것이 영광스럽다고 기쁨에 넘쳐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자기 본연의 사명에 충실한 인민공군의 성격이 또 한번 뚜렷이 과시되였다고, 공군이 발휘한 헌신성과 인민에 대한 무조건적인 결사복무정신에 온 나라 인민이 감사할것이라고 하시면서 놀라운 구조전투공적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특히 직승비행련대장이 앞장에서 어려운 구조비행임무를 도맡아 수행하였는데 정말 지휘관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훌륭히 갖추었다고, 전군적으로 따라배울 또 한명의 우수한 지휘관을 전투환경속에서 찾아냈다고 못내 기뻐하시며 그의 등을 두드려주시고 따뜻이 고무격려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재해복구 및 구제사업에 총력을 기울여 재난에 의한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 후과를 빨리 가시며 앞으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적시적인 대책을 세울데 대한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신의주시와 의주군의 큰물피해실상이 매우 엄중하다고 하시면서 중앙과 지역의 각급 지도일군들과 력량이 인민들의 생명재산보호를 첫자리에 놓고 피해복구사업에 사상적으로 발동되여 신속히 동원되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수재민들에 대한 예방치료대책 및 생활조건보장에 일차적인 관심을 돌려 그들을 시급히 안정시키며 이와

관련하여 해당 지역 당 및 정권기관들에서는 식량과 의약품, 생활용품을 비롯한 구제물자들을 최대한 보장해주고 위로해주며 동시에 국가적인 지원대책도 강구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 지역에 폭우발생이 의연히 예견되는 조건에서 더이상의 재난이 초래되지 않도록 속히 대책을 세우며 큰물발생위험이 가셔지는 즉시 영구적인 피해복구대책에 일제히 진입할수 있게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를 위한 비상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지시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신의주시와 의주군을 비롯한 평북도와 자강도, 량강도의 압록강연안의 일부 군내 지역들을 특급재해비상지역들로 선포하고 내각과 위원회, 성, 중앙기관, 안전 및 무력기관을 비롯한 각급 기관들이 력량과 기재를 총동원하여 피해방지 및 복구사업에 떨쳐나섬으로써 피해를 빨리 가시고 생산 및 생활질서를 정상수준으로 회복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중대조치들을 취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시급한 복구대책들을 수립하기 위한 문제를 토의한 회의

평안북도와 자강도를 비롯한 일부 지역들에서 큰물과 폭우로 인한 엄중한 피해들이 련속 발생한것과 관련하여 시급한 복구대책들을 수립하기 위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2차 정치국 비상확대회의가 2024년 7월 29일부터 30일까지 평안북도 신의주시 피해현지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소집에 앞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침수지역을 돌아보시였다.

압록강하류에 위치한 신의주시와 의주군에서는 무려 4 100여세대에 달하는 살림집과 근 3 000정보의 농경지를 비롯하여 수많은 공공건물들과 시설물, 도로, 철길들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형지물을 알아볼수 없을 정도로 깊숙이 잠겨든 침수지역을 돌아보시면서 커다란 우려를 표시하시고 최단기간내에 복구와 관련한 국가적인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여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삶의 터전을 안겨주실 결심을 피력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사회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최근 며칠사이에 여러 지역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큰물피해가 발생하고 보다 확대될수 있는 위험이 조성된것과 관련하여 피해방지 및 복구대책을 토의하기 위하여 비상확대회의를 소집하였다고 상기시키시고 종합된 전국 및 지역별 큰물피해상황에 대하여 상세히 언급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피해발생초기부터 진행해온 해당 지역과 각급 기관들의 구제대책 및 복구사업정형에 대한 평가를 내리시면서 성과와 결함들에 대하여 분석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금 이 시각에도 인민들은 당을 믿고 이 회의를 지켜보고있다고 하시면서 인민들의 기대와 그들앞에 지닌 중대한 사명을 무겁게 자각하고 하루속히 피해를 가시기 위한 모든 조치들을 강력하게, 세밀하게 강구해나가야 한다고 하시며 그를 위한 강령적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시급히 안착시키기 위하여 비상재해용비축물자들을 긴급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며 내각과 해당 성, 중앙기관들에서도 이 사업에 적극 동원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도별 피해상황과 손실을 정확히 조사하고 그에 기초하여 복구건설규모와 로력, 예산 등을 과학적으로 타산할데 대한 문제, 중앙과 지방의 설계력량을 지체없이 동원하고 설계들을 선행시켜 복구전투에서 신속성을 보장할데 대한 문제, 건설력량을 시급히 파견하며 자재보장과 원활한 수송을 실현하는 문제 등 피해복구에서 나서는 실무적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앞으로 재해성기후에 의한 추가피해를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기상예보부문에서는 예보사업을 책임적으로 하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은 최대로 각성하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빈틈없이 하며 특히 인명피해가 절대로 나지 않도록 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재해발생시 구조작업에 동원할수 있는 필수구조장비와 기재들을 시급히 비축하기 위한 사업을 강하게 내밀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중대조치들을 발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정치국 성원들을 비롯한 회의참가자들이 의주군의 수재민들이 림시거처한 천막들에 찾아가 생활형편을 실지 눈으로 보면서 자기의 책임을 무겁게 느껴보며 그들을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해주면서 솔직한 목소리를 듣고 복구와 관련한 구체적인 대책안들을 깊이 연구하여 정치국에 제기할데 대하여 강조하시고 비

상확대회의 1일회의를 마치시였다.

2일회의가 7월 30일에 진행되였다.

정치국회의에서는 큰물피해를 시급히 복구할데 대한 결정서초안을 연구하였다.

정치국 비상확대회의에서는 참가자들의 연구결과와 의견들을 추가반영한 결정서 《평안북도와 자강도의 큰물피해를 시급히 복구할데 대하여》가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회의를 결속하시면서 우리는 위기를 한두번만 겪어오지 않았다고, 그때마다 우리는 위기앞에 항상 용감했고 공세적이였으며 언제나 기적만을 창조하였다고, 당의 령도가 있고 당에 충실한 군대와 인민이 있는한 못해낼 일이란 없다고 하시며 다시한번 위기를 딛고 억세게 떨쳐일어나 기적적인 성과들을 일으켜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재해복구를 위한 중대조치들을 취해주시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2024년 8월 8일과 9일 평안북도 의주군 큰물피해지역을 또다시 찾으시고 재해복구를 위한 중대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

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은 피해지역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훌륭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한 영예로운 투쟁전선을 펼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8월 8일 또다시 의주군의 수재민들을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침수된 의주군의 섬지역이 한눈에 바

라보이는 압록강대안의 둔덕에 오르시여 륜곽이 드러나기 시작한 침수지역의 실태를 다시금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복구에서 나서는 중요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번 피해복구를 단순히 자연재해가 몰아온 후과를 가시기 위한 사업으로만이 아니라 우리 당의 원대한 지방발전강령을 실현하는 중차대한 문제라는 관점에서 전망적으로, 발전적으로 확대추진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폭우만 내리면 《저수지》로 변해버리는 이 지역의 고질적인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수능력을 결정적으로 제고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압록강의 수위가 높아지는데 따라 일방적으로 큰물피해를 입을수밖에 없게 되여있는 의주군의 현존강대안실태와 큰물방지능력을 수리공학부문과 설계부문이 협동하여 과학적으로 따져보고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할데 대하여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의주군에 새 살림집들을 건설하는 이번 기회에 도시 부럽지 않은 문명하고 현대적인 주택지구로 번듯하게 일떠세워 천지개벽을 안아와야 한다고 하시면서 특히 전기, 음료수보장과 오수처리에 이르기까지 도시경영과 관련한 제반 요소들을 모두 완벽하게 갖춘 리상적인 《농촌문화도시》로 건설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어 수재민들이 림시거처하고있는 가설천막전개지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만나시여 따뜻이 위로해주시였다.

찌는듯한 무더위를 헤치시고 자기들의 거처지에까지 찾아오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천만뜻밖에 뵈옵게 된 수재민들은 뜨거운 감격과 격정

의 눈물을 쏟으며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였다.

수재민들은 어제는 사납게 범람하는 물길을 달려 피해현장에 몸소 나오시여 오래도록 계시면서 사경에 처하였던 자기들 한명한명의 생명을 모두 구원해주시고 오늘은 또 이렇게 자기들이 생활하고있는 천막에까지 찾아오시여 육친의 정을 부어주시는 사회주의대가정의 어버이를 눈물속에 우러르며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올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수재민들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불편한 점은 없는가, 식사는 어떻게 보장되고있는가, 앓는 사람은 없는가 따뜻이 물어주시면서 친어버이심정으로 생활의 구석구석을 세심히 헤아려주시였다.

수재민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대해같은 사랑으로 필수적인 생활조건들이 다 갖추어지고 온 나라가 떨쳐나 도와주니 불편한것이 하나도 없다고, 오직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은혜에 보답할 일념뿐이라고 격동된 심정들을 아뢰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객지생활이 왜 어렵지 않겠는가고, 조금만 참자고, 우리 이제 자연이 휩쓸고 간 페허우에 보란듯이 지상락원을 우뚝 세워놓고 잘살아보자고 뜨겁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변함없는 신뢰의 마음에 감사하다고, 이런 굳건한 믿음이 있기에 피해복구는 문제로도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몸소 구입해오신 당과류들을 아이들에게 먹여도 주시고 귀여운 옷들을 입혀도 보시면서 아이들을 보니 정말 힘이 난다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투쟁해야 하고 무엇을 지키기 위해 강해야 하는가를 더욱 무겁게 새기게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찌물쿠는 날씨에도 불편을 무릅쓰시고 수재민들과 오래도록 담화를 나누시며 손도 따뜻이 잡아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신심과 용기도 백배해주시는 친어버이의 뜨거운 정에 수재민들모두가 북받치는 감격을 금치 못하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품에 와락 안겨들며 환호를 올리는 격정의 바다, 눈물의 바다가 펼쳐졌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헤여지기 아쉬워하며 걸음걸음 따라서는 수재민들에게 어서 들어가라고, 다음날 또 만나자고 사랑의 약속을 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8월 9일 의주군의 수재민들과 또다시 상봉하시고 재해복구와 관련한 당과 정부의 립장을 천명하시면서 중대조치들을 취해주시고 그들을 위로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신의주시와 의주군의 수재민들을 위하여 당중앙위원회에서 마련한 지원물자를 자신의 전용렬차에 몸소 싣고 오시여 전달하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자강도와 량강도안의 수재민들에게 보내시는 물자도 곧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들이 현지에 나가 전달할것을 위임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간부들이 지원물자를 수재민들에게 안겨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따스한 체취가 스민 지원물자들을 받아안은 의주군의 수재민들은 무한한 행복과 격정에 넘쳐 고마움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면서 《만세!》의 환호를 목청껏 올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옷을 입은 어린이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머리를 쓰다듬어주시고 귀속말도 나누시면서 친아버지의 따뜻한

사랑과 정을 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수재민들앞에서 위로의 말씀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시한번 현지에서 형편을 더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복구사업과 관련한 일련의 문제들을 재포치하며 수재민들에게 도움이 될 국가적인 중대조치들을 추가로 강구하기 위해 왔다고 하시면서 모두가 건강하고 불편의 내색없는 모습들을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고, 정말 큰 힘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은 당과 국가의 기초이고 기둥이며 모든 활동의 출발점이고 지향점이라고, 엄혹한 재난의 시기에도 이처럼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당과 정부를 믿어주고있는데 대해 긍지스럽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수재민생활도모와 피해복구를 위한 당과 정부의 립장을 천명하시고 중요조치실시에 대해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금 당과 국가의 모든 사업이 피해복구전투에 총집중되고있다고 하시면서 인민군군인들과 청년들을 비롯한 강력한 건설력량이 이미 전개되고 복구용물자수송이 비상체계에 따라 진행되고있다고 언급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살림집건설이 끝나 생활이 안정될 때까지의 두석달기간에 제일 걸린 문제는 어린이들과 학생들의 생활과 교육문제이라고, 보육과 교양, 교육문제는 하늘이 무너져도 절대로 양보할수 없는 제1의 국사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복구기간 평안북도와 자강도, 량강도 수재민가족들의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모두 평양에 데려다 국가가 전적으로 부

담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보육과 교육을 맡아 제공하는 비상체계를 가동시키며 로인들과 병약자들, 영예군인들과 어린애어머니들에게도 평양에서 국가적인 보호혜택을 제공해주려고 한다는 중대조치를 발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개인적인 사정도 있는것만큼 철저히 본인들의 의향과 결심에 맡기지만 국가적인 사업으로 최중시하고 내세운것만큼 당과 정부에서는 전적으로 책임지고 평양에 올라오는 수재민들의 건강과 생활을 최대의 정성을 기울여 돌보아줄것이며 성심성의를 다할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몸소 숙소에 나오시여
수재민들을 따뜻이 맞아주시며

사랑하는 인민의 안녕과 복리를 위함이라면 그 어떤 고난과 시련도 한몸에 떠안으시며 온넋과 혼신을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나라의 서북변을 휩쓴 큰물속에서 수천의 생명을 구원해주시고 천지개벽의 거창한 복구전선을 펼쳐주신데 이어 수재민들이 만시름을 잊고 수도 평양에서 국가적인 보호혜택을 받도록 중대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직접적인 조직사업에 따라 비상방조제공조치가 강력히 실행되여 수도의 4.25려관과 열병훈련기지에는 수해지역 어린이들과 학생들, 주민들을 위한 교육과 보육조건, 생활 및 휴식조건, 보양과 치료조건이 높은 수준에서 원만히 갖추어졌다.

평안북도와 자강도, 량강도의 당, 정권기관 일군들과 인민들의 뜨거운 바래움을 받으며 렬차로 해당 지역을 출발한 어린이들과 학생,

년로자, 병약자, 영예군인, 어린애어머니들 1만 3 000여명이 2024년 8월 15일 평양에 도착하여 숙소에 입소하였다.

언제나 인민을 위한 영예로운 복무에 절대적이며 불같은 열애를 바쳐가는 위대한 당중앙의 숨결과 정성이 력연히 깃든 숙소에 수재민 가족들이 크나큰 감격과 기쁨을 안고 들어섰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몸소 숙소에 나오시여 여러 지역 수재민들과 상봉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도착하시자 열광의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수재민들은 슬하의 천만자식들의 마음속에 한점의 그늘이라도 질세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위대한 사랑과 은정을 거듭 베풀어주시고도 또다시 친혈육을 반겨맞는 어버이의 심정으로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몸소 숙소에까지 나오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눈물속에 우러르며 감격의 환호성을 목청껏 터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손저어 답례하시였다.

령도자와 인민이 정과 의리로 일체를 이룬 조선특유의 참모습이 펼쳐진 구내는 격동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환영사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과 정부가 취한 조치들을 믿고 따라준 여러 지역 수재민들에게 감사를 표하시고 평양에서 상봉하게 된 기쁨을 피력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국경연선과 북부내륙의 여러 피해지역들에서 불편하게 지내던 로인들과 애기어머니들, 영예군인들과 어린

이들모두를 위한 성의있는 생활조건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울인 당과 정부의 노력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건강위주, 평안위주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하는 최상의 성의를 다할것임을 확언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뜻밖의 자연재해로 국토의 일부분과 지역인민들의 마음속에 상처가 난것은 가슴아픈 일이지만 사회주의대가정은 아픔과 시련앞에서 더 굳게 뭉치고 고상한 정신으로 더 억세게 단결되였다고 하시면서 오늘의 재난을 지방개화의 분수령으로 바꾸려는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의지와 그 눈부신 전도에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수재민들이 이전보다 더 좋아지고 환해진 모습들로 개벽된 정든 고장에 들어설수 있게 4.25려관과 열병훈련기지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열심히 노력해줄것을 당부하시면서 모두가 어머니조국의 수도에서 마음놓고 편하게 지내면서 체류기간내내 인상깊고 의의깊은 시간을 보내기를 따뜻이 축원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환영사를 마치시자 자애로운 품속에 인민을 정히 안으시고 오로지 인민을 위해 그 어떤 고행도 달게 여기시며 끝없는 헌신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위대한 어버이의 열화의 진정에 남녀로소모두가 눈시울적시며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무한한 감격에 겨워 오열을 터뜨리는 수재민들에게 오래도록 따뜻이 손저어주시였다.

당과 국가의 각별한 관심과 중대조치에 의하여 꿈같은 특전을 누리게 된 수재민들은 어머니당의 크나큰 사랑에 두볼을 적시며 전체

수해지역 주민들과 온 나라 인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어린이들의 식사실을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스스럼없이 안겨드는 어린이들을 따뜻이 품어주시며 어서 밥도 잘먹고 무럭무럭 자라서 가정과 나라에 웃음꽃을 더해주는 기쁨동이, 행복동이가 되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모두가 평양체류기간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마음껏 혜택을 누리며 건강한 몸으로 즐거운 나날을 보내기를 다시금 기원하시였다.

희한한 천지개벽의
력사가 펼쳐지게 될것이라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2024년 11월 4일 평안북도 피해복구건설현장을 또다시 현지지도하시였다.

피해지역에 도시부럽지 않은 문명하고 현대적인 주택들을 번듯하게 일떠세워 리상적인 《농촌문화도시》로 전변시킬데 대한 당중앙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산악같이 일떠나선 전체 건설자들의 힘찬 애국투쟁에 의하여 재난을 당한 조선의 서북부 섬지역에 련일 훌륭한 새 농촌마을들이 자기의 자태를 드러내며 우월한 조선식 사회주의제도의 아름다운 현실을 힘있게 과시하고 래일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의주군 어적리와 신의주시 하단리의

피해복구지역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불과 몇달전 큰물로 인한 위험사태가 조성되였을 때 지역인민들을 긴급구조하며 사품치는 물결에 잠긴 마을들을 아프게 바라보던 기억이 앙금처럼 가슴속에 내려앉아 그사이 항상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제는 억척의 제방들이 솟아나고 안전지대에 독특한 형식을 자랑하며 경쟁적으로 일떠서고있는 여러 류형의 도시형농촌살림집들을 보고나니 감개함을 금할수 없다고, 정말 보람있고 정확한 결정을 했으며 우리의 힘을 믿고 우리의 힘으로 커다란 변화를 일으켰다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로서의 성스러운 사명에 항상 완벽해온 우리 군대와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 척후대라는 영예로운 명성에 언제나 충실해온 우리 청년들이 인민사수의 최전구인 여기 피해복구전역에서도 조국의 부름과 혁명의 요구에 어긋남이 없이 특유의 용맹으로써 비상한 건설성과들을 창조해가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건설자들의 빛나는 위훈과 혁신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방대한 이번 피해복구건설투쟁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한번 우리의 힘을 믿게 되였다고, 자신께서는 이것을 그 어떤 결실보다도 더 중요한 정신적재부로 간주한다고, 우리는 무진막강한 우리의 자력을 또 한번 강렬히 체험하고있으며 자생자결의 정신과 성스러운 애국투쟁속에 서로 돕고 이끄는 우리 사회의 일심단결이 더욱 굳건해지고있음을 당당히 확신하고있다고 힘있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우리 국가만이 지니고있는 세

상에 유일무이한 불가항력의 정신과 힘에서 마땅히 우리는 자부를 가져야 하며 그의 무궁무진한 과시로써 보다 떳떳하고 보람있는 래일을 끊임없이 창조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불행을 당한 인민을 위하고 재난을 입은 조국의 상처를 가시는 애국애족의 영예로운 투쟁에 계속 총분기하여 반드시 목표했던바 그대로 훌륭한 결실을 안아오자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무슨 일이나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는 보다 중요하다고, 이제 남은 공사과제를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따라 복구건설에 대한 평가가 좌우될것이라고 하시면서 열배, 백배의 책임과 분투와 용기로써 긴장한 투쟁을 련속 이어감으로써 마감기간에 더 큰 혁신적성과를 들어올리자고 건설자들을 적극 고무격려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사를 질적으로 마감하자면 기능공력량을 보강해주고 국가적으로 해결해줄 일련의 문제들이 있다고 하시면서 해당 대책들을 지시하시였으며 피해복구전투를 12월당전원회의를 맞으며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할데 대한 결심을 내리시고 복구건설을 성과적으로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무더운 여름철에 우리 청년들과 군인들이 피해복구건설전에로 진출해 떠나갔는데 어느덧 계절이 바뀌였다고, 그사이 감탕만 쌓였던 재해지에 하나의 《농촌문화도시》가 자태를 드러냈는데 우리 젊은이들의 창조적투쟁으로 이룩한 변화가 계절의 변화보다 더 빠르다고, 우리 청년들과 군인들이 그동안 조국앞에, 시대앞에 떳떳하기 위해 정말 많은 일을 했다고 다시금 거듭 평가하시면서 자기의 창조물들마다에 애국의 땀을 진함없이 바쳐가고있는

미더운 우리 건설자들의 불굴의 투쟁이 있어 이제 곧 이곳에 희한한 천지개벽의 력사가 펼쳐지게 될것이라고 확언하시였다.

100년후에도 인민들이 덕을 볼수 있게

인민대중제일주의기치높이 조선혁명을 백승의 한길로 향도하는 조선로동당의 탁월한 사상과 원숙한 지도력에 의해 국가부흥의 새시대를 상징하는 변혁적창조물들이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다련발적으로 솟구쳐오르고있는 속에 지방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조선로동당의 《지방발전 20×10정책》의 첫해 과업이 빛나게 완결되여 전국의 20개 시, 군들에 수십개의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들이 훌륭하게 일떠섰다.

조선로동당의 《지방발전 20×10정책》성천군 지방공업공장 준공식이 2024년 12월 20일에 성대히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준공식에 참석하시여 성천군 지방공업공장 준공과 관련한 중요연설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 시대의 지방공업정책과 농촌혁명강령이 모든 지역의 인민생활과 나라의 농업을 전반적으로 추켜세우려는 의도에 배치되게 응당한 결실을 보지 못한 원인들과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하여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중요문제들에 대하여 전면적이며 랭철한 분석과 평가를 내리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해가 바뀔 때마다 20개 시, 군이 변하는 위대한 년대는 어김없이 무조건 계속 이어져야 하며 가시적인 성과보다 교훈과 전망을 더 중시하면서 전진의 보폭을 더 크고 정확

하게 내짚어야 한다고 강조하시고 지방발전정책실행의 새년도 건설사업을 혁명적으로 내밀기 위한 원칙적문제들과 강령적과업들을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은 력사적인 새시대 지방발전정책과 농촌혁명강령을 100년후에도 인민들이 덕을 볼수 있게 더욱 확대심화시킬것이며 지방의 한가지라도 더 훌륭히 개변시키는데 더욱 과감할것이라고 하시면서 사랑하는 우리 후대들, 우리 인민들이 변천된 고향땅, 흥하는 고장에서 문명부유한 삶을 누려갈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용감히 분투해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준공식참가자들과 함께 성천군 지방공업공장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지방중흥의 첫 창조물로 훌륭하게 일떠선 성천군 지방공업공장들의 준공은 주체위업의 양양한 전도와 더욱 문명부강할 미래를 확신하며 당 제8차대회가 펼친 전면적국가부흥의 력사적진군을 가속화해나가고있는 온 나라 인민들의 애국투쟁을 비상히 고무추동하는 의의깊은 계기로 되였다.

맺 는 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한평생 나라의 농업발전과 농업근로자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끝없는 심혈과 로고를 바쳐오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드시여 농촌문제를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실현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전략적문제로 중시하고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단계의 요구에 맞게 농촌진흥의 새시대를 줄기차게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고계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오늘 조선에서는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이 빛나게 실현되여 사회주의농촌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위대한 새시대가 펼쳐지고있으며 농업근로자들은 값높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따뜻하고 은혜로운 사랑과 믿음으로 하여 조선의 농업근로자들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혁명의 한길을 따라 꿋꿋이 걸어올수 있었으며 당과 수령을 높이 모시고 따르는 충성의 한길에서 주체조선의 농업근로자된 크나큰 영예와 존엄을 끝없이 빛내여올수 있었다.

조선의 농업근로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자기들의 숭고한 사명과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나갈것이다.